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36621

영한 형용사 분류: 온톨로지 구축 기반을 위하여

Classification of English and Korean Adjectives: An Ontology-based Perspective

*2008*년 *8*월 *25*일

조선대학교대학원

영 어 영 문 학 과

정 혜 인

영한 형용사 분류: 온톨로지 구축 기반을 위하여

지 도 교 수 이 남 근

이 논문을 문학 박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4*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영 어 영 문 학 과

정 혜 인

정혜인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_____

위 원 경희대학교 교수 _____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_____

위 원 동신대학교 교수 _____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_____

*2008*년 *6*월 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ABSTRACT ---------- iii

1. 서론 ---------- *1*

1.1 연구 배경 ---------- *3*

1.2 연구 목적 ---------- *4*

1.3 연구 방법 및 구성 ---------- *5*

2. 형용사의 특징 ---------- *8*

2.1 영어 형용사 ---------- *8*

2.1.1 통사적 특징 ---------- *8*

2.1.1.1 보편성 ---------- *9*

2.1.1.2 한정적 기능과 자질 속성 ---------- *15*

2.1.1.3 어휘적 속성-하위범주화 ---------- *19*

2.1.1.4 구조적 속성 ---------- *21*

2.1.2 의미적 특징 ---------- *24*

2.1.2.1 의미적 하위범주 ---------- *27*

2.1.2.2 하위범주화 요인 ---------- *32*

2.2 한국어 형용사 ---------- *45*

2.2.1 통사적 특징 ---------- *47*

2.2.2 의미적 특징 ---------- *69*

2.3 요약 ---------- 84
3. 온톨로지와 시각·감성정보 정의 ---------- 88
3.1 온톨로지 정의 ---------- 88
3.2 시각정보 ---------- 90
3.2.1 형태 ---------- 91
3.2.2 색채 ---------- 93
3.2.3 질감 ---------- 94
3.2.4 패턴 ---------- 96
3.3 감성정보 ---------- 97
3.4 시각정보의 감성화와 통계 분석법 ---------- 98

4. 감성 어휘 추출과 속성 비교 ---------- 100
4.1 감성어 추출 실험 ---------- 100
4.1.1 실험 절차 ---------- 100
4.1.2 실험 결과 ---------- 106
4.2 감성 형용사의 의미적 속성 ---------- 113

5. 온톨로지 구축 기반 형용사 분류 제안 ---------- 118

6. 결론 ---------- 129
참고문헌 ---------- 132
부록 ---------- 139

ABSTRACT

Classification of English and Korean Adjectives: An Ontology-based Perspective

Jeong Hye-in
Advisor: Prof. Lee Nam-geun Ph.D.
Dept. of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is related to ontological structure dealing with the nature of existence. The established studies on English and Korean Adjectives have been mainly focused on syntactic and semantic characteristics regarding sentential structures. These help natural language to make good sense and be learned or used in daily life as well as in academic study. But such academic or daily linguistic knowledge can not give all the properties of adjectives in ontology-based structures, because they have different focuses. The established studies on adjectives are limited to academic or daily use, linguistic areas. while ontology-based structure should include all areas.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nature of adjectives, address their new characteristics needed for an ontology-based perspective, and determine their new classification, limited to the areas of English and Korean languages.

First, the linguistic nature of English and Korean adjectives have been explored through the studies of their syntactic and semantic features. As a result, English adjectives include modifiers, subcategorizing lexical properties, and structural positions as syntactic nature, and semantic subcategories in

conformation with word order. Korean adjectives display several similar characteristics with intransitive verbs. These verbal properties are dissimilar from English adjectives due to the verbal usage of adjectives in Korean. Therefore the distinctive usage makes the studies on Korean adjective carried on with sentential frames, and also semantic properties or subcategories of Korean adjectives featured with sentential frames. Nevertheless, all these syntactic and semantic properties of English and Korean adjectives, as mentioned above, are restricted to each particular language. So other properties related to some subjects dealt with ontology-based structures should be determined.

For this reason, an experiment was conducted, where sensibility adjectives through visual information were collected through a survey, then filtered, and their adequacies were verified with the consistent disposition of the adjectives in line with similar properties from the visual data. The adjectives finally obtained from the experiment show the relationship between sensibility and visual information. Thus we can say that the sensibility adjectives indicate a model of the conceptual properties of a subject, visual information.

Third, the sensibility adjectives were surveyed in Korean and translated into English because their meanings are universal, as mentioned in the second chapter. The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e contents of established adjective subcategories. Here the fact that the sensibility adjectives are across several subcategories comes to the surface. It means that the established adjective results do not satisfy ontological structure.

As a result, in this study we suggest a new classification of English and Korean adjectives for an ontology-based perspective. The classification is explained from the ontological viewpoint by capturing lexical and sub-categorical crossing phenomena. In addition the classification helps to easily map the conceptual properties indicat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adjectiv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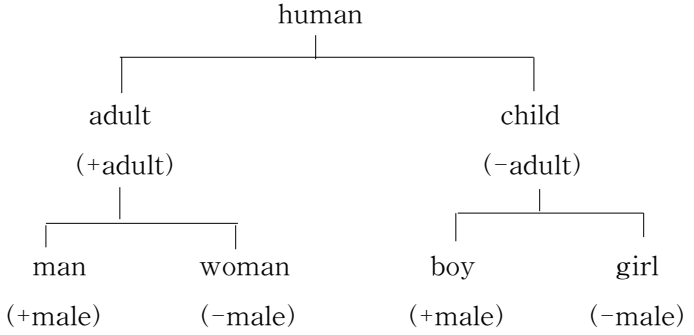
and subjects in the ontological structure. Hereafter the English data used in this study needs to be verified through a survey of native English-speaking people and on the real ontological map, in order to apply to the authentic ontology-based structure.

1. 서론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개인 감성까지도 표현하거나 포착할 수 있는 인공 지능의 컴퓨터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온톨로지(Ontology)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온톨로지(Ontolgoy)의 개념은 자연세계의 모든 사물을 위계적으로 개념화하는 것인데,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온톨로지(Ontology) 개념을 전산학적으로 활용한 시각정보(Visual Information) 기반 감성어 추출을 배경으로 하여 영어와 한국어 형용사의 하위범주에 대한 분류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온톨로지는 전통적 입장에서 (1)과 같은 개념을 나타낸다.

(1)



(류병래, 2007(Vossen, 2003))

이것은 인간의 속성을 온톨로지 개념으로 나타내본 것이다. 그 중에서도 인간의 성(sex)이란 속성을 바탕으로 개념화한 것이다. 즉 인간은 [± 성인(adult)]과 [± 남성(male)]이란 속성을 바탕으로 크게 어른과 어린이로 나누어지고, 어른은 또 다시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며 어린이는 소년과 소녀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을 형용사에 적용해 볼 때, 형용사가 지닌 모든 속성이 표면화되어야 할 것이다. 통사적 특징이나 의미적 특징 혹은 주변 대상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의미적 속성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형용사는 상태적 의미를 나타내면서 주어진 대상에 대한 한정적 혹은 서술적 기능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주변 대상과의 관계가 드

러나야 할 것이다.

Dixon(1977)에 따르면 형용사는 어휘 범주에서 가장 다양하고 가장 보편적이지 않은 품사라고 정의된다. 이는 형용사라는 범주가 모든 언어에 존재하지 않음을 시사하는 말이다. 어떤 언어에서는 형용사가 명사와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단지 파생어(derivation)로 간주되기도 한다(민재기, 1996). 또 Mohawk어에서처럼 형용사 범주가 존재하지만 영어와는 달리 계사 없이 동사처럼 굴절을 하고, 일치 형태소가 있으며, 사역성 동사에 붙는 형태소가 형용사를 대신하는 동사에 붙어 의미역을 할당할 수도 있는 언어도 존재한다. 이들 언어는 영어 형용사가 구조적으로 나타나는 위치인 결과구문이나 정도 부사와의 결합, 그리고 명사를 한정하는 구조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Chichewa와 같은 아프리카 언어에서는 형용사의 범주가 없고 단지 명사와 동사만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 경우 형용사적 의미는 명사를 통해서 전달된다[1]. 예를 들어, (2)에서 보면 *부유한 남자*라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형용사 *rich* 대신에 (2b)에서처럼 부(wealth)를 나타내는 명사가 사용된다.

(2) a. a rich man
b. a man of wealth

그러나 Nicklas(1972)와 Broadwell(1990)에서는 형용사와 동사의 구분이 없는 언어들은 대부분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 어떤 특정한 방식의 동사적 하위 범주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영어 형용사와 유사한 통사·의미적 속성을 지닌 범주는 없다하더라도 형용사로 활용되는 범주가 존재한다는 말이다. 형용사라는 품사가 존재하는 언어들에서도 형태적 혹은 통사적으로 완벽하게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 즉 한국어에도 형용사라는 범주가 존재하지만, 영어 형용사와 완전히 일치하는 통사적 문법 구조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비록 형태적 혹은 통사적 설명이 어

1) Givon(1979)에 따르면 형용사가 없는 언어에서는 영어 형용사에 해당하는 단어는 상태동사에 분류시켰다. 또 소수 형용사를 가진 언어에서는 크기, 모양, 맛, 색깔, 구조 등과 같은 내재적이면서 영구적인 특성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휘 범주를 설명할 때 앞서기는 하지만, 이런 견해만을 가지고서 형용사에 대한 속성을 논할 수는 없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형용사가 모든 언어에 존재하는 범주이며, 그 속성으로 통사·의미적인 것 뿐 아니라 활용되는 속성, 즉 주어진 대상과의 관련성을 통한 의미적 활용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영어와 한국어 형용사를 논의의 대상으로 하였다. 영어와 한국어 형용사는 명확하게 구분된 범주가 존재하며, 각각 통사적 그리고 의미적 특징을 가진다. 하지만 논의의 중점을 살펴보면, 영어 형용사의 경우 의미에 대한 논의는 주로 어순 규칙과 관련하여서만 언급된다. 어순 규칙은 형용사가 피수식어인 중심 명사를 수식할 때 적용되는 어순에 대한 규칙을 말한다. 이 어순 규칙을 통해서 영어 형용사의 어휘들이 지닌 의미를 통합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의미적 하위 범주가 등장한다. 반면 한국어 형용사의 경우 의미적 하위분류 뿐 아니라 그 하위 범주의 상위적 의미 설정, 하위 범주가 문형과 갖는 관계 등 의미적 속성과 관련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영어와 한국어 형용사의 의미적 속성을 서로 비교 논의함으로써 온톨로지 구축을 위한 형용사의 의미적 속성 기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1 연구 배경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영·한 형용사 분류에 대한 연구는 온톨로지 구축 기반을 위한 관점에서 형용사를 논의하고자 하는데서 출발한다. 지금까지 영어와 한국어 형용사에 대한 논의는 언어학적으로 통사·의미적 특징에 심도를 두고 이루어져왔다. 영어 형용사가 지니는 통사적 특징과 관련하여서는 대개 기능과 하위 범주(sub categorization), 자질(features), 구절 순서(phrasal order), 구조적 위치(position) 등이 있고, 의미적 특징은 구조와 연관하여 나타나는 통사적 의미역 혹은 상태(state)라는 의미에서 출발하여 여러 의미적 하위 범주와 관련한다. 한국어 형용사와 비교해 볼 때, 영어 형용사의 의미적 특징은 의미적 논리를 논하는 분야를 제외하고서는 어휘 자체의 의미(meaning)와 관련한 논의는 그리 많지 않다. 한

국어 형용사는 최현배(1937) 이후로 많은 논의가 되어왔고, 통사적 구조나 통사규칙, 문법 요소, 동사의 어휘의미, 관련 상황의 의미 논리, 발화 상황의 조건 등 여러 관점에서 다루어져 왔다.

온톨로지 구조에서는 이러한 형용사의 특징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온톨로지는 존재하는 모든 대상에 대한 개념을 위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용사의 언어학적 특징 뿐 아니라 대상과 연관된 의미적 속성도 나열하게 될 것이다. 특히 온톨로지는 개념을 보여주기 때문에 대상과의 관계는 의미적 속성을 통해 들어날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영어와 한국어 형용사의 언어학적 특징인 통사적 그리고 의미적 특징을 알아보고 그 의미적 특징과 대상과 연관된 의미적 속성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비교를 통해 얻은 결과를 이용해 온톨로지 구축 기반을 위한 새로운 형용사의 속성 분류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이 논문은 형용사의 언어학적 특징을 고찰해 보고 실험을 통해 대상과 연관된 형용사의 의미적 속성을 제시함으로써, 온톨로지 구축 기반을 위한 영어와 한국어 형용사의 새로운 분류를 제시해 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영어 형용사에서 볼 수 있는 언어학적 측면 중에 의미(meaning)를 중심으로 논의한 내용으로는 Christophersen(1971), Quirk(1973), Vendler(1968) 에서처럼 어순 규칙을 위해 사용된 의미 범주에 한정되어져 있다. 또 한국어 형용사에 있어서는 최현배(1937/1971), 고신숙(1987), 김창섭(1985), 이정민(1976), 김미형(1989), 유현경(1998) 등 형용사의 의미나 문장 구조 형태에 따른 분류, 또는 의미적 분류 중에서도 특정 부류, 예를 들면 성상형용사나 심리형용사의 유형에 대한 논의가 비중을 차지해왔다. 이들은 모두 구조적 관점과 연관되어 설명된다.

반면 온톨로지 기반 형용사 연구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형용사의 언어학적 특징 뿐 아니라 주어진 대상과 관련된 의미적 속성도 내포한다. 이러한 관점은 형용사의 의미적 하위 범주들의 속성이나 어휘들이 지닌 의미적 공유 혹은 통사적 차이점

등을 모두 보여줄 수 있다. 예로 한 사물에 대한 온톨로지 개념을 살펴보자.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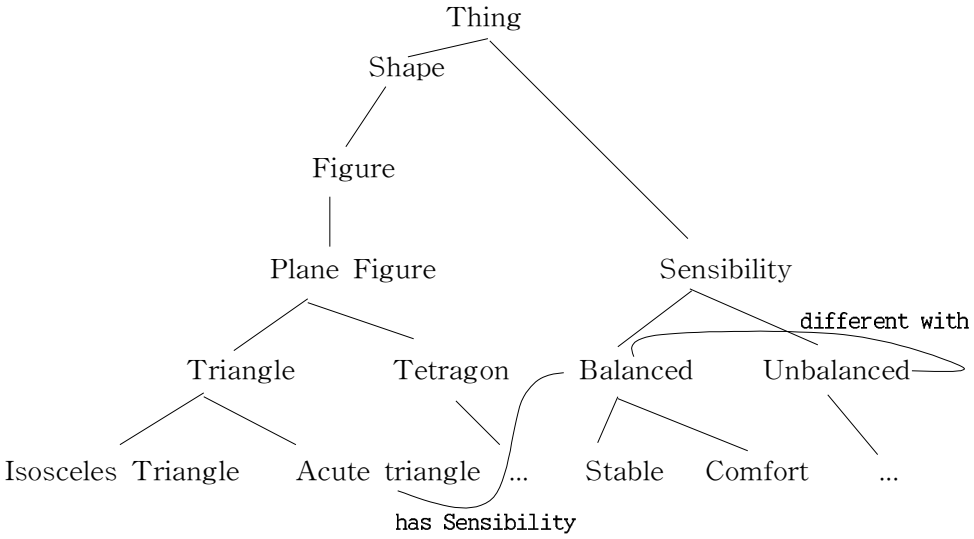


그림 (3)은 어떤 사물에 대한 시각 정보인, 평면 모양 형태의 삼각형(triangle)과 사각형(tetragon)을 보여준다.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isosceles triangle)과 예각 삼각형(acute triangle) 등으로 구분된다. 예각 삼각형은 감성(sensibility)과 관련하여 *balanced*(균형적이다)의 속성을 지니고, 이 의미적 속성은 unbalanced(불균형적이다) 속성과도 반대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와 같이 온톨로지 개념에서는 어떤 실체에 대하여 모든 개념들이 총집합되기 때문에, 형용사에 있어서도 어휘의 개별적인 의미, 이들이 공통적 의미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하위범주적 속성, 통사적 기능 그리고 하위범주들과 다른 대상과의 관계 등 모든 속성들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1.3 연구 방법 및 구성

본 논문에서는 온톨로지 구축을 위해 영어와 한국어 형용사의 분석을 통해 새로

운 분류를 시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즉 기존 형용사 분류와는 다르게 형용사가 지닌 통사적 특징과 더불어 의미적 하위 범주들의 속성, 또 다른 대상과의 속성들의 위계를 다룰 수 있는 새로운 분류를 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 2장에서는 전통적인 입장과 기존에 논의된 형용사에 대한 통사적 그리고 의미적 연구를 영어와 한국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온톨로지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제 3장에서는 제 2장에서 논의된 문제점을 검증하는 제 4장의 실험을 위해 몇 가지 개념을 살펴본다. 첫 째는 본 논문에서 언급하는 온톨로지(Ontology)에 대한 정의이고, 두 번째는 실험을 위한 시각 정보와 감성 정보에 대한 것이다. 온톨로지는 존재론이라는 철학에서 출발한 의미이지만, 본 논문에서 활용된 온톨로지는 전산학에서 활용하는 인공지능과 관련한다. 시각정보(visual information)는 시각적으로 보는 모든 것이 시각정보가 되지만, 시각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 요소인 형태(shape), 색채(color), 질감(texture), 그리고 패턴(pattern)을 다룬다. 형태는 기하학을 바탕으로 대표적 형태들이 선택되고, 색채는 HP(Hewlett Packard)에서 연구된 색상을, 질감은 자연적 질감과 인공적 질감을, 그리고 패턴은 대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물방울(dot)패턴과 비례와 선의 특성을 가장 잘 살리는 패턴이 선택되었다. 이들 자료는 모두 전문적인 디자인 연구원들에 의해 실험에 적합한 시각정보가 어느 것인지 비・유사도 평가를 실시하여 선별되었다(고광필 외, 2006). 마지막으로 시각 정보를 감성 정보화하는 방법과 제 4장에서 활용할 통계 분석법에 대한 정의도 이 장에서 살펴본다.

제 4장에서는 3장에서 다룬 온톨로지와 시각정보, 그리고 감성어의 기본적 정의를 바탕으로 실시된 감성어 실험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 다룬 시각정보는 특히 *형태*(shape)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나머지 시각정보를 통한 감성어 추출과 공간 형성 자료는, 전산학 분야에서 아키텍처를 활용하여 감성 기반 이미지 검색 방법을 연구한 백선경(2008)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이 실험은 총 4단계로 구성된다. 제 1단계는 시각정보 형태에 대한 기본적인 이미지를 기하학적으로 선별해낸다. 제 2단계는 만들어진 이미지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제 3단계는 수집된 어휘 자료 여과과정이다. 그리고 제 4단계는 제 3단계에서 얻은 감성 어휘의 적합도를 평가하

기위한 제 2차 설문실험이다. 그 결과 실험을 통해 얻은 어휘들이 감성을 적절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 수집된 감성 어휘들은 제 2장에서 다룬 의미 범주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하나의 동일 범주에 속하지 않고 여러 범주에 걸쳐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형용사가 대상과 관련되어 활용될 때는 언어학적 고찰과는 다른 의미적 속성을 보여준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제 5장에서는 온톨로지 구축 관점에서 형용사의 위계와 분류를 제시해 본다. 이는 제 4장에서 얻은 형용사의 의미적 속성과 기존의 언어학적 특징을 연계하여 구성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 6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온톨로지 기반 형용사의 재분류가 지니는 의의와 향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2*장 형용사의 특징

영어와 한국어의 형용사(adjective)는 일반적 속성으로 명사(noun)를 한정하거나 서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표면적 차이점은, 영어에서는 *kind, nice, high, ..*에서처럼 형용사가 어휘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져 있고, 이들 형용사는 계사인 be 동사와 연결하여 동사를 만든다. 반면 한국어 형용사는 영어에서처럼 형용사가 동사와 명확하게 형태상으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다. 예를 들어 *착하다* 에서처럼 동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 와 결합한다. 또 기능적인 면에서 볼 때, 영어에서와는 달리 명사를 한정하는 품사로 *관형사*라는 별개의 범주가 존재하며, 형용사는 주로 동사와 같이 서술어로 활용된다. 그렇다고 이것이 형용사와 동사를 구분 짓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한국어에서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형식상의 차이를 고려한다면 형용사와 동사는 구분된다. 예 (1)-(2)을 보면, (1)에서는 종결어미가 *-는/ㄴ다*로 되어 있지만, (2)에서는 *-다*로 되어 있다.

(1) a. 아기가 웃는다.
  b. 나팔꽃이 핀다.
(2) a. 철수는 착하다.
  b. 하늘이 흐리다.

이 절에서는 영어와 한국어 형용사의 언어학적 고찰로 통사와 의미에 해당하는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1 영어 형용사

2.1.1 통사적 특징

2.1.1.1 보편성

Dixon(1977)에서는 형용사가 어휘 범주 중에 가장 다양한 특성을 지닐 뿐 아니라 가장 보편성이 적은 품사라고 말한다. 따라서 형용사의 기능이나 자질, 그리고 속성 등에 대한 논의는 주로 한정된 언어에 중점을 두고 논의되기도 한다.

하지만 제 1장에서 언급했듯이 Nicklas(1972)나 Broadwell(1990)에서는 형용사와 동사의 구분이 없이 사용되는 Mohawk어와 Choctaw어의 예를 들어 형용사의 보편성을 말하고 있다. 즉 형용사와 동사의 범주가 각각 구별되지 않아 형용사 범주가 존재하지 않는 언어일지라도 그 언어 나름대로의 명사를 수식하는 동사적 하위 범주가 있다고 설명한다.

Baker(2003)에서는 형용사의 보편성(Universal Grammar)을 인정하기 위해 형용사의 독립성에 위배되는 논의들을 다루기도 한다. 그 중의 하나는 두 개의 형용사 범주가 있다고 알려진 Miyagawa(1987)의 논의이며, 두 번째는 명사가 형용사를 대신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동사가 형용사를 대신하는 경우를 그 예로 들고 있다.

먼저 두 개의 형용사 범주를 논한 Miyagawa(1987)에 대해서는 Ohkado(1991)의 논의를 통해 두 개의 범주가 아닌 하나의 범주라고 주장한다. Miyagawa(1987)의 논의를 보면, 일본어에는 두 개의 형용사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한정어로 또 하나는 술어로 사용된다고 한다.

(3) a. utskushi-*i* onna versus kirei-*na* Hanako
beautiful-PRES woman beautiful- ?? Hanako
'a beautiful woman' (A) 'beautiful Hanako' (AN)
b. hashi-ru onna versus sensei-no(*na) Hanako
run-PRES woman teacher-GEN Hanako
'a woman who will run' (V) 'Hanako, who is a teacher' (N)

(4) a. Hanako-wa utsukushi-*i* versus Hanako-wa kirei-*da*

Hanako-TOP beautiful-PRES Hanako-TOP beautiful-COP
'Hanako is beautiful.' (A) 'Hanako is beautiful.' (AN)

b. Hanako-wa hashi-ru versus Hanako-ga sensei-da
Hanako-TOP run-PRES Hanako-NOM teacher-COP
'Hanako is running.' (V) 'Hanako is a teacher.' (N)

(3a)는 두 종류의 형용사 모두 명사를 한정하는 위치에 나타나지만 각각 다른 접미사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i* 이고 다른 하나는 *-na* 이다. *utskushi*의 *-i*는 (3b)의 동사에 사용된 현재시제 *-ru* 와 유사하지만 다른 경우이고, *kirei*의 *-na*는 명사에 사용된 소유격 *-no* 와 유사하지만 다른 경우이다. 형용사가 서술어로 사용된 경우는 (4)에서 볼 수 있다. (4a)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utsukushi*와 *kirei*는 둘 다 서술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utsukushi*는 현재시제이며 실제 동사에 활용되는 현재시제 *-ru* 와 다른 *-i*를 접미사로 가지고 있고, *kirei*는 오히려 명사를 서술어로 사용하는 경우에 활용하는 접미사 *-da*와 같은 접미사 형태를 지니고 있다. 이런 이유로 Miyahawa는 *kirei*와 같은 형용사는 *명사적 형용사*(nominal adjective)라고 부른다. 그러나 Baker는 Ohkado(1991)에서 명사적 형용사가 접미사 형태만 다를 뿐이지 활용되는 예는 일반 형용사와 동일하다는 논의를 통해, 일본어 형용사는 두 가지가 아닌 한 종류임을 주장한다.

(5) a. Tarro-ga kami-o kire-ni kit-ta.
Taro-NOM hair-ACC short-AFF cut-PAST
'Taro cut the hair short.'

b. Hanako-ga totemo kirei-da.
Hanako-NOM very pretty-COP
'Hanako is very pretty.'

Ohkado(1991)에서는 명사적 형용사가 (5a)에서처럼 결과 구문의 두 번째 서술어로 사용될 수 있고 (5b)에서처럼 정도 부사와 함께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

한 특성은 2.1.1.4에서 언급하는 형용사의 구조적 특징이기도 하다. 따라서 일본어에서 나타난 명사적 형용사에 대한 설명은 형용사가 비보편적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두 번째로, 명사가 형용사를 대신하는 경우는 Chichewa와 같은 아프리카 언어의 예를 이용해 여전히 형용사적 범주가 있음을 주장한다.

(6) m-kango *(w-a) nzeru
3-lion 3-ASSOC IO.intelligence
′ a lion of intelligence, a smart lion′

이 언어에서는 추상 명사가 형용사를 대신한다. 예를 들어 (6)은 *a smart lion*을 표현하고자 할 때, 추상 명사인 *nzeru*(intelligence)를 이용한다. 이 언어에서는 영어의 수식을 나타내는 형용사와 같은 어휘 범주가 없을 뿐 아니라, 정도를 나타내는 어휘나 결과구문의 서술적 구조도 없다. 또 명사를 상태나 동적, 또는 사역성의 동사로 바꾸는 변형적 형태도 없다. 따라서 영어의 형용사와 같은 범주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Baker는 Bresnan and Mchombo(1995)의 논의에서 수식하는 명사의 성과 일치하여 변화하는 접두사가 있는 어휘들이 있음을 언급한다. 즉 명사의 성과 일치하여 변화하는 접두사를 지닌 어휘들은 명사가 아닌 형용사 범주라는 설명이다.

(7) a. m-kango w-a u-kulu;
3-lion 3-ASSOC 3-big
‘the big lion′
b. mbidzi z-a zi-kulu
IO.zebra IO-ASSOC IO-big
‘the big zebra′

예를 들어 (7)을 보면, (7a)에서 *u-kulu*(big)는 의미 변화 없이 (7b)에서

zi-kulu(big)으로 접미사가 변화하고 있다. 이는 (7a)에서는 *u-kulu*(big)가 *m-kango*(lion)을 수식하지만 (7b)에서는 *zi-kulu*(big)가 *mbidze*(zebra)를 수식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그렇게 접미사 변화를 하는 어휘가 있다. *kali*(sharp, fierce), *tali*(long), *fupi*(short), *ng'ono*(small), *wisi*(raw, unripe, immature) 등이 그러하다.

마지막으로 동사가 형용사를 대신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Mohawk 언어에서 볼 수 있다고 말한다. Mohawk 언어에서는 영어 형용사에 해당하는 어휘들이 (8a)에서처럼 계사 없이 동사처럼 굴절을 하고, (8b-c)에서처럼 일치 형태소도 가지고 있으며, 사역성 동사에 붙는 형태소가 형용사를 대신하는 동사에 붙어 의미역을 할당할 수도 있다. 또 형용사가 필요한 구조, 즉 결과구문이나 정도 부사 결합, 명사를 한정하는 구조도 갖고 있지 않다.

(8) a. Ra-kowan-ʌ́-hne' ne Sak.
MsS-big-STAT-PAST NE Sak
'Sak used to be big.'

b. Ka-wis-a-hʊ́tsi thíkʌ.
NsS-glass-∅-black that
'that glass is black.'

c. T-a'-ka-wís-ʌ-ne' thíʌ.
CIS-FACT-NsS-glass-fall-PUNC that
'That glass fell.'

즉 Mohawk어는 형용사가 영어의 *fall*이나 *arrive*와 같은 비대격동사와 같아서 다른 비대격어나 *형용사적 동사*(adjectival verbs)에 통합된다. (8b)의 경우에는 주어에 위치한 명사가 형용사적 동사에 통합되어 있고, (8c)는 다른 비대격에 통합되어 나타난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사건 동사에 붙어 사역을 나타내는 형태소도 바로 형용사적 동사(adjectival verbs)에 붙어 의미역 할당을 하는데, (9)의 예가 그러하다.

(9) a. Wa-shakó-ye-ht-e'.

FACT-MsS/FsO-wake.up-CAUS-PUNC

'He woke her up.'

b. Wa'-e-rák-∧-st-e'

FACT-FsS-white-STAT-CAUS-PUNC

'She made it white.'

따라서 형용사 대신 동사를 사용하는 언어는 형용사를 필요로 하는 구조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즉 영어 형용사가 나타나는 수식어구, 정도부사에 의해 수식 받는 위치, 그리고 결과구문의 결과구에 형용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10) a. Tyer [ka-rák-ʌ atyá'tawi] wa-ha-hnínu-'

Tyer NsS-white-STAT shirt FACT-MsS-buy-PUNC

'Tyer bought a white shirt.'

b. Sak wa-hó-[a]ti-' ne [wak-hnínu-ϕ áthere'].

Sak FACT-MsS-lose-PUNC NE ɪsO-buy-STAT basket

'Sak lost the basket I bought.'

c. Éso/sótsi kowán-ʌ

much/too NsS.big-STAT

'It is very big/too big.'

d. Sak sótsi éso ra-hnekír-ha'

Sak too much MsS-drink-HAB

'Sak drinks too much.

e. Wári oshéha wa'-t'ye-takwʌtʌ-st-e'

Mary dough FACT-DUP-FsS-be.flat-CAUS-PUNC

'Mary flattened the dough.'

수식어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예로 (10a-b)의 비교를 들 수 있다. (10a)는 *white*를

이용해서 수식어구를 만들고 있지만, (10b)의 *buy*구문과 비교해 보았을 때 동일한 어순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상(aspect)과 일치(agreement)를 보여준다. 정도부사구와 관련해서는 (10c-d)를 볼 수 있다. 정도(degree)를 나타내는 말은 강도(intensity)나 빈도(frequency)를 나타내는 부사에 의해서만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10e)는 결과구문의 결과구 위치에 형용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예이다. (10e)는 *Mary pounded the dough flat.*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러한 의미를 전달하기위해서는 단지 (10e)와 같은 구조만 사용한다는 점이다. 즉 (10e)에서는 결과적 의미를 결과구가 아닌 동사로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Baker는 많은 경우에 형용사와 동사의 구분이 없는 언어들은 명사를 수식하기위해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동사의 하위 범주가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11) a. Issobah-pat chito-h. (no copula, tense)
horse-DEM/NOM big-PRES
'This horse is big.'

b. Sa-litiih-tok. (agreement, tense)
ɪsII-dirty-PAST
'I was dirty.'

(12) a. [Alla-ma ofi-it im-illi-kaash-ma] ii-hoppi-tok
child-DEM dog-NOM 3III-die-past-DEM/ACC ɪpII-bury-PAST
'We buried that child's dead dog.'
(Gordon 1987)

b. Hattak-(*at) chaaha-mat chahta kiiyoh.
man-(NOM) tall-DEM/NOM Choctaw not
'that tall man is not Choctaw.'
(Broadwell 1990)

예로 (11)과 (12)를 보자. (11)은 Mohawk어와 비슷한 Choctaw어의 예인데, 이 언어에서는 형용사가 동사처럼 계사 없이 술어로 자유롭게 사용되고 일치자질과 시

제도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적 동사*(adjective verb)는 목적어 논항을 선택하기도 하고 사격 형태소(causative morpheme)를 필요로 하지도 않는 특징을 지닌다. 하지만 만약 Choctaw어에서 형용사가 없다면 형용사적 동사에만 필요한 한정 구문이 필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11)은 관계절 구문이 형성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12a)의 *illi*(die)는 사건(eventive) 자동사이다. 그리고 *off*(dog)는 주격을 받고 있다. 그리고 목적격(accusitive)을 보여주는 *ma*는 관계절 모두에 붙기 때문에 곽 괄호 끝에 나오는 동사에 붙는다. 반면에 (12b)에서는 *Hattak*(man)은 주격을 받지 않는다. 형용사적 동사가 다른 일반 동사처럼 동일한 양상을 갖는다면, 이와 같은 활용을 설명할 수 없다. 비록 영어 형용사와 동일한 형용사 구조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은 일반 동사와는 다른 구조를 지니고 있다. 결국 이런 논의는 형용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언어들에서도 형용사라는 범주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Nicklas(1972)나 Broadwell(1990), 그리고 Baker(2003)의 논의들은, 비록 형용사라는 범주가 영어에서와 비슷하게 혹은 분명하고 명확한 범주나 구조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언어 나름대로의 형용사적 기능을 하는 범주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1.1.2 한정적 기능과 자질 속성

영어 형용사에 대한 일반적인 통사적 특징으로는 대개 기능(function)과 자질을 포함한 어휘적 속성(features), 그리고 구조적 위치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형용사의 기능으로는 주로 한정적(modifying) 기능과 서술적(predicating) 기능을 의미하는데, 형용사의 서술적 기능은 형용사의 어휘적 속성이나 하위 범주화를 설명해 주기도 한다. 이에 대한 것은 다음 절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영어 형용사의 수식어(premodifiers) 역할에 대해서, Radford(1988)에서는 수식어 역할이 형용사만의 기능이 아님을 보여준다. (13)을 보면, (13a)와 (13c)는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이며, (13b)는 명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예이다. 즉 (13a)와

(13c)는 형용사+명사 구조인 반면에 (13b)는 명사+명사 구조를 보여준다. 이것은 형용사 뿐 아니라 명사도 수식어 기능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13d)의 구조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13d)를 보자. 명사구 *numerous academic and cost implications*에서 형용사 *academic*과 명사 *cost*는 구조적으로 수식하는 동일한 위치에 놓여있다. 이 구조를 기호를 이용해 간단히 표기하면 (14)-(15)와 같다. (15)는 수식어 기능을 하는 명사의 경우이고, (16)은 수식어 기능을 하는 형용사의 예이다.

(13) a. a [really *excellent*] film
b. a [metal] finish
c. a [*metallic*] finish
d. Any change is bound to have numerous [AP *academic*] and [NP cost] implications.
e. a *tall dark handsome* stranger

(14) N′ → NP N′[Attribute Rule: optional]

(15) N′ → AP N′[Attribute Rule: optional]

명사와 형용사가 동일하게 수식어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16)에서처럼 동일한 자질을 이용해서 표현될 수도 있다.

(16) N′ → [+NP] N′[Attribute Rule: optional]

이러한 자질 표현은 Chomsky(1970)에서 네 개의 품사, 명사(Noun), 형용사(Adjective), 동사(Verb), 전치사(Preposition)를 두 개의 자질 [±N]과 [±V]을 이용하여 그 속성을 기술한데서 기인한다. 그 자질 내용은 (17)과 같다.

(17) Verb = [+V, -N]　　Adjective = [+V, +N]
Noun = [-V, +N]　　Preposition = [-V, -N]

(17)처럼 [N] 자질과 [V] 자질을 이용하여 네 종류의 품사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들 네 품사가 각각 공통된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형용사와 명사, 그리고 동사와 전치사는 목적어(object)를 취할 수 있느냐 혹은 없느냐에 따라 각각 두 부류로 나누어질 수 있다. 반면에 동사와 형용사는 의미적인 면에서 서술어라는 점이 공통된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통사적으로 구조적 위치를 통해서도 같은 부류로 취급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보자.

(18) a. John *loves* [Mary] (V+NP)
b. John bought a present *for* [Mary] (P+NP)
c.*John's *admiration* [Mary] (N+NP)
d.*John is *fond* [Mary] (A+NP)

(19) a. bravo ragazzo 'good boy' [Masculine Singular A+N]
b. brava ragazza 'good girl' [Feminine Singular A+N]
c. bravi ragazzi 'good boys' [Masculine Plural A+N]
d. brave ragazze 'good girls' [Feminine Plural A+N]
(Radford, 1998, p. 146-147)

(18)을 보면, 동사와 전치사 그리고 명사와 형용사에 대한 대립되는 성격을 [±N] 자질을 활용해 보여준다. 즉 명사는 목적어를 직접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적어를 요구하는 구성 요소는 [-N] 자질을 갖게 되고, 반면에 명사처럼 직접적으로 목적어를 취하지 못하는 구성 요소는 [+N] 자질을 갖는다. 따라서 (18a-b)에서 동사 *loves*와 전치사 *for*는 명사 *Mary*를 목적어로 취할 수 있기 때문에 [-N] 자질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8c-d)의 명사 *admiration*과 형용사 *fond*는 목적어 *Mary*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N] 자질을 갖는다고 설명된다. 이것을 다시 정리해 보면, [+N] 자질은 목적어를 취하지 못하는 명사와 형용사의 것이고, [-N] 자질은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동사와 전치사의 것이다. 또 이탈리아어에서는 명사와 형용사가 성(gender)과 수(number)에 일치 변화한다는 공통점을 보여주기도 한다. (19)의 예가 그러하다. (19a-b)는 형용사와 명사가 성(gender)에 일치 변화하는 것을

보여주고, (19c-d)는 수(number)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보여준다.

(20)에서는 동사와 형용사가 동일한 자질로 분류될 수 있음을 명사구와 전치사구의 대등한 구조를 통해 보여준다. 즉 (20)은 강조 구문(focus position)이나 분열 구문(cleft sentences)에서 명사구나 전치사구는 위치할 수 있으나 동사구나 형용사구는 마찬가지로 위치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20) a. It was a car that she bought (NP)
b. It was in the shop that I met her (PP)
c.*It is very pretty that she is (AP)
d.*It is very quickly that she writes (ADVP)
e.*It is go home that I will (VP)
(Radford, 1998, p. 148)

따라서 (20a-b)는 명사구와 전치사구가 강조 받는 구문이어서 정문이지만, (20c-e)의 형용사구나 부사구, 혹은 동사구가 강조 구문에 중심이 되면 비문으로 나타난다. 이 때 (19)의 예를 통해 보았듯이, 명사와 형용사는 동일한 [+N]을 공유하기 때문에 [±N] 자질은 동사와 형용사 그리고 명사와 전치사를 구별짓는 요소로는 부적절하다. 따라서 동사와 형용사의 서술성을 공유하는 새로운 자질인 [V] 자질을 통해 구분된다. 즉, 서술적 성격을 띤 동사와 형용사는 [+V]를 지니기 때문에 강조구문이나 분열 구문에서 나타날 수 없고, 명사와 전치사는 서술어가 아니라는 점에서 [-V] 자질을 공유하게 된다. 결국 4 가지 품사는 (17)에서와 같이 각각 [±V] 와 [±N] 자질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자질은 명사와 형용사의 수식어 속성을 쉽게 자질 규칙으로 표현하게 해준다. 앞서 보았던 (16=21)이 그것이다.

(21=16) N′ → [+NP] N′[Attribute Rule: option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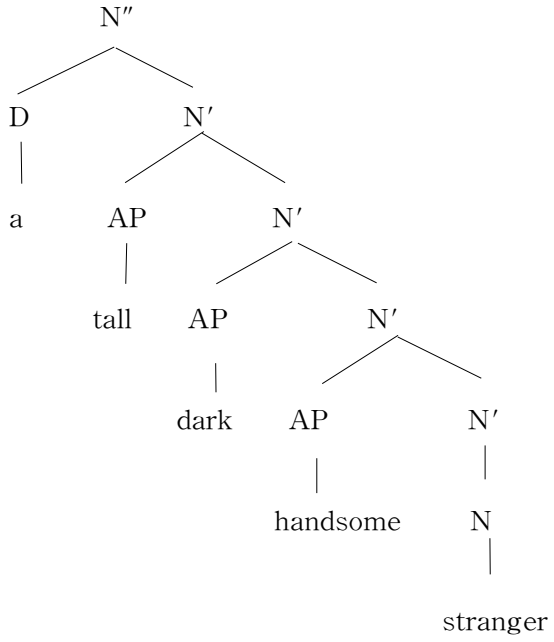
(21)은 수식의 속성이 명사와 형용사의 것이기 때문에, 명사와 형용사 그리고 전치

사와 동사를 구분하는 자질 [+N] 을 이용해서 표현한 것이다.

2.1.1.3 어휘적 속성-하위범주화

형용사가 중심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에 N′의 위치에 온다. 만약 동시에 여러 개의 형용사가 오는 경우엔 모두 N′에 위치하여 명사를 수식한다. (22)는 (23)을 수형도로 나타낸 것이다.

(22)



(23) a. a *tall dark handsome* stranger

하지만 형용사도 하나의 구를 만든다. (24)를 보자.

(24) a. He wasn′t [A″ very [A] kind to Mary]]
b. He wasn′t [N″ much [N′ kindness to Mary]]

c. *fond* [of Mary] [in some ways]

d. ??*fond* [in some ways] [of Mary]

e. John is [A″ *very* [A′ [A′ *fond of Mary*] in some ways]], but is [A″ less [A′[A′ *so*] in other ways]].

(24)에서는 형용사가 수식을 받는 경우와 보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보여준다. (24a)에서 *very*는 형용사의 지정어(specifier)이다. 이것은 (24b)에서 명사 지정어 *much*가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와 같다. 즉 형용사도 명사처럼 자신을 한정해주는 한정사(determiner)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때는 (23)에서 보여준 수식어 기능을 하는 경우와는 다르게 A″를 구성하면서 독립적인 XP를 구성한다. 즉, 형용사는 수식어로 사용되기도 하고 동사의 보어로도 사용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AP를 구성하기도 한다.

형용사가 A‘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24c-d)에서처럼, 자신의 보어(complement)를 요구하며 하위범주화 하기도 한다. (24a)나 (24b)에서는 형용사가 부사의 수식을 받아 A’를 이룬 경우이지만, (24c)를 보면 전치사구 *of Mary*가 형용사 *fond*의 보어로 사용된다. 이는 (24d)에서 형용사 *fond*와 그 보어로 사용된 *of Mary* 사이에 부사구 *in some ways*가 끼어들면 어색한 문장이 됨을 통해서도 형용사가 보어를 요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24e)에서는 *fond of Mary*가 A′를 만들어 낸다. (25)에서도 형용사의 하위범주화 예를 보여준다.

(25) a. *anxious [NP success]

b. *anxious [S john to be successful]

c. *anxious [SC John successful]

d. keen [that Mary should do it]

e. keen [for Mary to do it]

(25a-c)에서는 모두가 문법적으로 적절하지 않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anxious*가 서술적으로 쓰일 때는 that절이나 *about/for* 등의 전치사로 구성된 구를 하위범주로

취하기 때문이다. 또 (25d-e)의 *keen*도 이와 마찬가지로 하위범주를 가진다. 이와 같이 상태 의미를 나타내는 형용사는 통사적으로 수식하는 기능 외에 하위범주화하여 구를 구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1.1.4 구조적 속성

형용사는 형용사 자체의 의미보다는 동사나 명사, 그리고 전치사와 같은 품사와 구별하여 혹은 비교하여 설명되어져왔다. 하지만 Baker(2003)에서는 형용사의 자질을 [-N, -V]와 같이 상정하여 형용사 자체만의 의미를 강조한다. 이는 기존의 Chomsky(1970)의 이론을 따라 형용사를 [+N, +V]라고 설명한 것과는 대조를 이루는 설명이다. Baker(2003)의 이와 같은 설명은 형용사가 명사의 지표성(referential index)에서 대조를 이루고, 동사의 지정어(specifier) 혹은 주어를 취한다는 점에서 대조를 이룬다는 관점에서 비롯된다. 이는 명사나 동사가 문장 구조에서 활용되는 역할과 대조를 이룬다는 점을 강조하는 관점이다. 즉 형용사는 명사나 동사와는 다르게 형용사만의 구조적 위치가 있다는 점이다.

앞 절에서 형용사는 한정적 기능과 서술적 기능을 한다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이들 위치는 형용사 뿐 아니라 명사도 위치할 수 있는 장소이다. 이에 대한 예로 2.1.1.3에서 보았던 (13)을 들 수 있다.

(26=13) a. a [metal] finish
b. a [*metallic*] finish

(26b)의 *metallic*은 형용사로 *finish*를 수식하지만 (26a)의 *metal*은 명사로 *finish*를 수식하고 있다. 또 (27)에서 (27a)의 형용사 *pretty*와 (27b)의 명사구 *a nurse* 둘 다 보어로 사용된 예이다.

(27) a. She is pretty.

b. She is a nurse.

하지만 (26)과 (27)은 대조를 이룬다. 즉 (26)의 한정적 기능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형용사는 한정적으로 사용되지만, 명사의 경우에는 오히려 한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일부만 한정적으로 사용된다. 반면에 (27)의 경우에는 형용사나 명사의 경우 의미적 제한을 고려한다면 크게 제약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문장에서 차지하는 형용사만의 고유한 역할을 고려하건대, Baker(2003)에서 언급하는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명사를 직접적으로 한정하는 수식어 위치, 두 번째는 *so, as, too, how* 와 같은 정도를 나타내는 어휘들이 취하는 보어 위치, 그리고 세 번째는 결과구문에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술어 위치이다. (28)은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를 보여준다. (29)는 *so, as, too, how* 등에 의해 형용사가 수식 받는 예인데, (29b)와 (29c)는 *too* 에 이어 명사나 동사가 나와 비문이다. (30)은 결과구문에서 결과구에 위치하는 어휘가 형용사가 아닌 명사나 동사가 와서 비문임을 보여준다.

(28) a. a *smart* woman / * a genius woman / * a shine coin

(29) a. Mary is *too* smart for her own good.

b. * Mary is *too* a genius/a *too* genius for her own good.

c. * If you polish it, the coin will *too* shine in the dark to miss.

(30) a. They beat the metal *flat*.

b. * They beat the metal *a sword*.

c. * They polished the coin *shine*.

(28)의 형용사의 한정적 속성은 동사처럼 명사구에 의미역을 할당하거나 명사처럼 지정어를 결합하지 않고 명사와 결합할 수 있다는데 기초를 두고 있다고 Baker는 설명한다. 즉 형용사는 피수식어의 속성을 변형시키지 않고 결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피수식어의 속성을 변형시키지 않는 또 다른 수식어인 부사(Adverb)와의 차이점을 생각해 볼만 하다. 부사 역시 (31)에서 보는 것처럼, VP,

TP, AP를 수식하면서 피수식어의 속성을 변형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31) a. Chris will *quickly/carefully/casually* solve the problem. (VP)
b. *Probably/luckily/hopefully*, Chris will win the race. (TP)
c. Chris is *extremely/mildly/thoroughly* sick. (AP)

Baker(2003)에서는 *-ly*의 어미는 영어의 명사에 연결되어 *worldly, manly, daily* 등과 같은 형용사를 만들기 때문에, 형용사는 *-ly*의 어미를 지니는 부사와 궁극적으로 동일한 범주라고 설명한다. 즉 VP, TP, AP에 나타날 수 있는 부사를 통해 결국 형용사는 다른 범주들과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Emonds(1976)에서도 부사와 형용사간에는 통사적 유사성이 있음을 설명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32)에서 부사는 *so, as, too* 와 같은 정도 부사와 결합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형용사의 구조적 위치 특성 중에 두 번째와 동일한 특성이다. 또 Emonds는 (33)에서, (33a)의 형용사처럼 (33b)의 부사도 수식어와 함께 쓰인 핵(modified head) 앞에서는 나타날 수 없다는 점을 통해서도 형용사와 부사의 유사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4)에서 보듯이, (34a)의 부사를 활용하여 만든 동사구나 형용사구문과 (34b)의 형용사를 활용하여 만든 명사구가 의미적 일치를 보여준다는 점을 든다.

(32) a. Chris entered the house *as quietly* as a mouse.
b. ... *so quietly* that no one noticed.
c. ... *too quietly* to be heard.
d. *How quietly* did Chris enter the house?
(33) a. John is *proud* (*of his daughter) man.
b. John *proudly* (*of his daughter) showed everyone his photo album.
(34) a. Italy *brutally* invaded Albania.
Chris is *extremely* shy.
b. Italy's *brutal* invasion of Albania
Chris's *extreme* shyness.

하지만 이러한 설명이 비록 형용사와 부사의 유사성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구조적인 차이점을 여전히 지니고 있다. (29a)와 (32c)를 비교한 (35)에서 형용사 smart와 부사 quietly는 동일하게 too라는 정도부사와 결합하고 있지만, 전체적 구조에서 볼 때 smart는 be동사의 보어 혹은 Mary에 대한 서술어로 위치하고 quietly는 단지 수식어로 등장할 뿐이다.

(35) a. Mary is *too* smart for her own good.
b. Chris entered the house *too quietly* to be heard.

또 (33)에서도 형용사나 부사 둘 다 수식어 역할을 할 때는 보어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유사하다하더라도, 앞 절의 (24c=36)에서 본 서술적으로 사용되는 형용사는 여전히 보어를 취하고 있다.

(36) fond [of Mary] [in some ways]

그리고 (34)에 있어서도 비록 의미는 같을지라도 구조적으로 달리한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형용사의 특징을 고려하건대, 명사를 직접적으로 한정하는 수식어 위치, *so, as, too, how* 와 같은 정도 부사와의 결합 위치, 그리고 결과구문의 두 번째로 등장하는 술어 위치를 들 수 있겠다.

2.1.2 의미적 특징

이 절에서 말하는 의미적 특징은 통사적 구조에서 나타나는 의미역(theta-role)이나 의미에 따른 문장 구조를 다루지는 않는다. 영어에서는 한국어 형용사와는 달리 어휘의 의미를 중심으로 문장에서 나타나는 통사적 구조를 논의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 절에서 다루고자 하는 바는, 여러 개의 형용사가 피수식어인 중심 명사를

수식할 때 나타나는 어순을 중심으로, 형용사 어휘가 공통으로 지니는 의미(meaning)를 따라 이루어진 형용사의 의미적 하위범주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영어 형용사의 의미(meaning) 범주에 대한 논의가 피수식어인 중심 명사구를 수식하는 형용사 어휘들의 어순에 대한 설명으로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2.1.2.1 의미적 하위범주

형용사의 의미적 하위범주를 구성하기위해서는 먼저 어떠한 어휘들을 그 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Dixon(1977)에서는 의미적인 세 종류의 형용사 범주를 내세운다. 하나는 양화사와 한정사와 같은 수식어(pre-adjectival modifiers)이며, 두 번째는 *red*나 *big*과 같은 일반 형용사, 그리고 세 번째는 기원(origin)이나 성질(composition), 또는 의도(purpose)나 혜택자(beneficiary)와 같은 수식어 등이다. 또 Quirk et al.(1985)에서는 (37)과 같이 네 가지의 통사적 기준을 내세워 이들 모두를 만족시키는 형용사만을 그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

(37) a. attributive use
b. predicative use after the copula seem
c. premodification by very
d. gradability(in decreasing order of their significance for the definition oof the class of adjectives)

(37a)는 한정적 기능을 하는 형용사, (37b)는 be동사나 seem과 같은 계사어 다음에 활용되는 술어적 형용사, 그리고 (37c)에서는 very와 같은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형용사를 지칭한다. (37d)에서는 형용사 범주 정의에 있어서 중요성이 낮아지는 점층성을 지닌 형용사를 나타낸다.

이들을 바탕으로 논의된 영어 형용사의 의미적 하위 범주는 주로 형용사의 어순과 관련하여 일어난다. 이 어순에 대한 논의는 여러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를 두

고 있는데 (38)에서 이를 볼 수 있다.

(38)

Christophersen (1971)	중심 명사(nominal) - 재료(material) - 국적, 영역, 기원(national, regional, or original) - 색채(color) - 크기와 모양(size and shape)-기질(temperature) - 그 외(other)
Quirk(1973)	중심명사(head) - 출처(provenance) - 재료(material) - 색채(color) -시대(age) - 객관적(objective) - 주관적(subjective) - 제한(limiter) - 강도(intensifying)
Crystal(1978)	중심 명사(nominal) - 재료(material) - 국적(nationality) - 색채(color) - 시대(age) - 크기(size) - 일반 형용사(general adjectives)
Vendler(1968)	중심 명사(head) - 재료(material) - 기원(original) - 유사 대상(similar object) - 색채(color) - 모양(shape) - 현재 활동(present activity) - 과거 결과(past result) - 성향(inclination) - 잠재력(potentiality) - 시대(age) - 크기(size) - 행위적 특징(behavioral characteristic) - 가능성(possibility) - 기수(cardinal number) - 서수(ordinal number) - 소유격(possessive) - 관사(article)

(38)을 보면, Christophersen(1971)은 8가지로 분류를 하였고, Quirk(1973)에서는 주관적 형용사가 객관적 형용사에 선행하는 방식[2)]으로 9가지로 분류하였다. Crystal(1978)은 경험적 실험을 바탕으로 6가지, Vendler(1968)는 본질/고유성(intrinsicality)에 의해 무려 17가지로 나누고 있다.

Christophersen의 논의에서는 (39)와 같이 여러 개의 형용사가 피수식어인 명사를 수식할 때 갖는 순서를 정의한다.

(39) the small stripe square wooden red Spanish kitchen table

2) 크기 형용사가 모양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앞서고 높이를 나타내는 형용사는 둘레 형용사보다 앞선다고 설명했다.

Quirk(1973)에서는 Christophersen(1971)의 논의와는 다르게 형용사의 주관성과 객관성을 위주로 형용사의 어순을 정렬한다. 주관적 형용사가 객관적 형용사에 선행한다는 말은 피수식어 명사의 성격을 주관적으로 설명하는 형용사가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형용사보다 더 앞선다는 의미이다. 즉 중심 명사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밀접하게 드러내는 어휘가 명사에 더 가까이 위치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객관성을 보이는 크기 형용사나 높이 형용사가 모양 형용사나 둘레 형용사보다 선행한다는 설명이다. (40)를 보자.

(40) a. his *heavy* new moral responsibilities
b. a *grey* crumbling Gothic church tower.

(40a)를 보면 중심 명사 *responsibilities*를 수식하는 형용사 *heavy, new, moral* 중에서 가장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형용사는 *heavy*라 할 수 있다. 느끼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40b)에서도 *grey*는 색깔을 나타내지만 (40b)에서는 *어슴푸레한* 내지는 *음산한*으로 해석되고 이 형용사 역시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다.

Crystal(1978)은 경험적 테스트를 바탕으로 어순을 제시한 것인데, (41)에서 그가 제시한 어순의 예를 볼 수 있다.

(41) a. a high red building
b. an old red hat
c. a tall new chimney

(41)에서 경험적으로 크기(size)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색채를 나타내는 형용사보다 선행하고 시대(age)를 나타내는 형용사 역시 색채 형용사보다 앞선다는 내용이다.

Vendler(1968)에서는 형용사 어순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본질성(intrinsicality)을 들고 있다. 이는 피수어인 중심 명사 입장에서 고려한 것이다. 보다 객관적인 형용

사가 중심어의 본질성을 더 잘 드러내기 때문에 중심 명사에 더 가까이 위치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42)에서 *church*를 수식하는 형용사 *large*와 *grey* 중에서 *large* 보다는 *grey*가 중심 명사인 *church*의 본질을 드러낸다고 설명한다. 크다는 내용은 보는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지만 색채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42b)에서도 중심 명사 *building*을 수식하는 *high*와 *tall* 중에서 건물의 성질은 *high* 보다는 *tall*이 더 잘 보여주므로 *tall*이 중심명사에 가까이 위치한다.

(42) a. large grey church
b. high tall building

Quirk(1973)의 주관적/객관적 형용사 이론이나 Vendler(1968)의 본질/고유성 이론과 유사한 이론으로 Danks et al.(1971)이나 Martin(1969)을 들 수 있다. Danks et al.(1971)에서는 Quirk의 주관서 이론과 유사하지만 발화자 입장에서 순서를 파악하는 관점이다. 주관적 형용사가 먼저 발화되고 다음으로 객관적 형용사가 피수식어인 중심 명사에 가까이 위치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형용사의 역할이 의사 소통기능면에서 청자가 지시물을 보다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판별력이 강한 주관형용사가 본질적인 객관 형용사보다 먼저 나온다는 설명이다.

(43) a. large wooden box
b. fast red car

(43a)를 보면, *large*가 *wooden* 보다 앞선 이유가 *large*가 *wooden*보다 더 주관적이어서 *box*의 성질을 빨리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Martin(1969)에서는 Vendler(1968)의 본질성과 유사한 *접근성*(accessibility)을 제시한다. 이는 중심 명사에 가장 접근적(accessible)인 것이 먼저 결정되어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예를 들어 (43b)에서, *fast* 보다는 *red*가 car에 더 접근적이어서 *red*가 먼저 결정되어 중심 명사에 가까이 위치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수식어인 형용사와 피수식어 명사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세워진 이론들이라 볼 수 있다. 즉 권경원(1985)의 논의에서처럼 형용사의 어순은 가장 일반적인 형용사(general adjective)가 먼저 오고 특수한 형용사(specific adjective) 일수록 뒤에 위치한다. 여기에서 일반적인 형용사는 물건의 속성(attributes)가운데 분명하고 중요한 것을 의미하고, 특수 형용사는 불분명하면서 변할 수 있는 중요치 않은 속성을 말한다. 예를 들면, 재료나 국적, 색채, 크기, 모양 등은 일반적인 속성이라고 한다면, 속성, 성향, 잠재력 등은 특수한 속성이라 할 수 있다.

(44) a. a pretty purple silk dress
b. a big black sheep
c. *a black big sheep (권경원, 1985)

(44a)에서 보면 명사 *dress*를 중심으로 세 개의 형용사가 나열되어 있다. 이 중에서 *silk*는 *dress*의 재료를 나타내는 것으로 세 개의 형용사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속성을 지녔다 할 수 있다. 또 *pretty*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특수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성(generality)이라는 관점으로 앞선 논의들을 간주하는 데는 단점이 있다. 가령 (44b)에서 등장하는 양들이 *여러 마리의 커다란 똑같은 양들* 가운데 검은 양이 있다고 할 때, *big* 보다는 *black*이 특수한 의미가 되어 (44b)보다는 (44c)가 문법적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이다. 이는 문맥이나 상황이 주어지면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이런 이유로 권경원(1985)에서는 Danks et al.(1971)의 논의와는 반대로 본질성을 보여주는 객관 형용사가 주관 형용사보다 판별력이 강하고 더 구체적인 속성을 띈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은 중심 명사(head)를 기준으로 *구심점*(centrality)이라는 속성을 따라 어순을 정하는데 있다. 이것은 Givon(1979)에서 의사소통 기능면에서 의미나 구조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요소가 너무 멀리 떨어지면 그 관련성을 청자가 포착할 수 없기 때문에 문장 주어 제약(sentential subject constraint)이나 Smith and Wilson(1979)의 양화사 이동 영역 제한, 또는 Perlmutter(1978)의 Ross

의 복합 명사구 제약(complex NP constraint)이 발생한다는데 그 기초를 두고 있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45a)를 보면 문장 주어 제약(sentential subject constraint)을 보여주는데, 목적어인 *what*이 문두로 나가게 되면 *bought*의 목적어임이 불분명해져서 비문이 된다. 또 (45b)를 보면, 이것은 양화사 이동 제약의 예를 보여주는데, 양화사 *all*이 *the children*과 구조상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그 관련성을 포착할 수 없어 마찬가지로 비문이 된다. (45c)는 Ross의 복합 명사구 제약의 예를 보여준다. 여기에서도 *what*은 *say*의 목적어인데, 둘 사이가 너무 떨어져 있어 서로의 관련성 인식이 부족해져서 비문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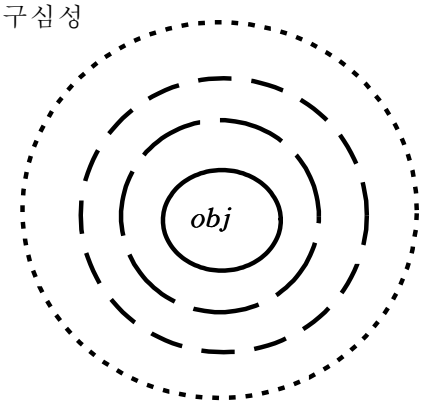
(45) a. *What is that she bought obvious?

b. *The children might have been shouting at once all.

c. * What does Marcia believe the claim that Tom will say?

이러한 구심점 설명은 (46)에서 볼 수 있다. (46)에서 보면 가운데 놓여 있는 중심어에서 밖으로 나갈수록 점선이 약해지고 있다. 이것은 통사적 그리고 의미적으로 관계가 있는 형용사가 중심어 명사에 가장 가까이 위치한다는 이론이다. 통사적 속성과 의미적 속성을 모두 언급하는 것은 형용사 어순이 어느 하나만으로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46) 구심성



예를 들어, (47a)에서 양화사, 지시 형용사, 상태 형용사, 그리고 중심 명사 순으로 되어 있는데, 양화사나 지시 형용사는 통사적 제약으로 설명이 되지만 상태형용사 *angry*와 *young*은 의미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47b)에서도 관사, 상태 형용사, 중심 명사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에서 관사의 위치는 통사적 설명으로 가능하지만 상태 형용사 *lively, little, black, white* 등은 의미적 설명으로 가능하다.

(47) a. all those angry young man
b. the lively little black and white kitten

그리고 (46)의 *구심성* 이론은 (48)과 같이 정리된다.

(48) a. 주변적 속성(peripheral attributes)
;간접적이고 추상적인 속성(indirect and abstract attributes)
b. 중심적 속성(central attributes)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속성(direct and concrete attributes)
c. 중심 명사(head noun)

주변적 속성은 중심 명사와 통사적 그리고 의미적으로 관련성이 적은 것이고 중심적 속성은 중심 명사와 통사적 의미적으로 관련성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권경원의 구심성 설명은 앞서 보았던 (44b-c)에 대한 이론적 단점을 해결해 줄 수 있다.

(49=43) a. a big black sheep
b. *a black big sheep

(49)에서 다시 보면, *커다란 여러 마리의 검은 양들*이란 의미에서 크기(size)는 일반적 의미가 되고 색채(color)가 특수한 의미가 되어, (49b)처럼 특수한 의미가 되는 형용사가 명사에 가까이 위치해 있어야 했다. 반면 권경원의 (48)의 설명에 따

르면, *big*은 보는 사람의 주관이기 때문에 주관적 구체성이고 *black*은 색채여서 객관적 구체성이 된다. 따라서 (49a)처럼 객관적 *black*이 중심어에 가까이 위치하는 것이 옳다는 설명이 된다.

지금까지 형용사의 의미(meaning)를 중심으로 논의되어온 어순 이론을 살펴보았다. 이들은 피수식어인 명사를 중심으로 열거되는 형용사 어순의 기준을 중심으로 형용사의 의미적 하위범주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들의 이론은 모두 수식어인 형용사는 피수식어 명사와의 관계를 통해 이론을 펼치고 있다. 즉 수식어들은 모두 피수식어의 객관적 성격과 결부되어 있으면 피수식어에 가까이 위치하고, 피수식어 보다는 화자의 주관적 판단과 결부되어 있으면 피수식어인 명사에서 멀어진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이론은 결국 형용사의 의미적 하위 범주의 기준이 피수식어인 중심 명사의 객관적 성격인가 아니면 화자의 주관적 판단인가를 중심으로 결정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형용사의 어순을 정의하는데 그러한 기준만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형용사 어순에 작용하는 음운론적, 통사론적, 의미론적, 혹은 화용론적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영어 형용사의 의미적 하위 범주를 다루기 위해서는 그러한 요인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어떠한 요인을 중심으로 의미 범주를 구성할 것인가를 고려해 보고자 한다.

2.1.2.2 하위범주화 요인

영어 형용사의 의미적 하위범주 요인을 다양하게 논의한 Wulff(2003)에서는 기존의 형용사 어순 논의가 단일 요인을 통해 이루어져 있어서 경우에 따라 일어나는 문제 발생을 지적한다. 단일 요인으로만 적용하는 경우 상황적 앞 절의 (44)에서 본 것과 같이 상황적 요인과 같은 타 요인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일 요인이 아닌 복합적인 요인을 통해 형용사 어순을 정의하고자 하였다.

Wulff(2003)에 따르면 음운론적 요인으로는 길이(length)가 있다. 이것은 철자의

길이가 긴 형용사가 더 짧은 형용사보다 뒤에 위치한다는 것이다. 형용사의 어순이 길이에 의해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형용사 어순이 결정되는데 있어서 음운론적 요인이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통사론적 요인으로는 색채(color)와 크기(size)의 명사적 속성(Nominal Character)이 형용사 어순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것은 Biber et al.(1999)에 따라 형용사 어휘의 명사적 속성이 강할수록 그 형용사는 명사에 가깝게 위치한다는 이론이다. Posner(1986)의 명사성 원리(Nouniness Principle)에서도 색채나 크기의 명사적 특징을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50) Posner의 명사성 원리 (Nouniness Principle)

a. color words are more easily used as objects (I like white/?round);

b. color words take adjective attributes more easily (This is an interesting white/?round);

c. color words can more easily be used in the oblique case (The homogeneity of this white/?round is remarkable).

(Wulff, 2003, pp253)

(50)에서처럼 색채어가 다른 어휘들보다 목적어나 형용사 또는 사격으로 더 쉽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색채 형용사는 명사로 활용되는 명사성(nouniness) 때문에 다른 형용사보다 명사에 더 가까이 위치해야한다. 그러나 대개는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Wulff(2003)에서 제시한 BNC(the British National Corpus)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색채나 크기 형용사는 (51)에서처럼 명사보다는 일반 형용사로 더 빈번하게 활용되는 이유이다.

(51) a. *white* fluffy cat

b. *red* big flowers

의미론적 요인으로는 의미적 밀접성(Semantic Closeness)과 비교 무관성(Independence from Comparison), Dixon 의미, 주관성-객관성 정도(Subjectivity and Objectivity Gradience), 그리고 의미 일치(Semantic Congruity)와 심리감(Affective Load) 등이 있다.

먼저 의미적 밀접성이란 (52)에서 보듯이 수식하는 중심 명사와 의미가 밀접하면 밀접할수록 가까이에 위치한다는 내용이다(Stubbs, 2001). (52a)에서 *brown*은 *light*보다 중심 명사인 *leather*의 성격을 더 잘 보여준다. 따라서 의미적으로 가까운 *brown*이 *light*보다 명사에 더 가까이에 위치해 있다. (52b-d)에서도 *married, unskilled, stainless*는 각각 *ordinary, cheap, solid* 보다 중심 명사의 성격을 더 잘 드러내 주고 있기 때문에 더 가까이에 위치한다.

(52) a. light *brown* leather
b. ordinary *married* woman
c. cheap *unskilled* labor
d. solid *stainless* steel

두 번째로 비교 무관성은 비교성(comparison)을 지니지 않은 형용사가 중심 명사에 더 가까이 위치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53)에서 *starry* 와 *heavy*에서 *starry*는 명사가 별과 관련된 속성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지만, *heavy*는 다른 대상의 무게를 함께 비교할 필요가 있다. 결국 (53c)에서처럼 비교성이나 정도성을 갖는 형용사는 그렇지 않은 형용사보다 중심 명사에서 더 멀리 위치한다는 의미이다.

(53) (a) a starry chain
(b) a heavy load
(c) a heavy chain

세 번째 Dixon 의미 요인은 Dixon(1977)에 근거를 두고 있다. 여기에서는 모든 의미 범주는 각각의 규칙(norm)과 포괄적인 문법 속성을 지닌다고 보고, 형용사에

대해서는 7개의 의미 범주 순으로 색(color), 나이(age), 사람의 습성(human propensity), 속도(speed), 물리적 속성(physical property), 차원(dimension), 가치(value)를 설정하고 중심명사의 기원(origin), 기질(composition), 목적이나 수혜(purpose or beneficiary)등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중심 명사와 가까운 후치 형용사(post-adjectives)로 칭한다. Dixon의 논리는 중심 명사의 객관적 성질을 보여주는 형용사가 중심 명사에 가까이 위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로 사용되는 시간과 날짜 그리고 '-al'로 끝나는 형용사 등은 따로 언급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네 번째 의미 요인인 Hetzron(1978)을 근거로 한 주관성-객관성 요인에서는 시간과 날짜 그리고 '-al'과 같은 형용사를 모두 포함해 13개의 의미 범주로 분류를 한다. 이는 앞 절에서 다룬 Quirk et al.(1985)에서처럼 주관성-객관성 요인은 중심 명사의 속성과 연관된 객관적 형용사[3)]가 중심 명사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주관적 형용사[4)]보다 중심 명사에 더 가까이 위치한다는 어순 기준이다. 하지만 여전히 형용사 의미 범주 순위에 들지 못하는 형용사들도 있다.

마지막 의미 요인인 의미 일치(Semantic Congruity)와 심리감(Affective Load)은 Richards(1977)를 근거로 한다. 이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일관된 형용사들의 서술적 혹은 한정적 나열에서 더 안정적인 선호도를 갖는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이러한 나열은 강한 관형적 어순 관계를 나타내고 훨씬 더 수용적이라고 설명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54a)는 좋지만 (54b)는 기피하는 표현이 된다. 만일 일관되지 않은 형용사들이 나열될 때는 긍정적 표현이 부정적 표현을 앞선다(Boucher and Osgood, 1964). (54c-d)에서 이를 확인해 보면, (54d)보다는 (54c)가 더 선호하는 표현이 된다.

(54) a. The poor, wretched child begged on the street.

---

3) 1. 범주, 의도(purpose/destination), 2. 기질(composition), 3. 기원(origin), 4. 물리적 결함(physical defect), 5. 색(color), 6. 형태(shape), 7. 나이(age)

4) 8. 사회적 속성(social property), 9. 속도(speed), 10. 감각 접촉 속성(sensory contact property). 11. 상태적 속성(static permanent property), 12. 평가(evaluation), 13. 인식 속성(epistemic qualifier)

b. The poor, happy child begged on the street.

c. strong dangerous

d. dangerous strong

하지만 의미 일치나 심리감을 기준으로 모든 형용사들의 어순을 배열할 수는 없다. 모든 형용사들이 반드시 극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며, 또 색채와 같이 중성적(neutral) 형용사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Deese, 1964). 더군다나 어휘 자체 의미가 긍정적인 말들이 문맥상으로는 부정적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55)를 보면, *hot*이라는 어휘는 단순히 뜨거운 온도를 표현하지만 (56a)에서는 *덥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또 (56b)에서는 뜨거우니 조심해야 된다는 의미를 지닌다.

(55) a. hot weather

b. hot tea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Wulff(2003)에서는 형용사를 사전상의 정의에 근거를 두고 형용사 어휘의 심리감(Affective Load)과 관련하여 개별적인 값을 매기고, 형용사들의 조합에 의거하여 값을 매겨서, 의미 일치 값을 3단계로 평가하기도 한다. 이는 (56)에서 볼 수 있는데, 심리감 값으로 긍정적 의미로 사용되는 어휘에는 +1을 주고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는 어휘는 -1, 그리고 중성적 의미에는 0을 부여한다. 또 의미 일치 값으로는 의미적 일치가 일어나면 1을 주고 불일치가 일어나면 -1을 부여한다. 이 때 만일 사용된 어휘 중 어느 하나가 중성 값이면 의미 일치 값에는 0을 부여하되 이는 의미적으로 일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중성적 의미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어휘 어느 것에든 조합될 수 있기 때문이다. (56)에서 첫 번째의 *nice cosy glow*의 *nice*와 *cosy*는 둘 다 긍정적 성향을 가진 형용사이다. 따라서 심리감 값은 각각 +1을 주고 의미 일치 값은 의미적으로 일치됨으로 1을 준다. 또 두 번째 예인 *silly daft woman*에서는 *silly*와 *daft*가 모두 부정적 성향을 가진 형용사여서 각각의 심리감 값은 부정적인 값 -1을 갖게 된다. 하지만 이것 역시 의미 일치가 되기 때문에 의미 일치 값은 1을 갖는다. 세 번째의 *big red mark*에서는 *big*

과 *red*가 중성적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심리감은 둘 다 0을 갖게 되고, 이때도 의미 일치를 이루기 때문에 의미 일치 값은 1을 갖게 된다.

(56) 의미 일치(semantic congruity)와 불일치 형용사 쌍의 코퍼스 예

코퍼스 예	심리감	의미 일치 값	의미 일치 상태
nice cosy glow	+1/+1	1	semantically congruent
silly daft woman	-1/-1	1	semantically congruent
big red mark	0/0	1	semantically congruent
fantastic new world	+1/0	0	semantically congruent
terrible personal problem	-1/0	0	semantically congruent
awful funny feeling	-1/+1	-1	semantically incongruent

네 번째의 *fantastic new world*에서는 *fantastic*은 긍정적이므로 +1을, *new*는 중성적이므로 0을 심리감 값으로 취하고, 의미는 일치되지만 일치 값은 중성적 어휘가 들어 있으므로 0을 준다. 다섯 번째의 *terrible personal problem*도 마찬가지다. 심리감 값으로 *terrible*은 부정적이므로 -1, *personal*은 중성적이므로 0, 의미 일치 값은 0이 주어진다. 마지막으로 제시된 *awful funny feeling*의 경우, 심리감 값으로 *awful*은 부정적이어서 -1, *funny*는 긍정적이어서 +1, 따라서 의미 불일치가 일어나므로 의미 일치 값 역시 -1을 갖게 된다. Wulff의 이런 방법은 심리감 값과 의미 일치 값, 그리고 의미 일치 상태를 보여줌으로 그 형용사 표현이 선호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것은 활용된 형용사 표현이 적절한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제약이 될 뿐 일반적인 형용사 어순의 기준을 위한 이론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화용론적 요인으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특정 명사(Noun-specific) 빈도와 빈도수(Frequency)이다. 특정 명사 빈도란 명사에 가장 가까이 위치하려는 형용사들은 그 명사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Lockhart and Martin(1969)의 주장에 근거한 것이다(Posner[5], 1986; Martin, 1969). 이것은

5) Posner(1986)에서는 한정어를 고정어로 만드는 것은 빈번한 사용 때문이고 모든 대화에서 어

의미 요인의 의미 밀접성(Semantic Closeness)과도 유사하다. Wulff(2003)에서는 모든 형용사와 명사 결합의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해 BNC(the British National Corpus) 자료를 가지고 조건적 확률 계산(p(Adj | N)을 하였다. 이 계산은 중심 명사와 중심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사이에 지식적인 연관성이 얼마만큼 존재하는지 확률로 확인해보려는 것이다. 이 계산의 결과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중심 명사와 중심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는 서로 밀접한 의미적 관련성이 있게 되는 것이다. (57-58)을 보자.

(57) p(Adj | N) = p(Adj + N) / p(N) = f(Adj + N) / f(N)

(58) a. normal (0) free (.023) tickets

b. plain (.001) hard (.009) facts

c. nice (.001) blonde (.028) hair

d. excellent (.002) new (.013) book

(57)은 형용사가 특정 명사와 얼마나 자주 함께 사용되는가를 측정하는 수식이다. 그리고 (58)은 이 수식을 적용한 예이다. (58a)에서 중심 명사 *tickets*를 수식하고 있는 두 형용사 *normal* 과 *free*는 각각 0과 0.023값을 갖는다. 따라서 *normal* 보다는 *free*의 결과 값이 더 높기 때문에 free가 중심 명사와 더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58b)도 마찬가지다. 중심 명사 *facts*를 수식하는 두 형용사 *plain*과 *hard*중에서 *hard*가 더 높은 값을 가지고 있다. 이것 역시 *hard*가 중심 명사 *facts*와 관련성이 더 높다는 의미이다. (58c)와 (58d)에서도 형용사 *blonde*와 *new*가 선행 형용사보다 더 높은 값을 보여준다. Wulff는 형용사 어순을 추측할 때 이 특정 명사 빈도를 활용하면 형용사 어순 예측 오차(error)를 17.92%까지 줄일 수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형용사와 피수식어인 명사간의 의미적 관련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시사해주

휘의 빈도수를 높이는 것은 고정 어휘적인 속성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따라서 한정어가 중심 명사와 함께 더 빈번하게 사용 될수록 그 중심어에 더 가까이 위치하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중심 명사 가까이에 위치하는 것은 특정 명사와 더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고 있다.

화용론적 두 번째 요인인 빈도수(Frequency)에서는 더 빈번하게 나타나는 형용사가 그렇지 않은 형용사보다 선행한다는 주장이다.

(59) a. strong (15,898) brown (3,908) bags
b. damp (1,571) salty (178) margins
c. big (24,684) cold (6,438) lakes
d. lively (1,472) vibrant (264) conference

(59)의 숫자는 빈도수를 나타내며, (a-d) 모두 중심 명사에 가까이 위치한 형용사가 그 보다 선행하는 형용사보다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Wulff의 논의에서 제외시키는 요인도 존재한다. 그것은 문맥이다. 이는 Danks et al(1971)의 논의에서처럼 형용사 어순이 문맥에 따라 화용론적으로 그 순서를 달리하기 때문이다. 또 만약 문맥에 따라 형용사의 위치가 바뀌는 것이 일반화된 경우라면, 일반화된 형용사 어순은 그리 큰 중요성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Martin & Ferb(1973)에서도, 의미적이면서 심리적인 문맥적 요인은 단지 화용론적 원리에 대해 높은 지지를 해 줄 뿐이며, 문맥(contextually/ pragmatically) 제약 형용사 어순과 일반 어순(AO)간에는 (60)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고 말한다.

(60) a. whereas in normal preferred order the syntax is multi-branching, in contextually constrained preferred order it is right-branching
b. juncture between the adjectives is observable only with contextually constrained preferred order (cf. also Martin 1970:382)
c. in contextually constrained preferred AO, stress is on the first adjective, whereas in normal preferred order, stress remains constant or increases slightly from the first to the last adjective in a string (cf. also Teyssier 1968:236)
d. in contextually constrained preferred order, sequencing is constrained

by the contextually determined order of the sub-classification of the denotation of the noun, in normal preferred order, other factors like semantic closeness etc. influence the arrangement

e. there is evidence from newly acquired words against the frequency-relation of normal and contextually constrained AO:

"If a person learns a new hue term, like heliotrope, then the new term is ordered appropriately immediately. In this case it cannot be argued that the speaker is responding to a simple index of frequency relating to the particular adjective. Clearly, it is at least necessary for Danks and Glucksberg to hold that the frequency index be associated with adjective classes rather than with individual adjectives."

(Martin & Ferb 1973:79)

(60a)는 형용사의 통사적인 일반 어순에서는 여러 가지 분지 방법을 갖지만 상황이나 문맥적 어순에서는 우-분지 방법만을 갖는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통사적 일반 어순이 문맥적 제약을 받는 어순보다 더 보편적임을 보여준다. (60b)는 형용사들 간의 연접(juncture)은 문맥적 제약을 받은 어순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며, (60c)는 문맥적 제약을 받은 어순에서는 첫 번째 형용사에 강세가 위치하는 반면 일반 어순에서는 중심 명사에 가까울수록 강세가 점차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60d)는 문맥 제약을 받은 어순에서는 중심 명사를 지칭하는 하위 범주들이 문맥적으로 한정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60e)는 새로운 어휘는 일반 어순과 문맥 제약 어순의 빈도 관계(frequency-relation)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 다섯 가지 내용은 모두 문맥적 어순은 일반 어순과 다르게 특수성을 지니게 되며, 이 때문에 일반어순이 지니는 보편성에서 제외되는 이유가 된다.

Wulff(2003)에서는 기존의 형용사 어순 논의에 비해 가벼워 보이는 점도 있다. (61)에서처럼 수식 형용사의 수를 최대 2개로 한정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Wulff에서 제시한 BNC(the British National Corpus)의 자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사용되

는 형용사 9,647개 중에서 4.41%에 해당하는 426개의 형용사만이 세 개의 형용사로 구성된 명사구에 사용되었고, 68%에 해당하는 6,560개의 형용사가 두 개로 구성된 명사구이다. 또 두 개의 형용사로 구성된 명사구를 이루는 형용사들이 BNC의 모든 형용사 중에서 90%를 차지하는 범주에 속한다[6].

(61) 형용사1 - 형용사2 - 명사

또 이렇게 수식어 형용사를 두 개로 한정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더 있다. 하나는 앞선 (60b)의 설명처럼 *and*나 *but*과 같은 연결어가 사용된 수식어는 배제시켰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polar bear* 나 *High Cjommissioner*와 같은 복합명사도 배제되었다는 점이다. 연결어나 복합명사를 만드는 명사를 이용해 명사구를 만드는 예가 많지만, 이들은 단일어로 인식되기 때문에 어순 논의에서 배제된 것이다. 그리고 *young, little,* 혹은 *old* 등의 형용사가 제외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이들 세 형용사가 어떤 명사들과는 절대적인 관계를 구성하여 일반적 어순관계가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결국 두 개로 한정시킨 형용사의 어순에 대한 논의가 유의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 는 없겠다.

지금까지 Wulff(2003)에서 주로 다룬 형용사 어순에 영향을 주는 음운론적, 통사론적, 의미론적, 그리고 화용론적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Wulff는 마지막으로 이들 네 가지 관점에서 바라본 요인들 모두가 형용사 어순에 유의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다요인 분석(Linear Discriminant Analysis test; 어순 판별 분석; 이하 LDA로 통일)을 실시하였다. 이때 Dixon 의미 요인은 제외의 대상이 되었다. 이유는 의미적 요인의 네 번째 요인인 *주관성-객관성* 요인과 근본적으로 같기 때문이다. 또 LDA 실험에서는 변이들을 순서적으로 대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관성-객관성 요인의 형용사 범주들을 주관적 형용사와 객관적 형용사의 두 층위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진리 값을 이용하여 각 층위를 넘나들게 했다. 그리고 의미적

6) Wulff(2003)에서는 BNC의 자료를 이용해 두 개의 형용사로 이루어진 명사구는 총 3,234개이며, 여기에는 색채와 형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뿐 아니라, 특히 구어체를 대표할만한 형용사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요인의 마지막 요인인 *의미 일치*(semantic congruity)도 제외시켰다. 이유는 의미 일치 요인은 단지 성격이 동일한 형용사들이 반대인 형용사들보다 더 빈번하게 표현된다는 제약만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심리감*(affective load)은 긍정적인 심리의 유무를 보여주기 때문에 수학적 정량화를 위해 기호화하여 사용하였다.

다요인 분석 LDA는 중심 명사를 수식하는 각 형용사에 대해 개별적인 요인들을 통해 얻은 값을 가지고 형용사1 또는 형용사2 중 어디에 위치할 것인지를 예측하게 하는 실험이다. 다시 말해서 중심 명사를 수식하는 두 개의 형용사 중에서 각각의 위치를 예측해내기 위한 실험이다. 그 결과 전체 요인들이 얻은 값은 (62)에서 개별적인 요인들은 (63)에서 보여준다.

(62) LDA의 전체 결과[7] 1

Wilk's Lambda	.861
canonical correlation	.373
Chi-square (df = 8)	740.23
p	< .001***

(62)의 전체 결과는 모든 요인들이 형용사 순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불수 있다. 그리고 개별 요인들에 대한 값을 보여주는 (63)을 보면, 그 결과 값이 -1/+1에 이르는데 음수값은 요인 값과 형용사 위치 사이에 부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요인 값이 높을수록 형용사1에 나타날 확률이 높다는 의미이다. 요인들 값을 살펴보면, 심리감 요인이 가장 높은 수치를 지닌다. 이는 형용사 어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의미적 밀접성을 제외하고는 다른 요인들 보다 의미적 요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어서 화용론적, 그리고 음운론적 요인의 순으로 형용사 어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7) Wilk's Lambda와 canonical correlation 은 변별 기능의 적절성을 보여주며, Chi-square test는 전체 변별 분석이 유의한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를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63) LDA의 요인 값

요인(variable)	요인 값(factor loading)
심리감 (의미론적)	-.821
비교 무관성(의미론적)	-.555
주관성객관성(의미론적)	-.362
특정명사 빈도(화용론적)	.348
빈도수(화용론적)	-.203
길이(음운론적)	.174
의미적 밀접성(의미론적)	-.083
명사적 속성(통사적)	-.022

통사적 요인인 명사적 속성(Nominal character)의 요인 값은 아주 낮아서 형용사 어순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서 제외시켜도 될 정도이다. 명사적 속성 요인은 색깔이나 크기 형용사에 한정되어 일어나기 때문이다. 또 비록 음운론적 요소인 길이(length)가 유의적이기는 하지만 모든 형용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용사의 어순에 중심이 되는 요인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형용사 어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의미론적 요소이다. 이 의미론적 요소라는 결과는 앞 절에서 다룬 Quirk et al.(1973)이나 Vendler(1967)의 주관성/개관성 요인 그리고 본질성 요인을 중심으로 형용사 어순을 논하고 형용사의 의미적 하위범주를 설정한 것이 유의함을 보여준다. 의미론적 요소인 심리감은 수식어 형용사들의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를 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Quirk et al. 이나 Vendler의 논의와 크게 차이 나는 내용은 없다. 또 비교 무관성은 비교를 나타내는 어휘가 선행한다는 내용인데, 이는 비교를 나타내는 형용사는 피수식어 명사의 속성보다는 화자의 견해를 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주관성/객관성 혹은 본질성 이론과 크게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화용론적 요인인 특정명사 빈도나 빈도수의 경우에도 비록 빈도수를 이용해 형용사들의 순서를 결정하려는 것이지만 결국 높은 빈도수는 피수식어 명사와의 긴밀한 지식적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요인 역시 Quirk et al. 이나 Vendler의 논의에 어긋나지는 않는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형용사 어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달리 말하면 형용사의 의미적 하위 범주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피수식어 명사와의 관계를 고려한 주관성/객관성 혹은 본질성이라고 할 수 있겠다.

형용사 어순의 결정적 요인인 주관성/객관성 내지는 본질성과 같은 요인을 중심으로 Christophersen(1971)과 Quirk(1973), Crystal(1978), 그리고 Vendler(1968)에서 제시한 영어 형용사의 의미적 하위 범주를 정리해 보면 (64)와 같다.

(64) 영어 형용사의 의미적 하위범주

재료(material)	wooden, silver, metallic, plastic, glass, paper, ...
국적/영역/기원 (national, regional, or original)	French, lunar, American, eastern, Greek, ...
색채(color)	blue, pink, reddish, grey, ...
목적/성향/상태 (purpose/inclination)	racing, fishing, foldout, ...
시대(age)	ancient, new, young, old, ...
크기/모양/기질/객관 (size/shape/temperature /objective)	large, tiny, enormous, little, square, round, flat, rectangular,
행위적 특징/주관적 (temperature/behavioral characteristic/ subjective)	beautiful, ugly, easy, fast, interesting, cautious, apologetic, ...
가능성/잠재력 (possibility/potentiality)	able, adaptable, approachable, available, capable, creditable, ...
기수(cardinal number)	one, two, three, ...
서수(ordinal number)	first, twice, ...
소유격/관사(possessive/article)	my, your, a, the, ...

여기에는 의미적 하위범주들의 어순은 고려하지 않았다. 어순은 문맥 등과 같은 특수상황에서도 달리하지만 Wulff(2003)에서처럼 수식어로 등장하는 형용사의 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총 11개로 분류된 것은 각 논의에서 공통적 의미는 하나로 묶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크기(size)와 모양(shape)의 경우 Crystal(1978)

에서는 두 개로 분류하였지만 Christophersen(1971)을 따라 하나로 간주하였다. 크기와 모양 둘 다 대상의 외견을 말하는 객관적 특징이기 때문이다. 또 Vendler(1966)의 행위적 특징은 주관적인 판단에 해당되기 때문에 Quirk(1978)의 주관적 형용사와 함께 묶었다.

그럼 이제 한국어 형용사가 지닌 통사적 그리고 의미적 특징을 알아보고 유사성과 차이점 혹은 다른 시사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2.2 한국어 형용사

한국어 형용사는 동사와 더불어 문장의 핵으로 간주되어왔으며, 주-술 구조의 주어와 더불어 문장의 핵심으로 보는 관점이 전통적 문법이래로 지배적이다(김정남, 2003). 이런 이유로 형용사와 동사에 대한 논의는 통사론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여겨져 왔을 뿐 아니라, 또 형용사는 동사와 더불어 문장의 서술어로 사용되기 때문에 논항을 지배하여 완전한 문장을 만든다는 입장에서 통사・의미론적으로 논의되어왔다.

하지만 형용사는 기능적인 면에서는 동사와 흡사하지만 의미적인 면에서 성질을 달리한다. 형용사가 다른 품사들과 성격을 달리하는 내용은 남기심 & 고영근(1998)에서 간략하게 볼 수 있다. 그곳에서 형용사는 *기능과 의미면에서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느냐* 에 따라 다른 품사와 구분된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명사와 형용사의 차이는 예 (65)에서처럼 기능면에서 나타난다. 명사인 *깊이* 와 *높이*는 (65c-d)에서 둘 다 문장의 주어 기능을 하고 있고, 형용사 *깊다* 와 *높다* 는 (65e-f)를 보면 둘 다 문장의 서술어 기능을 하고 있다.

(65) a. 깊이, 깊다
b. 높이, 높다
c. 이 샘의 *깊이가* 얼마냐?
d. 저 산의 *높이가* 얼마냐?

e. 이 샘이 *깊다.*

f. 저 산이 *높다.*

(66) a. 아이가 *웃는다.*

b. 나팔꽃이 *핀다.*

c. 철수는 *착하다.*

d. 하늘이 *흐리다.*

또 형용사와 동사는 동일하게 서술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능으로는 구별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의미면에서 구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66)를 보면, *웃는다, 핀다, 착하다, 흐리다* 모두 서술어라는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기능면에서는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할 수 없다. 이렇게 동일한 기능을 갖는 경우에는 의미면에서 품사를 변별시킬 수 있는데, (66a-b)와 (66c-d)가 그러하다. (66a-b)의 *웃는다* 와 *핀다* 는 의미면에서 주체의 *동작*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66c-d)의 *착하다* 와 *흐리다* 는 주체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즉 동사는 동작을 나타내는 의미를 보이지만 형용사는 상태를 보인다.[8)]

형용사와 동사의 흡사한 성격 때문에 형용사는 많은 논의에서 동사와 더불어 동일 범주로 분류되어 논의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형용사는 동사외의 다른 품사들과는 기능적・의미적으로 차이를 가지고 있고, 게다가 동사와도 (66)가 보여주는 것처럼 의미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난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차이는 문장의 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유현경, 1998; 김정남 2003).

(67) 영희는 사랑에 *눈이 멀었다.*

(67)을 보면, *눈이 멀었다*의 구조, 즉 *NP가/이+ V*는 표면적으로 ~이/가라는 주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의 완전한 문장으로 취급될 수도 있지만, 의미적으로 볼

8) 이익섭 & 채완(2000)에서는 형용사를 동사와 구분하지 않고 용언으로 묶어 분류하기도 한다. 이는 형용사와 동사가 체언과 짝하여 공통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형용사와 동사의 구분은 전자는 상태 동사로 후자는 동작동사로 이루어진다.

때 문장보다는 하나의 서술어로 간주될 수 있다. 이는 통사 구조가 문장 구조 이해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지만 의미적인 면도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해준다. 따라서 형용사에 대한 논의는 의미적인 면 뿐 아니라 통사적 입장도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

2.2.1 통사적 특징

한국어 형용사는 영어에서와는 달리 동사와 더불어 서술어 역할을 한다는 점에 중점을 둔다. 즉 수식어 기능은 형용사가 아닌 관형사의 역할이다. 한국어 형용사가 동사처럼 서술어로 활용되기 때문에 유현경(1998)에서는 형용사를 통사적으로 자동사와 공통된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같은 범주로 분류하고자 한다.

대개 형용사는 다른 품사들과 구분되는 요소로 의미, 형태, 구문상의 특징 등을 꼽는다. 그런데 유현경(1998)에서 형용사가 자동사와 통사적으로 유사하다는 설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면에서이다. 하나는 형용사와 동사의 품사 구분이 의미나 형태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이고, 둘째는 자동사가 지니는 통사적 특징을 형용사에서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셋째는 *있다, 없다, 계시다*와 같은 존재사의 경우인데, 김정남(2003)에서는 *있다*와 같은 존재사도 형용사로 분류하지만, 유현경에서는 형용사나 동사 중 어떤 품사에 포함시키는 것인지 분명치 않기 때문에 결국 자동사들의 특징이 형용사와 유사하며, 따라서 한 범주로 분류하고자 한다. 즉 존재사의 품사 분류 애매성으로 인해 형용사와 자동사는 더 유사한 범주라는 것이다.

유현경에서 형용사와 동사의 분류는 의미와 형태적 측면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대개 동사와 형용사를 분류하는 형태적 기준인 *-는다*와 *-고 있다*가 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는다*나 *-고 있다*가 붙을 수 있으면 동사이고 그렇지 않으면 형용사라는 기존의 설명과는 달리 (68)-(69)에서 보는바와 같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68) a. 선이는 지금 무엇에 *앵돌아졌는지* 이젠 오지도 않는다.

a.′ *선이는 *앵돌아지고 있다.*

b. 어줍잖게 인생은 덧없이 무상하다는 생각이 불쑥 *치민다.*

b.′ *어줍잖게 인생은 덧없이 무상하다는 생각이 불쑥 *치밀고 있다.*

(69) a. 그가 어깨를 *으쓱하고* 두 손바닥을 내보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a.′ 그가 어깨를 {*으쓱한다, *으쓱하고 있다*}

b. 원칙적으로는 너의 지적이 *맞다.*

b′. *원칙적으로는 너의 지적이 *맞고 있다.*

(68)에서 *앵돌아졌는지*나 *어줍잖게*는 동사임에도 불구하고 *-고 있다*가 붙으면 비문이 된 경우이다. 또 활용형에서 형용사와 동사를 넘나드는 어휘들이 있어서 형태상으로 품사를 구분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69a′)와 (69b′)에서 보듯이, *-는다*와 *-고 있다*가 모두 맞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형태상으로 형용사를 특징짓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로, 형용사가 자동사의 통사적 특징을 공유한다는 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이다. 하나는 명령법, 약속법, 의도법, 청유법을 나타내는 종결어미와의 결합유무와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는 어울리는 부사어 종류,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 어떠하냐?*에 대해 *무엇이 어떠하다*로 답할 수 있는지이다. 또 형용사는 대표적인 비대격 서술어인데, 일부 자동사에 있어서 비대격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구문들이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형용사는 더더욱 자동사와 유사한 통사적 특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

명령법, 약속법, 의도법, 청유법을 나타내는 종결어미와 관련하여, 유현경(1998)에서는 이러한 서법 요소들과의 결합은 동사([-상태성(stative)])와 형용사([+상태성])의 구분이 아니라 [±행위성(agentive)]과 관계있다고 주장한다. [-상태성]의 동사라 할지라도 서법 요소들과 결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70) a. 희정이가 화를 발끈 내면서 *토라졌다.*

a′. *희정이가 화를 발끈 내면서 일부러 *토라졌다.*

a″. *토라져라/*토라지마/*토라지려고 했다/*토라지자.

b. 미순은 세파에 찌들 대로 *찌들었다.*

b′. *미순은 세파에 일부러 찌들 대로 *찌들었다.*

b″. *찌들어라/*찌들마/*찌들려고 했다/*찌들자.

(70a-b)의 동사 *토라졌다, 찌들었다*는 모두, [-상태성]의 동사들이다. 하지만 (70a″)와 (70b″)에서 보듯이 서법 요소들과 결합하지 못한다. 유현경은 이것이 [±상태성] 때문이 아니라 [±행위성(agentive)]때문이라고 말한다. 즉, 비록 [-상태성]의 동사라 하더라도 [-행위성]의 의미를 담고 있으면 [-상태성]과 [-행위성]의 의미를 갖는 형용사처럼 서법 요소들과 결합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형용사는 (71a)에서처럼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어와 어울린다. 하지만 (72)에서처럼 대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하고는 같이 어울리지 못한다.

(71) a. 그 여자는 {매우, *잘} 예쁘다.

b. 그 여자는 {*매우, 잘} 뛴다.

(72) a. 목재는 다공질로 {*늘, *가끔, *때때로, *종종} *가볍기* 때문에 그 전도율은 낮다.

b. 박꽃은 {*늘, *가끔, *때때로, *종종} 하얀 옥양목보다 더 *희다.*

하지만 (73)을 보면, *더럽다, 쌀쌀하다*와 같은 형용사는 시간부사와도 어울린다.

(73) a. 지하실은 {늘, 가끔, 때때로, 종종} *더럽고* 추웠다.

b. 새벽바람은 {늘, 가끔, 때때로, 종종} 제법 *쌀쌀하다.*

이것에 대해 유현경은 형용사라 할지라도 일시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시간 부사어와 공존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이와 함께 오히려 일부 자동사가 양태부사보다 정도 부사어와 어울리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한다.

(74) a. 남편은 막일도 가리지 않고 일했으나 형편은 여전히 {매우, *잘} *쪼들렸다.*
b. 길바닥이 {매우, *잘} *질척거려* 버선이 금새 다 젖었다.

(74)의 경우 *쪼들렸다*와 *질척거리다* 동사는 자동사이지만 *잘*과 같은 양태부사보다는 *매우*라는 정도부사와 더 잘 어울린다. 즉 자동사의 정도부사와 어울리는 특성으로 인해 형용사는 자동사와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언급한 것이다.

세 번째로 *무엇이 어떠하다*에 대한 대답에 관해서는, 최현배(1937)에서 형용사는 *무엇이 어떠하냐*에 대해 그 *어떠함*을 답하는 것이고 동사는 *무엇이 어찌한다*의 *어찌함*을 표현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형용사와 동사를 판별하는 검증 틀이 된다고 말한다. 그러한 판별 기준에 대한 예로, (75a)는 동사를 보여주고 (75b)는 형용사를 보여준다.

(75) a. 영희는 어찌하냐?
-> 영희는 밥을 먹는다.
b. 영희는 어떠하냐?
-> 영희는 예쁘다.

하지만 (76)에서처럼, 일부 자동사의 경우도 어찌함에 대답이 아닌 형용사처럼 어떠함에 대한 대답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인다. *어떠하냐*를 물은 (76a)에 대한 대답으로 (76a′)처럼 동사를 활용하면 비문이 되어야 하지만 (76a′′)는 비문이 아니다. 따라서 형용사와 동사를 판별하는 어찌함의 기준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형용사의 통사적 특성이 자동사의 것과 대개 유사하기 때문이다.

(76) a. 영희는 어떠하냐?
a′. *영희는 집에 간다.
a′′. 영희는 지쳤다.

이와 같은 3가지 이유를 통해 유현경은 형용사와 자동사의 통사적 유사성을 강

조하고, 또 이들을 나누는 실제적 기준이 없다고 설명하면서 동일 범주로 인정할 것을 주장한다.

또 형용사와 동사를 동일 범주로 간주해야하는 또 다른 이유로 구문상의 유사점을 들고 있다. 감각 구문과 대칭 구문, 그리고 장소교차 구문이다.

(77) a. 나는 다리도 *뻑적지근했지만* 몸보다 마음이 더 무거웠던 것이다.
b. 영권이는 옆구리가 *결리고* 코에서 코피가 나온다고 쉬고 있는 참이었다.
c. NP1-가 (NP2-가) Adj

(78) a. 영권이는 옆구리가 {매우, *잘} *결리고* 코에서 코피가 나온다고 쉬고 있는 참이었다.
b. 손목과 손가락들이 얼얼하게 {매우, *잘} *저린다*.

먼저 감각구문의 예를 살펴보자. 유현경(1998)에서 분류한 감각 형용사 구문은 (77c)와 같은 구조를 지닌다. 주어인 NP1에는 경험주가 나오며 두 번째 명사구는 신체의 일부가 나온다. (77a)는 감각형용사구문의 예이고, (77b)는 자동사 *결리다*의 예문이다. (77b)도 주어에 경험주 그리고 두 번째 명사구도 신체 일부가 표현되어 (77c)와 동일한 구조를 지닌다. 또 (77b)와 같은 *결리다*류의 동사는 형용사처럼 양태 부사와 어울리기도 한다. (78)에서, (78a)와 (78b) 둘 다 동사 *결리다*와 *저린다*가 동사와 어울리는 정도 부사보다는 형용사와 어울리는 양태 부사 *매우*와 결합하여 더 좋은 문장을 만들고 있다.

(79)은 대칭구문과 자동사를 비교한 것이다. 대칭 구문은 자동사뿐 아니라 타동사와 형용사에 모두 분포한 것인데, 여기에서는 자동사적 대칭과 형용사적 대칭구문만 살펴보기로 한다.

(79) a. 인류는 불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생물과 *다르다*.
b. 그는 거문고의 대가 김성기와 아주 *절친했다*.

(80) a. 나는 그들과 *만나면서* 나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이켜 본다.
b. 그녀는 다른 남자와 결혼해 버리고 말았다.

(79)는 형용사 대칭 구문이고 (80)은 자동사 대칭 구문이다. 자동사 대칭 구문은 구조와 통사적 특징은 다음(81)-(82)에서 볼 수 있다. (81a)는 비교 대칭형용사의 예를 보여주고 (81b)는 상호 대칭형용사의 예를 보여주는데, 자동사 대칭 구문인 (81a) 구조와 같아 보인다. 자동사 대칭 구문 특성인 (82)와 비교를 해 볼 때도 동일한 특성을 지닌다.

(81) a. NP1-가 NP2-와 {서로, *함께} V
b. NP1-와 NP2-가 {서로, *함께} V
c. NPpl-가 {서로, *함께} v (NPpl: 복수명사)

(82) a. *NP-*를을 허용하지 않는다.
b. *NP1*과 *NP2*는 의미상으로 등가성을 갖는다.
c. *NP-와*는 필수적인 보충어이다.
d. *함께*와의 양립이 불가능하고
e. *서로*를 수의적으로 선택한다.
f. 동일한 어휘/통사적인 조건하에서, *NP1*이 *NP2*와 등위접속되어 주어명사구에 나타나는 복수주어문과 일정하게 대응된다. 즉, 이와 같은 등위접속의 복수주어문은 단수주어의 *NP1-*와 보충어문과 동의관계를 이루며, *함께*를 거부하며 *서로*를 수의적으로 용인한다.

또 형용사는 일반적으로 장소어를 취하지 않지만 대개 자동사 구문에서처럼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83)이 그 예이다.

(83) a. 충권씨 집으로 들어가니 안방 툇마루 앞에 벌써 신발이 *그득하다.*
b.그를 기다려 주는 사람이 없다 해도 서울은 온통 사람으로 *그득했다.*

(84) a. 대합실에 귀성객들이 *들끓는다.*
b. 대합실이 귀성객들로 *들끓는다.*

(83)은 *그득하다* 형용사를 활용한 구문인데, 장소어인 *안방 툇마루 앞에*와 함께 어울려 있다. (84)는 자동사에 활용된 장소교차 구문이다. *들끓는다* 동사에 *대합실에*라는 장소어가 함께 표현되고 있다. 대개 장소교차 구문은 자동사 구문에서 활용되는데, 그 구조는 (85)에서 볼 수 있다.

(85) (NP1-에) NP2-가 V ↔ NP1-가 NP2-로 V

(85)은 장소어로 활용된 명사 *NP1-에*가 주어로 활용되어 문장을 만들거나, 주어 NP2가 보충어로 활용되어 문장을 이룰 수 있음을 설명해 준다. 타동사에도 장소교차 구문이 있지만, 다음 (86)에서 보는 것처럼 자동사나 형용사의 경우와 다르다.

(86) a. 인부들이 트럭에 건초를 실었다.
b. 인부들이 트럭을 건초로 실었다.
(87) NP1-가 (NP2-에) NP2-를 V ↔ NP1-가 NP2-를 NP3-로 V

(86)의 타동사 장소교차 구문에서는 (83)-(84)와 같은 형용사나 자동사의 장소교차 구문과는 달리, 문형 구조 (87)과 같이 목적어 *NP-를*을 지니고 있다. 즉 자동사나 형용사의 장소교차 구문의 유사성을 통해서 형용사는 통사적으로 자동사의 특성을 대부분 공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것이다.

이 외에도 형용사는 대표적 비대격 술어라고 말해진다. 그런데 일부 자동사의 비대격성을 논하건데, 유현경(1998)에서는 네 가지 면에서 그러하다고 주장한다. 첫째는 장형 부정의 조사 교체이고, 둘째는 시간과 빈도의 부사어의 조사 교체, 셋째는 연속 동사 구성, 그리고 네 번째는 *명사구+용언* 구성의 관용 표현 생산이라는 문형 구조를 통해서이다.

Perlmutter(1978)에서 비대격 서술어는 (88)에서 보는 것처럼, 기저구조에서 수동태의 동사처럼 주어는 갖지 못하고 목적어만을 갖는 동사를 말한다. 또 (89)와 같은 특성을 지닌다.

(88) 비대격 가설

: 어떤 자동사절은 초기 2값을 가지지만 초기 1값은 가지지 않는다.

(89) 비대격 서술어

a. 크기, 모양, 무게, 색깔, 냄새, 마음의 상태 등을 표현하는 형용사

b. 수동자(patient)의 의미역을 갖는 주어를 택하는 서술어: burn, fall, drop, sink ...

c. 존재와 발생의 서술어: exist, happen, transpire, occur ...

d. 냄새, 소리, 빛 등의 자극을 나타내는 서술어: shine, sparkle, glitter, glisten ...

e. 상적인(aspectual) 서술어: begin, start, stop, cease ...

f. 지속(durative) 서술어: last, remain, stay, survive ...

(88)에서 초기값은 모두 기저구조에서 갖는 논항을 일컫는데, *초기 2값*은 목적어를 의미하며, *초기 1값*은 주어를 지칭한다. (90)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90) a. There arrived John.

b. [s △ [vp arrived John]]

c. [s John [vp arrived]]

(90)에서 *arrive* 동사는 기저 구조인 (90b)에서처럼 목적어 논항만을 갖게 되어 표면구조에서 그 목적어가 주어 위치로 이동하여 (90c)처럼 된다.

유현경에서 언급하는 우리말 비대격 서술어의 특징은 Perlmutter와는 차이가 난다. 이는 언어마다 가질 수 있는 개별성 때문이라고 언급한다. 이 때문에 장형 부정의 조사 교체, 시간과 빈도의 부사어의 조사 교체, 연속 동사 구성, 그리고 *명사구+용언* 구성의 관용 표현 생산 등의 네 가지 특징을 통해 설명한 것이다.

장형 부정의 조사 교체란 *-지 않다*가 결합하여 만드는 부정구문에서 나타나는 조사 교체 현상을 말한다. 즉 *-지*에 수의적으로 *-가*와 -를이 붙기도 하는데, 형용사와 같은 비대격 서술어에서는 *-가*와 -를 모두 자유롭게 결합되지만 타동사나 비

능격 동사의 경우에는 *-가*가 결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91) a. 집을 팔지 않으면 그것이 *가능하지*(를/가) 않기 때문이었다.
b. 영감이 죄인을 두둔하면 그 죄 또한 *가볍지*(를/가) 않을 겁니다.
(92) a. 형은 자기의 출신교에 대한 긍지를 *잃지*(를/*가) 않고 있었다.
b. 잘 가꾸면 아담할 집을 그 여자는 통 *가꾸지*(를/*가) 않았다.

(91)는 형용사의 장형 부정형이고 (92)은 타동사의 부정형이다. 앞선 설명처럼 (91)에서는 *-지*에 -를이나 *-가*를 붙일 수 있지만, (92)과 같은 타동사에서는 *-가*를 결합시키면 비문이 된다. 그럼 자동사의 경우를 살펴보자.

(93) a. 여전히 쑥스러움이 *가시지*(를/가) 않는 듯 발그레 귀밑이 물들어 있었다.
b. 반쯤 남은 병을 바닥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를/가) 않았다.
c. 그가 차에 올랐는데도 앞의 차는 *움직이지*(를/가) 않았다.
d. 철은 사고가 난 후 한참이 지났는데도 차를 *움직이지*(를/*가) 않았다.
(94) a. 그는 부모님이 *계시지*(를/가) 않다.
b. 그는 통 집에 *있지*(를/*가) 않는다.

강명윤(1992)에서는 타동사이거나 비능격 동사일 경우에는 (92)에서처럼 *-가*를 붙이면 비문이 된다. 하지만 자동사의 경우에도 비대격성을 지닌 경우에는 -를이나 *-가* 모두 비문이 되지 않는다. (93a-b)가 그렇다. (93c-d)는 *움직이다* 동사의 예문인데, (93c)는 둘 다 되는 반면 (93d)는 *-가*의 경우에는 비문이다. (93c)와 (93d)의 차이는 비록 형태상으로는 동일한 동사이지만 (93c)는 비대격 술어로 사용되었고 (93d)는 타동사로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즉 (93c)의 *움직이다* 동사는 Perlmutter의 정의 (89)에서처럼, 수동자(Patient) 주어를 가지고 있어서 비대격 술어로 사용된 경우이다. 결국 장형 부정형 어미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모두는 아니지만 비대격성을 지닌 일부 자동사는 형용사와 동일한 통사 특성을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간과 빈도부사어 조사 교체에서는 장형 부정의 조사 교체와 마찬가지로 비대

격성 술어는 시간과 빈도 부사어에서 비대격 서술어는 -*를*과 -*가*가 교체된다.

(95) a. 마루에서 낡은 시계가 *열두 번(을/이) 친다.*
b. 익상이 선친의 대를 잇고도 그 일이 *두 번(을/이) 더 있었다.*
(96) a. 아마 엄마는 연거푸 *두 번(을/*이) 놀라게* 도리 것이다.
b. 청주에서 *하루(를/*가) 머무른* 다음 낭성면으로 첫길을 잡았다.

(95)과 (96) 모두 자동사의 예를 든 것이지만, (95)에서는 -*을*과 -*이*가 성립되는 것은 *친다*와 *있다*가 비대격 술어이기 때문이다. 또 (96)의 *놀라게*와 *머무른*은 논리주어를 취하는 비능격 술어이기 때문에 -*을*과만 결합된다.

유현경은 여기에서 형용사는 사건 서술이 아닌 대상의 상태나 속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형용사는 적용되지 않지만, 자동사의 경우 비대격성과 비능격성을 구분하여 설명한다. 이는 자동사의 비대격성을 강조하여 형용사가 비능격성을 지닌 자동사와는 다르지만 비대격성을 지닌 자동사와 통사적으로 동일한 특성을 보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연속동사(serial verb)에서도 형용사에 관한 것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오다*와 같은 자동사를 통해 비대격 자동사에 대해 설명한다. 연속동사는 (97-98)에서 보는 것처럼, 연속적으로 두 동사가 하나의 동사처럼 기능하고 있는 구성을 말한다. 연속동사를 구성할 때는 두 동사간의 연결 관계에 따라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인정하기도 한다(이동화 1993, 고광주 1994).

(97) a. 도둑이 (경찰에게) 맞아죽었다.
b. 괴성이 울려왔다.
c. *철수가 깨어달렸다.
d. *영자가 놀아쓰러졌다.
e. 간첩이 잡혀죽었다. (고광주, 1994)
(98) a. 맞다(대상역) + 죽다(대상역)
b. 울리다(대상역) + 오다(대상역)

c. *깨다(대상역) + 달리다(행동주역)

d. *놀다(행동주역) + 쓰러지다(대상역)

e. 잡히다(대상역) + 죽다(대상역)

(97a-b)는 비대격 동사의 결합의 예이다. (97a-b)에 사용된 연속동사의 논항구조는 (98a-b)에서 보는 것처럼, 동일한 논항을 요구하는 동사로 결합되어 있다. 동일한 논항구조가 아니면 비문이 되는 것은 (97c-d)의 예문과 그 구조를 보인 (98c-d)를 보고 알 수 있다. 하지만 (97e)는 (98e)에서 보는 것처럼 그 논항의 성격이 다름에도 비문이 아니다. 그 이유는 *잡히다*의 피동사와 *죽다*의 비대격 동사의 논항이 비록 그 성격은 달라도 그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연속 동사를 만드는데 기준이 되는 논항 구조는 비대격 서술어라는 범주를 특정화 시켜준다고 할 수 있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대격 서술어여도 동일한 논항구조를 지니지 않지만 연속 동사를 만드는 예가 있다. (99a)가 그렇다. *오다* 동사가 *뛰다*라는 비능격 동사와 결합하여 정문을 만들고 있다. 유현경(1998)에서는 이것에 대해 오다 동사가 대표적 비대격 술어이지만 비대격만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동일한 논항구조가 연속동사의 필요 기준이라고 설명한다.

(99) a. 아기가 (마당에서) *뛰어 왔다.*

b. 한번 젖혀 진 문은 다시 제자리로 *오지*(를/가) 않는다.

c. 이 남자는 다시는 *오지*(를/*가) 않으려는가 보다.

d. 군대엘 가면 일체 편지도 않고, 휴가도 *오지*(를/*가) 않으려 했다.

예를 들어, (99b)의 *오다*는 비대격 술어로 사용되며, -를이나 -*가*와 결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99c-d)에 사용된 *오다*는 *장형 부정형 교체*에서 비대격 자동사의 기준이 되었던 -*가*와 결합하여 비문을 만들다. 이 현상은 (99c-d)가 형태상으로는 동일한 *오다*를 사용하지만, (99b)의 *오다*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즉, (99c)에 사용된 *오다*는 비능격이고 (99d)에서는 타동사로 사용되어

(99b)와 다른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자동사의 비대격성은 명사구+용언으로 구성된 관용 표현에서 볼 수 있다고 한다. 즉 명사구에 *-가*를 붙일 수 있으면 대부분이 비대격 술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한 예는 (100)에서 볼 수 있다.

(100) a. 귀가 *보배다.*

b. 가슴이 *뿌듯하다.*

c. 손이 *닳다.*

d. 손을 내밀다.

e. 귀를 의심하다.

f. 가슴을 앓다.

(100a-c)는 (100d-f)와 대조적이다. 명사구+용언 구성의 관용 표현에서 외재논항은 서술어와 결합하여 관용표현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관용표현은 외재논항과 서술어 사이의 결합이 아니라 동사구 내의 명사구와 서술어 결합임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100a-c)를 보면, -가가 주격이지만 기저구조에서 동사구 내의 목적격처럼 기능하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비대격 서술어가 명사구와 더불어 관용표현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유현경(1998)에서 논의된 형용사의 통사적 특징은 일부 자동사와 동일 범주를 구성한다는 관점에서 서술되었다. 즉, 일부 자동사는 형용사와 같이 지닌 종결어미와 부사와의 결합, 그리고 상태적 질문에 대한 상태적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형용사의 통사적 특징을 문형에서 강조한 것이다. 이는 통사적 특징으로 형용사만의 종결어미가 존재한다는 것과 다른 품사와는 다르게 양태 부사와 어울린다는 점, 그리고 상태적 의미를 지닌다는 점이다. 또 일부 자동사가 비대격 술어로 활용된 예를 통해서 형용사는 통사적으로 비대격성을 지니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김정남(2003)에서는 유현경(1998)에서와는 반대로 형용사만의 특징과 형용사만의 범주를 상정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형용사가 단어라는 점과, 어미 활용을 한다는

점, 그리고 어미 활용을 하는 것 중에 형용사가 아닌 것도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세 가지 특징을 그는 *특별한 어미 활용을 하는 단어 부류*(김정남, 2003; p45)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밖의 통사론적 특성에 대해서는 오히려 형용사라는 범주로 내세우는데 부적합한 기준이며, 의미론적 특성은 혼란을 줄 여부가 있다고 언급한다.

그가 형용사의 첫 번째 특징으로 *단어*를 내세운 점은 남지순(1993)의 *이다* 형용사 때문이다. 김정남은 비록 *이다*가 붙는다고 하더라도 단어에 붙는 *이다*는 더 이상 단어가 아니라고 간주한다. 예를 들어, *신사이다, 적극적이다*와 같은 단어는 명사, *신사, 적극적*과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이들이 지닌 의미만을 부각시켜 형용사로 구분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그러므로 *이다*가 결합되어 형용사를 만들 수 있는 경우는 명사와 같은 단어보다 더 작은 형태소나 *이다*의 보족어가 될 수 없는 요소라야만 한다고 설명한다. 그에 합당한 예로 *그만이다*를 들고 있다. 이 점이 두 번째로 언급한 형용사의 어미활용에 관한 설명이다.

세 번째로 언급한 어미활용을 한다고 해서 모두 형용사는 아니라는 점에 대한 설명은 다시 남지순(1993)에서 예시한 예를 통해 설명한다. 남지순(1993)에서 *못생기다, 늙다, 닮다* 등의 예를 형용사로 분류하지만 이들은 형용사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이 단어들이 현재시제 평서형으로는 사용되지 못하고, 직설법 현재형인, *못생겼다, 늙었다, 닮았다* 등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예들은 원래 동사이며, 완료형에서 형용사의 의미를 드러낼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동사를 통해 형용사의 의미적 속성인 상태를 드러낼 때는 완료형만으로 표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김정남에서 형용사가 단어라는 점과 어미활용에 주의해야한다는 관점에서 다룬 형용사의 통사적 특징은 보족어를 활용한 기본 문형에 대한 것이다. 의존문법을 활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꼽는다. 하나는 의존 문법의 기본적 전제가 한국어 문법 기술에 유용하며, 둘째는 의존 문법을 활용하게 되면 이중 주어와 같은 구문에서 주어를 다른 보족어와 쉽게 구별해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한국어의 이중주어구문에서 나타나는 주어와 보격이 형태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그 성격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질이 필요하다. 그런데 의존문법에서는 서술어로부터 부여받는 의미역을 통해 설명하기 때문에 쉽게 기술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는 것

이다. 셋째는 한국어처럼 자유 어순 구문에서 보족어들이 서로 뒤섞여 있다하더라도 위계를 세우지 않고 대등하게 기술할 수 있는 점이라고 말한다.

보족어에는 필수적 보족어, 수의적 보족어로 구분된다. 필수적 보족어란 서술어가 요구하는 보족어로서, 없으면 비문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수의적 보족어란 서술어의 내용상 요구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없어도 비문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그렇다고 부사와 같은 수식어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수의적 보적어는 수식어를 의미하는 상황어와 구분되는 요소이다. 상황어란 말 그대로 서술어의 내용과는 상관없는 수식어를 지칭한다.

김정남(2003)에서 정의하는 한국어의 보족어 종류는 (101)에서 볼 수 있다.

(101) 국어 명사구 보족어의 명칭과 형태

a. 주격보족어: NP-은/는, NP-이/가

b. 보격(1격)보족어: NP-이/가

c. 무표보격(1격)보족어: NP-Ø

d. 대격보족어: NP-을/를

e. 여격보족어: NP-에/에게

f. 탈격보족어: NP-에서/에게서

g. 결과보족어: NP-(으)로

h. 상호보적어: NP-와/과

I. 비교보족어: NP-보다

(102) a. 나는 *10시에* 친구와 만났다.

b. 영희는 *예전에* 예뻤었다.

c. 철수는 영희와 *찻집에서* 만났다.

d. 영희는 *도서관에서* 공부한다.

e. 철수는 영희를 *아내로* 맞이했다. (김정남, 2003, pp144)

대개 한국어 주격은 *-이/가*를 상정하고 *-은/는*은 보조사로 분류하여왔다. 하지만 형용사 구문에서는 *-은/는*의 형태가 주어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101a-b)

에서 보는 것처럼, -*은/는*은 형용사 구문의 대표적 주격보족어로, -*이/가*는 보격보족어로 분류하였다. (101e)의 여격 보족어에서는 -*에*와 -*에게*가 전자는 무정체언뒤에 연결되고 후자는 유정체언 뒤에 연결된다는 것으로 구별된다. 이 때 (101a-b)에서처럼 상황어로 사용된 -*에*와는 구별된다. (101f)의 탈격보족어에서도 마찬가지다. -*에서*는 무정체언뒤에 -*에게서*는 유정체언뒤에 연결되는 형태이다. 이 경우에도 (102c-d)의 예에서 보여주는 장소의 -*에서*와는 구별된다. (102g)의 결과 보족어는 형용사의 의미적 속성, 즉 상태적 속성으로 인해 형용사구문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이다.

이들 보족어 중에서도 동일한 보족어가 경우에 따라서는 필수적으로, 또 어떤 경우에는 수의적으로 사용된다.

(103) a. 영희는 예쁘다.
b. 영희는 (얼굴이) 예쁘다.
c. 영희는 (순희보다) 예쁘다.
(104) a. 영희가 *철수보다* 낫다.
b. 영희가 *철수보다* (성적이) 낫다.
(105) 철수는 *순희가* 예쁘다.

(103)의 예문에서 예쁘다는 상태를 진술하는 형용사인데, (103b)나 (103c)에서처럼 다른 명사구가 나타난다하더라도 예쁘다는 여전히 동일한 상태를 표현해주고 있다. 오히려 (103b)의 *얼굴이*나 *순희보다*는 *예쁘다*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또 표현에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장을 비문법적으로 만들지는 않는다. 이와 같이 서술어의 내용에 참여를 하면서 문법성에 관여를 하지 않는 보족어를 수의적 보족어라고 한다. 이에 비해 (104a)의 *철수보다*는 (103)의 경우와는 다르게 나타나지 않으면 문장이 어색해진다. 따라서 이 경우는 필수적 보족어가 된다. (104a)의 *철수보다*는 형태상으로 동일한 (103c)의 *순희보다*와 구별이 된다. (104a)의 *철수보다*는 *낫다* 동사에 의해 비교 대상의 의미역을 받기 때문에 필수 보족어가 되어야 하지만, (103c)에서 *예쁘다*가 주는 대상 의미역은 *영희*는이 받고 있다.

또 (103b)와 (105)를 비교해보면, 동일한 *예쁘다* 서술어이지만 (103b)의 *얼굴이*는 생략 가능하지만 (105)의 *순희가*는 생략할 수 없다. 따라서 동일 형태의 서술어라 할지라도, 취하는 결합가에 따라 별개의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

상황어는 영어의 부사와 유사하다.

(106) 상황어의 개념

상황어란 서술어를 통해 진술되는 의미 내용과 관련된 시간이나 장소 등의 상황을 나타내기도 하고 양태, 물질의 양, 품질, 가격, 길이, 무게 등을 나타내기도 하는 성분으로서, 대체로 부사나 부사어로 나타나 문장 전체나 서술어의 수식 기능을 한다. (김정남, 2003, p160; 임국진, 1992)

(106)의 정의에서처럼 상황어는 주로 수식 기능을 하기 때문에 수의적 보족어와도 구분된다. 다음 (107)은 상황어의 예를 보여준다.

(107) a. 철수는 밥을 *빨리/천천히* 먹는다.

b. 사과가 값이 *백 원이* 내렸다.

(107a)의 *빨리/천천히*는 서술어인 *먹는다*를 수식하여 먹는 동작의 속도를 보여주고, (107b)의 *백 원이*는 사과 값이 얼마큼 내렸는지를 보여준다. 즉 전체 문장의 의미를 수식하여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상황어와 수의적 보족어의 차이점은 필수성, 이동 거리 자유성, 그리고 세 번째는 대치어이다. 필수성은 문장의 문법성을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하는가를 결정짓기 때문에 보족어와 상황어와의 구분이라기보다는 필수 보족어와 수의적 보족어와 상황어와의 구분이다. 예로 앞서 보았던 예문을 다시 보자면, (108a)의 철수보다는 생략되면 비문이 되지만 (108b)는 여전히 정문이다.

(108) a. 영희가 *철수보다* 낫다. (101a)

a′. *영희가 낫다.

b. 철수는 밥을 *빨리/천천히* 먹는다. (104a)

b′. 철수는 밥을 먹는다.

이동 거리 자유성은 (109)에서 볼 수 있다.

(109) a. ∗*머느리로* 철수는 영희를 삼았다.

b. ??철수는 *머느리로* 영희를 삼았다.

c. 철수는 영희를 *머느리로* 삼았다.

(109)에서 보듯이 *머느리로*라는 명사구는 서술어 *삼았다*가 요구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영영에서 멀어지면 비문이 된다. 이는 그 명사구가 보족어임을 설명해 준다. 수의적 보족어와 상황의 세 번째 차이점인 대치어의 경우는 독일어의 예를 통해 설명한다.

(110) a. Er legt das Buch auf den Tisch. (필수적 보족어)

a′. ∗Er legt das Buch, als er auf dem Tisch war.

b. Er steigt in die Straβ enbahn ein. (수의적 보적어)

b′. ⇍ Er steigt ein, als die Straβ enbahn da war.

c. Er arbeitet in Dresden. (상황어)

c′. Er arbeitete, als er in Dresden war.

(110)에서 설명하는 바는 필수 보족어의 경우에는 그 의미에 상당하는 절을 대치시키면 아예 비문이 되고, 수의적 보족어의 경우에는 비문이 되지는 않지만 각각 의미가 다름을 보여준다. 하지만 상황어의 경우에는 대치어를 활용하여도 정문이며, 게다가 의미도 동일하다는 것이다.

김정남(2003)에서 설명한 형용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보족어는 주격 보족어와 보격 보족어, 그리고 몇 개의 기타 보족어가 있다. 주격 보족어와 보격 보족어는 형용사 구문에서 주로 등장하는 주격 중출 구문에서 논해진다. 주격 중출 구문은

일반적으로 서술어는 하나이지만 형태상으로 주격 표지인 *-이/가*가 두 개인 구문을 말한다. 주격 중출 구문에 대한 논의는 형태적으로 주격 표지가 두 개이기 때문에 내부 주어를 가지는 서술절을 내포한 이중 주어라는 논의와 서술절보다는 주제와 주어라는 논의, 그리고 둘 중 하나는 여격으로 처리하는 논의 등이 대표적이다. 김정남(2003)에서는 한국어에서 주어는 반드시 존재하지만, *-이/가*가 무조건적으로 주격 표지가 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주어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이것은 곧 의존 문법에 의거하여 주격 중출 구문에서 하나는 주어이며 나머지 하나는 보격으로 처리하는 논의를 받아들여 설명한 것이다.

(111) a. 철수가 키가 크다.
b. [[철수가] [(키가) 크다]]
c. [철수가] [키가] [크다]
(112) a. 나는 호랑이가 무섭다.
b. [[나는] [호랑이가/*(호랑이가) 무섭다]]

(111a)와 같은 문장은 이중 주어 관점에서는 (111b)에서처럼 첫 번째 명사구가 주어가 되고 나머지는 서술절이 된다. 주제어 관점에서는 첫 번째 명사구는 주제가 되고 두 번째 명사구가 주어이다. 김정남(2003)에서는 이에 대해 의존 문법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명사구 모두 서술어인 *크다*의 보족어로 취급되며, 첫 번째 명사구인 *철수가*가 *크다*의 진술 내용의 대상이기 때문에 주어가 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두 번째 명사구인 *키가*는 그 진술 대상의 일부를 상세화한 것이기 때문에 보격 보족어라고 설명한다. 첫 번째 명사구가 주제라는 관점은 (112a)와 같이 첫 번째 명사구가 *-은/는*으로 시작하고 곧이어 두 번째 명사구가 *-이/가*으로 따라오는 구조를 말한다. 이에 대해서는 (112b)에서처럼 *나는*을 주제로 보고 서술어 *무섭다*에 대해 *호랑이가*가 주어가 되는 것은 내용과는 어긋난다고 설명한다. *호랑이*는 *무섭다*의 대상이지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첫 번째 명사구를 주제어로 보는 관점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어의 특이한 현상들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효과적이지만 단지 주제화 문장은 무표적인 문장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보

족어의 의미역을 고려하여 문장 구조를 해석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형용사구문의 주격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또 다른 한 가지는 일반 동사 구문과는 달리 주격 표지가 '-이/가' 보다는 '-은/는'이 더 일반화된 주격표지라는 점이다. 이는 (113)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3) a. 장미는 빨갛다.
b. 장미가 빨갛다.
c. 나는 장미가 빨갛다. (김정남, 2003; p194 (49))

(113a-b)에서 *장미*는이 무표적 주어이며, *장미가*는 강세가 동반되며 특별 의미가 더해진다고 보고 있다. (113c)의 경우는 대상에 대한 판단을 하는 형용사의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나*는은 판단자가 되고 *장미가*는 판단의 대상이 된다. 즉 *장미가*는 보격보족어가 된다. 결국 형용사구문에서는 주어로 등장하는 명사구는 '-은/는'과 결합하고 오히려 '-이/가'는 보격보족어의 표지로 등장한다.

형용사구문에 등장하는 여타의 보족어는 (114)과 같이 정리된다.

(114) a. NP-이/가, NP-Ø′
b. NP-에/에게
c. NP-와/과
d. NP-에서
e. NP-보다

(114a)는 (113c)에서 보듯 판단의 대상으로 사용되는 명사구에 결합되는 표지로 본다. 즉 보격보족어 표지이다. (114b)는 평가 형용사 구문에서 판단자나 판단 대상, 기준 등을 의미하는 명사구에 붙는 표지이며, 태도 형용사 구문에서는 수혜자 명사구로, 그리고 소재지나 분포의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구로 나타난다. (114c)는 상관적 형용사에서 비교 형용사에서 상대적 비교 대상을 의미하는 명사구의 보족어표지이다. (114d)는 *뛰어나다, 가깝다, 멀다* 등과 같이 특정 형용사 구문에서 나타나

는 것으로 평가 기준의 의미의 (114b)와 유사하다. 마지막으로 (114e)는 비교점을 보이는 보족어 표지이다. (114)에 대한 예는 (115)에서 볼 수 있다.

(115) a. 영희가 호랑이가 무섭다.
b. 인천은 서울에 가깝다.
c. 이것은 저것과 다르다.
d. 인천은 서울에서 가깝다.
e. 철수는 영수보다 낫다.

이와 같은 형용사의 보족어를 바탕으로 김정남(2003)에서 보이는 형용사 구문은 0가, 1가 그리고 2가의 보족어를 취하는 형용사구문으로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0가의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영어나 독일어에서 나타나는 비인칭 주어의 경우에는 단지 의미역이 불분명해서이지 통사적 주어는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한국어에서 (116)처럼 특정 상황이나 사태를 표현할 때 주어를 설정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국어의 서술어 중에 결합가가 0가인 서술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116) 불이야!

1가 형용사 문형에서는 2가지를 다룬다. 하나는 'NP-Ø A′이며 두 번째는 'NP-는 (NP-보다) (NP-이) A′이다. 이에 대한 형용사 예와 예문은 (115)에서 볼 수 있다. 첫 번째 문형은 무표보격보족어 하나만을 필수보족어로 갖는 경우이다. 이에 해당하는 구문은 '-이다'가 있다. 이들은 모두 하나의 보족어만을 요구한다고 본다. 이 때 의미는 '지시'라는 기능적 의미만을 갖는다. 두 번째에 해당하는 1가 문형의 형용사는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술한다.

(117)

1	문형	NP-Ø A
	형용사 예	이다
	예문	a. 항공모함이다! b. 커피 ((두잔)) 이요.
2	문형	NP-는 (NP-보다) (NP-이) A
	형용사 예	넓다, 쓰다, 싸다, 크다, 밝다, 예쁘다, 좋다, 두껍다, 얇다, 씩씩하다, 쓸쓸하다, 우울하다, 아담하다, 가늘다, 가냘프다, 수상하다, 서글프다, 순박하다, 서늘하다, 숭고하다, 왕성하다, 가능하다, 가파르다, 인색하다, 이롭다, 너그럽다, 흡족하다, 아프다, ...
	예문	a. 소태는 (약보다) (맛이) 쓰다. b. 축구공은 (야구보다) (크기가) 크다.

2가 형용사 문형에는 7가지로 나뉜다. 2가 형용사 문형과 그에 대한 형용사 예, 그리고 예문은 (118)에서 볼 수 있다.

(118)

1	문형	NP-는 (NP-보다) NP-Ø A
	형용사 예	이다, 같다, 답다
	예문	a. 영희는 참으로 많이 배운 사람답다. b. 철수는 결혼한 남자 답다
2	문형	NP-는 (NP-보다) NP-이 A
	형용사 예	아니다, 있다, 없다, 많다, 틀림없다, 분명하다, 간지럽다, 고프다, 아프다, ...
	예문	a. 철수는 (그 누구보다) 학식이 있다. b. 나는 발등이 간지럽다.
3	문형	NP-는 NP-이 (NP-이) (NP-보다) A
	형용사 예	좋다, 싫다, 예쁘다, 가엾다, 불쌍하다, 슬프다, 피곤하다, 무섭다, 귀엽다, 크다, 가파르다, 수상하다, 가늘다, 그립다, 부럽다, 같잖다, ...
	예문	a. 나는 영희가 (항상 웃는 것이) (철수보다) 좋다. b. 나는 장미가 (색깔이) (백합보다) 예쁘다.
4	문형	NP-는 (NP-보다) NP-에/에게 A
	형용사 예	가깝다, 밝다, 어둡다, 좋다, 뛰어나다, 세심하다, 가득하다, 서운하다,

		인색하다, 너그럽다, 이롭다, 익숙하다, 소홀하다, 용이하다, 자상하다, 만족스럽다, 알맞다, 흡족하다, ...
	예문	a. 이 일은 (저 일보다) 기적에 가깝다. b. 그는 (영희보다) 출판 일에 밝다.
5	문형	NP-는 (NP-보다) NP_에서/에게서 A
	형용사 예	멀다, 가깝다, 뛰어나다, ...
	예문	a. 그 결과는 (기대보다) 우리 목표에서 멀다. b. 철수는 계산 기능 면에서 뛰어나다.
6	문형	NP-는 NP-보다 (NP-이) A
	형용사 예	낫다, 덜하다, 못하다, 열등하다, 우수하다, ...
	예문	a. 형은 동생보다 (성적이) 낫다. b. 디 책은 저 책보다 (두께가) 더 두껍다.
7	문형	NP-는 (NP-보다) NP-와 (NP-이) A
	형용사 예	비슷하다, 같다, 다르다, 멀다, 가깝다, ...
	예문	a. 철수는 (영수보다) 영희와 (실력이) 어금버금하다. b. 진달래는 (달래보다) 철쭉과 (꽃모양이) 비슷하다.

2가 형용사 문형의 첫 번째는 1가 형용사 문형의 첫 번째와 통사적으로 유사하다. 하지만 1가 형용사의 경우 객관적으로 서술한 경우인 반면, 2가 형용사의 경우에는 판단자의 주관적 설명이 개입된다는 점이다. 2가 문형의 첫 번째는 두 번째 문형과 두 번째 명사구가 무표적이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세 번째 문형은 판단/평가의 형용사가 이에 해당한다. 네 번째 문형에서는 첫 번째 명사구가 *대상*의 의미역을 지니고, 두 번째 명사구는 *기준*의 의미역을 지닌다. 여섯 번째 문형은 두 번째 문형과 유사하지만 *NP-보다* 명사구가 필수적 보족어라는 점이 다르다. 일곱 번째 문형에서도 *NP-보다* 명사구가 나타나지만 필수 보족어가 아니라는 점이 여섯 번째 문형과 차이가 있다.

김정남(2003)에서는 유현경(1998)과는 달리 형용사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문형을 논하였다. 통사적 특징으로 유현경에서는 비대격성을 비롯한 형용사의 역할에 중점을 두었다면, 여기에서는 문장 전체를 통틀어 형용사가 나타날 수 있는 형태를 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2.2 의미적 특징

영어 형용사의 의미적 특징을 다루면서 어순과 관련하여 논의하였었다. 어순(word order)을 통해 의미적 하위 범주가 구성되었기 때문이었다. 한국 형용사의 경우는 어순을 통해 다루지는 않지만 마찬가지로 의미적 하위범주를 구성한다. 여기에서도 의미적 하위범주를 분류하기 위해 많은 기준들이 내세워져왔고 그 만큼 다양한 범주들이 구성되기는 했다. 그 중에 가장 주를 이루어 논의된 내용은 형용사 어휘들을 주관적 형용사와 객관적 형용사로 나누고 그 범주를 또 다시 하위분류하는 방식이다. 이 외에도 개별적 범주를 대상으로 논의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심리형용사나 색채형용사 등 하나의 하위범주에만 초점을 두고 논의하는 경우이다.

주관적 형용사와 객관적 형용사의 분류는 영어 형용사에서처럼 화자의 주관성과 중심 명사의 객관성을 판별하는 기준이 되어왔다. 비록 영어 형용사에서 의미적 하위범주화를 위한 논의가 형용사의 수식어 기능에 한정을 두고 이루어지는 반면 한국어 형용사에서는 서술어라는 기능에 한정되어 설명되지만, 형용사라는 어휘만을 독립적으로 두고 논하지는 않았다. 이것은 아마도 형용사의 특징이 명사처럼 지시어(index reference)의 기능이 아니라 오히려 주어진 대상에 대해 수식하고 기술하는 역할이기 때문인 것 같다. 즉 동일한 의미의 형용사일지라도 주어진 대상에 따라 그 성격을 달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 때문에, 영어에서는 피수식어 명사와 관련하여 하위범주를 구성하였다면, 한국어에서는 서술어라는 입장 때문에 문장에 나타나는 논항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하위범주를 구성하는 것 같다.

앞 절에서 살펴 본 것처럼, 한국어 형용사가 서술어라는 점에서는 동사와 같은 범주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한국어 형용사를 서술어의 역할을 중심으로 논항에 끼치는 의미역 입장에서 분류를 하게 된다. 이와는 달리 동사와 동일 범주로 보기보다는 형용사만의 특성을 주장하는 논의에서는 문장에 등장하는 논항들과의 관계를 살펴서 분류하게 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형용사가 서술어로서 끼치는 의미역을 중심으로 분류하는 주관적/객관적 논의와 동사와 구별된 품사로서 문

장에 등장하는 논항들의 관계를 살펴 분류하는 비상관적 그리고 상관적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유현경(1998)은 형용사를 주관적 형용사와 객관적 형용사로 나누는 논의를 다룬다. 그리고 이들은 다시 각각 세 종류와 일곱 종류의 하위범주로 분류한다. 이런 분류 기준으로 주어가 지니는 의미역과 인칭 제약, 그리고 문장구조 형태를 활용하는데, 이는 객관 형용사와 주관 형용사의 교차 현상 때문이다. 즉 유현경에서는 2500개의 형용사 자료를 사용하였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86%의 객관적 형용사이며, 주관적 형용사는 13.5%였다. 하지만 객관 형용사가 중심 명사의 속성을 드러낸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판단이 가해지면, 중심 명사의 구체적 속성을 드러내는 객관적 형용사는 그 객관성으로부터 멀어졌다. 예를 들어 (119)에서, (119a)의 형용사 *싱거운*은 대개 객관적 형용사로 분류되지만, (119b)의 *싱거운*은 주관적으로 사용되어 버린다.

(119) a. 아이들은 밥을 숭늉이나 *싱거운* 국물에 말아 먹는다.
b. 나는 막걸 리가 너무 *싱겁고* 밍근했다.

따라서 주관 형용사와 객관 형용사의 교차 현상을 구별하여줄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한데, 유현경은 주어가 지니는 의미역과 인칭 제약, 그리고 문장구조 형태를 활용한 것이다.

유현경(1998)에서 분류한 주관 형용사는 주어의 심리적이고 내적인 경험을 서술하는 형용사로 심리, 정서, 판단 형용사를 포함한다. 객관 형용사는 주어의 상태와 속성을 서술하는 범주로는 상태나 자질, 교차 장소, 대조, 기준, 소유, 가능성, 측정, 그리고 태도 등을 포함시켰다[9]. 그리고 이 논의를 위해 의미역과 문형을 활용하는데, 본문에서는 이 문형을 *격틀*이라고 언급한다. 또 격틀은 서술어가 가지는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구조를 형식화한 것이기 때문에, 서술어가 가지는 격틀은 동사 뿐 아니라 형용사에 있어서도 유형 분류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말한다. 의미

9) 형용사 분류표는 부록 1 참조.

역에 대해서는 서술어의 *격틀*이 유사할 때 서술어가 가지는 논항의 의미역이 이를 변별해주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설명한다(Jackendoff, 1972). 의미역은 각 서술어에 표기되는 기본 속성이기 때문이다. 즉 의미역이 제시되면, 주어 여타의 통사적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의미역은 주어의 인칭 제약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형용사는 동사와 달리 자신의 논항에 행동주(agent)의 의미역을 줄 수 없는 비대격 논항구조를 갖기 때문이다. 이는 곧 서술구조에서는 주어에 경험주(experiencer)나 대상(Theme), 혹은 처소(Location)역을 주게 된다는 의미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역이 주관 형용사와 객관 형용사의 서술적 구조 차이를 만든다. 유현경에서는 그 구조적 차이로 주관 형용사의 경우엔 주어에 경험주역을 할당하고, 객관 형용사의 경우엔 주어에 대상역이나 처소역을 할당한다고 설명한다. 또 주관 형용사의 경우, 주어의 의미역이 경험주일 때는 평서문에서는 주어와 화자가 일치하고 의문문에서는 주어와 청자가 일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반면 객관 형용사에서는 주어가 대상이나 처소역이기 때문에 주어로 등장하는 대상에 대해 서술하게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객관적 사실을 서술할 경우에는 화자의 판단이 개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동작을 표현하는 동사처럼 객관적 서술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 형용사의 경우에도 완벽한 객관성을 표현한다기 보다는 객관성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다음 (120)을 보자.

(120) a. 나는 어려서부터 물이 *무서웠다.*

b. (*나는) *무서운* 마약에 젖는 사람이 시일이 갈수록 늘어만 갔다.

(121) a. 아이들은 밥을 숭늉이나 *싱거운* 국물에 말아먹기 예사이다.

b. 나는 막걸리가 너무 *싱겁고* 밍근했다.

(120b)의 경우에 형용사 *무서운*은 경험주 의미역을 할당하지 않기 때문에 객관성이 강하지만, (120a)의 경우엔 *나*라는 경험주가 존재한다. 따라서 (120a)의 형용사는 주관 형용사이다. 반대로 (121)에서 보여주는 바, 객관 형용사가 주관 형용사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여전히 (121a)에서 *싱거운*은 대상역만을 할당하고 (121b)는 *나*에

게 경험주를 할당하여, 전자는 객관 형용사로 후자는 주관 형용사로 사용된다.

주관 형용사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심리나 감각, 또는 판단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122) a. 나(는/에게는) 기수의 말이 *믿음직스러웠다.*

b. 나(는/에게는) 남자를 태우고 운전하기가 퍽 *거북스러웠다.*

(123) a. 그녀(는/*에게는) 숨이 *가빴는지* 골목어귀의 전신주에 기대 서 있었다.

b. 나(는/*에게는) 피가 말라붙은 입 언저리가 *거북했다.*

(124) a. 나(는/*에게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 드는 돈이라면 기꺼이 써도 *괜찮다.*

b. 나(는/*에게는) 그가 대답하지 않아도 *좋았다.*

(122)-(124)는 순서대로 심리와 감각, 그리고 판단의 형용사 예이다. 이들 세 유형 모두 주어에 경험주역을 갖는다. 심리형용사는 특정한 대상에 대한 주어의 심리를 서술하며, 그 하위 범주로 대상 심리와 원인 심리형용사로 나뉜다. (122)에서 보듯이, (122a)처럼 특정 대상에 대해 주어의 심리 상태를 서술하는 경우가 대상 심리형용사이고, (122b)처럼 어떤 일이 원인이 되는 내용 절이 주어의 심리 상태를 서술하게 되면 원인 심리형용사이다. (123)의 감각 형용사의 경우는 두 번째 명사구 자리에 거의 경험주의 신체의 일부분이 온다. (124)의 판단 형용사의 경우는 주어 다음에 주어의 판단이 되는 양보 의미의 부사절이 온다.

이들 주관 형용사의 특징은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하나는 주관 형용사가 부여하는 경험주는 항상 [+human/animate]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주체가 경험주이기 때문에 평서문의 경우엔 화자와 동일하며, 의문문의 경우엔 청자와 동일해야 한다는 점이다. 결국 주어의 [+human/animate] 자질은 객관 형용사 구문과 주관 형용사 구문을 변별해 준다. (125-126)를 보자.

(125) a. 저는 현식 아버지가 어머님께 지극히 *효성스러운* 데 탄복했습니다.

b. 다리를 놓아준 일곱 아들의 행동은 *효성스러운* 것이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

는 불효한 일이기도 했다.

(126) a. 혜영은 여인의 그 말이 *송구스러웠나* 보다.

b. {*혜영의 마음은, *혜영의 성격은, *혜영의 행동은} 여인이 그 말이 *송구스러웠나* 보다.

(125)에서 *효성스러운*은 성상을 나타내는 객관형용사이지만 (125a)처럼 주관형용사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 때 (125a)의 주관성을 주어가 지닌 [+human/animate] 자질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또 (125b)의 객관성은 주어의 [-human/animate] 자질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주관 형용사로만 사용된 경우에도 이러한 자질의 특성이 적용된다. 즉 *송구스럽다* 형용사는 주관적으로만 사용된 경우여서, (126a)의 경우엔 주어의 [+human/animate] 자질을 통해 주관적 형용사로 쓰임을 설명할 수 있고, 이와 반면에 (126b)의 경우엔 주어에 있는 [-human/animate] 자질을 통해 비문임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인칭 제약의 경우 역시 주관 형용사 구문과 객관 형용사 구문을 구별해 준다.

(127) a. {나는, *너는, *그는} 풀이 죽어 있는 그가 *측은하고 밉다*.

b. {나는, *너는, *그는} 그런 괴물 나오는 영화를 보면 속이 *메스껍다*.

c. {*나는, 너는, *그는} 풀이 죽어 있는 그가 *측은하고 밉니*?

d. {*나는, 너는, *그는} 그런 괴물 나오는 영화를 보면 속이 *메스껍니*?

(127a-b)는 서술어의 화자가 주어와 동일하고, (127c-d)는 주어가 청자와 동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모두 비문이다. 단지 구문 내용이 추측을 표현한다거나 시점이 달라지는 경우엔 예외로 논한다. (128)의 예가 그러하다.

(128) a. 그도 이런 곳에 와서 아이들이나 가르치면서 살아도 *무방하겠다*는 감상 같은 것을 느껴 보기도 했다.

b. 그는 내가 아무리 화를 내어도 *상관없는 모양이었다*.

(128a)는 평서문이므로 서술어의 화자는 주어와 동일해야 한다. 하지만 주어인 *그*와 화자는 동일하지 않다. 3인칭 시점에서 표현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 (128b)는 추측을 나타내는 예이다. 따라서 화자인 *나*와 주어인 *그*가 다르지만 문장은 비문 처리가 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특징, [+human/animate] 자질과 인칭 제약을 가지고 주관 형용사와 객관 형용사의 문형 구조는 다음 (129)-(130)에서처럼 정리된다. 각 격틀에 제시된 형용사는 목적어를 제외한 논항을 취하며, 종류에 따라 필수적 논항, 수의적 논항, 그리고 부가어로 나누어 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서술어와 관계없는 완전히 수의적인 성분들은 부가어로 보고 격틀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필수적 논항은 수의적 논항과 마찬가지로 서술어에서 의미역을 받는다.

(129)

주관형용사	심리형용사	대상 심리형용사	NP1-가 NP2-가 Adj (NP: 명사구 Adj: 형용사) 나는 집에 혼자 남아있기가 *무서웠다.*
		원인 심리형용사	NP1-가 (NP2-가) Adj 나는 그가 한국을 떠난다는 사실이 *섭섭하였다.*
	감각형용사	NP1-가 (NP2-가) Adj 아버지께서 바다 가까이 산보를 나가셨는데 *추우시겠어요.*	
	판단형용사	NP-가 AdvP Adj (AdvP: '-어도/아도' 등의 양보의 의미를 가진 부사절) 사용하기 편하기만 하면 아무리 볼품이 없어도 *관계없다.*	

(130)

객관형용사	성상형용사	NP-가 Adj 이모네 아랫목은 알맞게 *따뜻하고*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다.	
	장소교차형용사	(NP1-에) NP2-가 Adj / NP1-가 NP2-로 Adj 충권 씨 집으로 들어가니 안방 툇마루 앞에 벌써 신발이 *그득하다.* / 충권 씨 집으로 들어가니 안방 툇마루 앞이 벌써 신발로 *그득하다.*	
		유사장소교차형용사	(NP1-에) NP2-가 Adj/ NP1-가 (NP2-

			로) Adj (방 안에) 담배연기가 *뽀얗다.* 방 안이 (답배연기로) *뽀얗다.*
객관형용사	대칭형용사	비교대칭	NP1-가 NP2-와 (NP3-이) Adj NP1-와 NP2-가 (NP3-이) Adj NPpl-가 (NP3-이) Adj (NPpl: 복수명사) 최북단 성벽이 오늘날의 북쪽 성벽과/이 (재질이) *같은* 것이라면, 세 개의 동굴들은 동일한 동굴이라고 볼 수 있다. / 그것들이 (재질이) *같은* 것이라면, 세 개의 동굴들은 동일한 동굴이라고 볼 수 있다.
		상호대칭	NP1-가 NP2-와 Adj NP1-와 NP2-가 Adj NPpl-가 Adj (NPpl: 복수명사) 그가 김선생과/이 *친했던* 것도 두 사람의 취미가 비슷했기 때문일 것이다. / 그들이 *친했던* 것도 두 사람의 취미가 비슷했기 때문일 것이다.
	기준형용사	비교기준	NP1-가 NP2-에/보다 Adj 수임의 모습은 천주 앞에서 시중을 들고 있는 천사의 모습에 *다름없었다.*
		조건기준	NP-가 [C-기]-에 Adj (C: 절) 에너지는 물질에 나타나는 작용 효과로서만 관찰되기 때문에 다루기에 *어려운* 대상이다.
	소유형용사	NP1-에 NP2-가 Adj 아내에게 몸살 기운이 *있어서* 혼자 길을 나선 길이었다	
	소재형용사	(NP1-에) NP2-가 Adj 학교 후문쪽에 과수원이 *있었고* 학교 아이들은 그 과수원 철망을 뚫고 수시로 과일을 따냈다.	
	가능형용사	NP1-가 NP2-에 Adj	

		학문적 태도와 친구의 도리에 모두 *철저했던* 두 나라 선비들이 학자적 태도가 여기서 돋보인다.
	대응형용사	NP1-가 (NP2-에) Adj 담배는 건강에 *해로우니* 흡연은 삼갑시다.
	태도형용사	[C-것/음/기]-가 Adj (C:절) 그가 어느 산사에 있는 것이 *확실했다.*

앞서 살펴 본 유현경(1998)의 논의와는 달리 김정남(2003)에서는 형용사의 서술성 보다는 형용사를 독립적 범주를 강조한 논의이다. 그러나 어휘만을 독립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 그 이유로 실제 구문에 입각하여 형용사가 주관적 혹은 객관적으로 활용되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더 유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로 인해 등장한 개념이 비상관적 그리고 상관적 형용사이다. 이 때 비상관적 형용사는 그 대상만을 고려하고 다른 대상과의 관련성은 배제한 것을 의미하고, 상관적 형용사는 다른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기술하는 형용사를 의미한다.

비상관적 형용사와 상관적 형용사는 의미적으로는 외부 대상들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지만, 통사적으로는 자신들이 취하는 논항 수로도 변별된다[10]. 비상관적 형용사는 대개 1가 형용사이지만 2가인 경우에는 그 두 개의 명사구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131) a. 소금은 짜다.
b. 소금은 맛이 짜다.
c. 나는 이 국이 짜다.

(131)에서 (131a-b)는 비상관적으로 활용된 것이며, (131c)는 상관적으로 활용된 예이다. (131b)는 *짜다*가 비록 두개의 명사구를 취하고 있지만 *소금은*과 *맛이*의 관계는 *소금의 맛*으로, 두 번째 명사구인 *맛이*는 없어도 비문이 되지 않는 수의적 보족

10) 여기에서 언급되는 논항이나 보족어 개념은 2.2.1의 김정남(2003)의 통사적 특징을 참조.

어가 된다. 이에 반해 (131c)에서는 두 개의 명사구가 서로 별개로 표현된다. 이러한 논항 수는 비상관적 형용사와 상관적 형용사의 개별성을 설명해주기도 한다. (132)의 예가 그렇다.

(132) a. 나는 심심하다.
b. *나는 철수가 심심하다.
c. *나는 철수와 심심하다.

(132)에서 보는 것처럼, *심심하다*형용사는 비상관적 형용사로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김정남(2003)의 비상관적 형용사와 상관적 형용사는 (133)과 (134)에서처럼 정리된다(김정남, 2003; p111-112).

(133) 비상관적 형용사

<table>
<tr><td rowspan="8">비상관적</td><td>정서</td><td colspan="2">심심하다, 외롭다, 홀가분하다, 서글프다, 쓸쓸하다, 애틋하다, 슬프다①, 기쁘다①, 즐겁다①, 따분하다①, 초조하다①, 뿌듯하다①</td></tr>
<tr><td>감각</td><td colspan="2">기쁘다, 고프다, 나른하다, 거북하다, 따갑다, 아프다, 답답하다①, 어지럽다, 춥다①, 덥다①, 시리다, 시끄럽다①</td></tr>
<tr><td rowspan="3">성질</td><td>유정물</td><td>다부지다, 대범하다①, 솔직하다①, 야무지다, 똑똑하다, 영리하다①, 지혜롭다①, 느긋하다, 얌전하다①, 엉뚱하다, 한심하다, 훌륭하다, 명랑하다①, 냉담하다①, 모질다①, 단호하다①</td></tr>
<tr><td>무정물</td><td>고소하다①, 느끼하다①, 덥다②, 춥다②, 무덥다, 험하다, 향기롭다①, 다채롭다, 맵다①, 쓰다①, 매끄럽다①, 심하다①, 색채형용사류</td></tr>
<tr><td>공통</td><td>거칠다①, 엄격하다, 빠르다, 느리다, 차다①, 뜨겁다①, 짜다①, 싱겁다①, 무섭다①, 깔끔하다, 더럽다①, 딱딱하다①, 쌀쌀하다①, 강하다, 메섭다, 수수하다, 활발하다, 한가롭다, 훈훈하다, 끈질기다</td></tr>
<tr><td rowspan="2">형상</td><td>유정물</td><td>뚱뚱하다, 날씬하다, 우아하다, 아름답다, 가냘프다</td></tr>
<tr><td>무정물</td><td>두툼하다①, 얄팍하다①, 막대하다①, 굵다①, 길다①, 깊다①, 밝다①, 또렷하다①, 거칠다①, 광활하다, 굉장하다, 웅대</td></tr>
</table>

			하다, 웅장하다, 뾰족하다
		공통	튼튼하다①, 크다①, 작다①, 넓다, 큼직하다, 특이하다, 반듯하다
	빈도	뜸하다, 드물다, 잦다, 빈번하다, 촉박하다	
	수량	수많다, 수없다, 숱하다, 없다①, 한량없다①	
	기타 상태	에매하다, 암담하다, 썰렁하다, 아늑하다, 고고하다, 고요하다, 적막하다, 잠잠하다, 음산하다, 살벌하다, 암울하다, 안락하다①, 경이롭다①, 새롭다, 자유롭다①, 방만하다, 엄숙하다, 싸늘하다, 광활하다, 넉넉하다	

(134) 상관적 형용사

상관적	평가	정서적	무섭다, 기막히다, 섬뜩하다, 좋다, 싫다, 고통스럽다, 대절하다, 섭섭하다, 그립다, 재미있다, 용감스럽다, 만족스럽다, 밉다, 부럽다, 막막하다, 곤란하다, 난감하다, 난처하다, 아쉽다, 우습다, 더럽다, 안타깝다, 통쾌하다, 후련하다, 두렵다, 즐겁다②, 슬프다②, 기쁘다②, 따분하다②, 답답하다②, 초조하다②, 거북하다②, 따갑다②, 뿌듯하다②, 안락하다②, 고소하다②	
		감각적	뜨겁다②, 맛있다②, 맵다②, 짜다②, 싱겁다②, 차다②, 뜨겁다②, 시다②, 무겁다②, 고소하다②, 느끼하다②, 향기롭다②, 딱딱하다②, 매끄럽다②, 시끄럽다②, 뚱뚱하다②, 날씬하다②, 두툼하다②, 막대하다②, 굵다②, 길다②, 깊다②, 밝다②, 또렷하다②, 든든하다②, 크다②, 작다②, 씁쓸하다②, 쓰다②, 색채 형용사류	
		이지적	판단자 중심	대견하다, 만만하다, 가소롭다, 대수롭다, 아리송하다, 알쏭달쏭하다, 기묘하다, 애처롭다, 흥미롭다, 구슬프다②, 경이롭다②, 이상하다, 어렵다
			분야 중심	근사하다, 비근하다, 고유하다, 능하다, 월등하다, 능숙하다, 긴요하다, 합당하다, 맞다, 알맞다, 영리하다②, 지혜롭다②, 적당하다, 적절하다, 마땅하다, 익숙하다, 서툴다, 강하다, 과분하다, 과중하다, 과도하다, 과다하다, 가깝다, 뛰어나다, 멀다, 남다르다, 탁월하다, 필요하다,

				생소하다, 괜찮다, 특유하다, 이롭다, 유리하다, 어설프다, 자유롭다②
	태도	긍정적	각별하다, 공정하다, 공평하다, 엄하다, 겸손하다, 성실하다, 관대하다, 다정하다, 자상하다, 친절하다, 명랑하다, 열렬하다, 얌전하다②, 솔직하다②	
		부정적	각박하다, 강경하다, 거칠다③, 건방지다, 소홀하다, 까다롭다, 쌀쌀하다②, 냉담하다②, 냉정하다②, 단호하다②, 잔인하다②, 인색하다②, 모질다②, 심하다②	
		중립적	공공연하다, 담담하다, 당당하다, 대범하다②, 엄격하다②	
	소재	있다①, 없다②		
	소유	있다②, 없다③		
	분포	가득하다, 수북하다, 많다, 자욱하다, 허다하다, 즐비하다, 충만하다, 빽빽하다, 성기다, 빠듯하다, 무성하다, 충분하다, 불충분하다		
	비교	대칭	같다①, 다르다, 다름없다, 멀다, 가깝다, 친하다, 똑같다, 흡사하다, 유사하다, 밀접하다, 비슷하다	
		비대칭	열악하다, 낫다, 월등하다, 우세하다, 수월하다	
	지정	이다, 아니다, 같다②, 답다, 틀림없다, 분명하다, 옳다, 그지없다, 한량없다②		

(133)-(134)의 형용사 분류표는 형용사의 의미를 중심으로 분류한 것들과 차이를 둔다. 이 분류표는 어휘의 의미보다는 그 의미가 존재하는 이유, 즉 주변 대상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분류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34)의 상관적 형용사 분류표에서 지정에 해당하는 틀림없다, 분명하다 류의 형용사는 양태를 표현하기는 하지만 김정남(2003)에서는 두 대상을 연결한다는 기능적인 측면을 더 중시하여 이것들을 지정 형용사로 분류하였다. 또 존재형용사의 경우, 비상관적 형용사에 속하는 수량, 빈도, 유무의 개념과 상관적 형용사의 소재, 소유, 분포에 해당하는 형용사를 모두 존재형용사로 분류하였다. 이유는 존재의 의미를 어떤 대상이 상대적인 기준, 즉 다른 대상이나 장면, 장소 등과의 관련 속에서 존재하는 지 판단하여 구분하려고 했기 때문이다(김정남, 2003;p110).

하지만 비상관적 형용사는 다른 대상과 관련하지 않고 개별적인 속성을 드러낸다고 하더라도 상관적 형용사는 주변 대상과의 상관성을 통해 표현되기 때문에, 이들 형용사가 실제로 사용될 때는, 주관적 판단성, 인칭 제약, 그리고 정도성이라는

특성과 제약이 있다고 설명한다.

주관적 판단성은 판단자의 출현이다.

(135) a. 장미는 *화려하다.*

b. 나는 장미가 *화려하지* 않다.

(136) a. 제1 유형 NP1-는 (NP2-이) A

b. 제2 유형 NP1-는 NP2-이 A

(137) a. *나는 철수가 학교에 *간다.*

b. 나는 철수가 학교에 간다고 생각한다.

c. 나는 영희가 *예쁘다.*

(135)은 동일한 형용사가 서술어로 사용된 구문인데, (135a)는 비상관적 형용사로 사용된 것이고 (135b)는 상관적 형용사로 활용된 경우이다. 즉 비상관적 형용사는 서술하려는 대상만의 속성을 표현한 것이어서, *장미*가 화려하다는 속성을 표출한 것이다. 이에 반해 (135b)에서는 *장미*가 화려하지만 *나*라는 대상과 관련해서는 화려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상관적 형용사의 문형은 비상관적 형용사와는 달리 서술하려는 대상 외에도 다른 대상이 요구가 된다. (136)에서 보여주는 유형이 그러하다. 비상관적 형용사는 (136a)과 같이 대상만이 필수적 보족어가 되지만, 상관적 형용사는 (136b)와 같이 판단자에 해당하는 명사구가 요구된다.

(136b)처럼 판단자가 필요한 이유는 대개의 형용사구문은 *어떤 대상에 대하여 누가 판단한 내용을 진술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김정남, 2003;p.121). 이는 (137)을 통해 더 잘 알 수 있다. (137a)의 동사 구문에서는 동작의 주체가 주어로 나타나야 한다. 따라서 동작의 주체가 제대로 드러나려면 (137b)처럼 서술되어야 한다. 이에 비해 (137c)의 형용사 구문에서는 주어로 사용된 명사구가 주어진 대상인 *영희*에 대해 형용사를 이용해 예쁘다고 *그려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굳이 *나*라는 판단자에 대한 또 다른 서술어가 필요하지 않다. 이는 상관적 형용사의 문형에서는 동사구문과는 다르게 (136b)처럼 *대상*을 표현하는 명사구 외에 *판단자*라는 명사구가 보족어로 등장할 수 있고, 또 비상관적 형용사구문과 구분되기 위해서는 필수적

으로 나타나야 함을 보여준다.

두 번째로 *인칭 제약성*은 유현경(1998)에서는 주관적 형용사의 서술문에서 주어는 경험주의 의미역을 받아 1인칭으로 표현되고, 의문문에서는 청자, 즉 2인칭 주어가 주어로 표현된다고 하였다. 김정남(2003)에서는 이러한 인칭 제약은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그러한 부류의 표현들이 많아서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지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동사구문은 그 동작의 주체가 주어로 나타나며, 그 행위를 진술하는 인칭이 1인칭인 *나*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형용사구문에서는 주로 주어로 등장하는 1인칭 *나*는 그 서술 내용을 판단하며 진술하는 인칭이라고 설명한다. 인칭에 대한 동사구문과 형용사구문의 차이점은 동사구문에서 진술자이자 판단자인 *나*가 동작의 주체와 다를 경우 문장에 표현되지 않는 반면, 형용사구문에서는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리고 *진술자*는 동사구문에서도 형용사구문에서도 나타나지 않는다. 즉 동사구문과 형용사구문의 차이점을 간단히 말해보자면, *판단자*가 문장에 표현되느냐라는 것이다.

(138) a. 공을 찬다.
a′. 나는 공을 찬다.
a′′. 철수는 공을 찬다.
b. 장미가 예쁘다.
b′. 나는 장미가 예쁘다.
b′′. 철수는 장미가 예쁘다.

(138)에서, (138a)의 동사구문에서 주어가 생략된 경우는 동작의 주체가 진술자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138a′)와 같다. 하지만 (138a′′)에서는 진술자인 *나*와 행위자 주체인 *철수*가 다르기 때문에 *나*와 *철수*가 동시에 나올 수 없고, 행위자인 *철수*만 등장한다. 형용사구문에서는 진술자와 판단자가 동일하면 서술 대상 주어와 상관없이 표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138b)에서는 진술자이자 판단자인 *나*가 생략된 경우이지만, 이 경우 진술자와 판단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135b′)처럼 *나*를 표현할 수 있다. 반면, (138b′′)에서처럼 진술자와 판단자가 다르면 *나*는 표현되지 못

하고 판단자인 *철수*만 표현된다.

세 번째로 정도성은 형용사의 의미적 특성이다. 김정남(2003)에서는 형용사가 사용될 때, 특히 비교구문에서는 형용사의 [+정도성] 자질이 나타난다고 말한다. 또 정인수(1994)의 형용사의 정도성에 대해, 정도성 제한이 있는 형용사와 제한이 없는 형용사, 그리고 부분적인 제한이 있는 형용사 집합이 있다는 설명에 반대하여, 동사와 비교해 볼 때 형용사는 미미하더라도 모두 정도성을 갖는다라고 설명한다.

김정남(2003)의 형용사 분류는 유현경(1998)의 분류와 다르다. 유현경에서는 주어의 심리적, 내적인 경험을 서술하는 주관적 형용사와 주어의 상태와 속성을 서술하는 객관적 형용사로 나누었었다. 유현경의 주관적 형용사의 특징은 서술구조에서 주어가 경험주(experiencer) 역을 지닌다는 점이었다. 주어가 일종의 판단자가 되는 것이다. 이 점에서 볼 때, 유현경의 주관적 형용사는 김정남의 판단자가 주어가 되는 상관적 형용사와 유사해 보인다. 하지만 (132)와 같은 예에서는 그 분류를 달리한다.

(139=132) a. 나는 심심하다.
b. *나는 철수가 심심하다.
c. *나는 철수와 심심하다.

(139a)의 심심하다는 김정남의 형용사 분류에서는 비상관적 형용사에 속한다. 서술구조에서 *나*는 다른 대상에 대해 판단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유현경에서는 주관 형용사가 된다. *나*는 *심심하다*의 경험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정남의 형용사 분류와 유현경의 형용사 분류가 곧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각 논의에서 제시하는 구조적 기준은 의미적 하위범주를 변화시킨다. 각 기준은 감각, 정서, 태도, 성상 등과 같은 형용사의 의미적 하위범주 명칭을 다르게 하기도 하고, 혹은 그 명칭이 같더라도 기준이 되는 구조적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범주에 속하는 어휘 내용을 차이 있게도 한다. 그리고 크게는 그러한 하위범주들의 상위범주인 주관적/객관적 혹은 비상관적/상관적 이라는 이름도 변하게 한다. 이것은 교차현상, 즉 어느 하위범주에 해당되는 어휘가 주어진 서술문에 따라 그

범주를 달리하는 것을 설명하기위해, 구조적 기준을 내세워 고정된 하위범주를 제시하려는 노력이었다. 그러나 영어 형용사에서 보았듯이, 형용사의 본질적 속성은 수식하거나 서술하는 기능이다. 즉 중심 명사의 속성이나 상태를 설명하는 품사이다. 따라서 형용사의 하위범주화는 먼저 의미에 따른 분류가 이루어지고 필요에 따라 구조적 기준을 세워 분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영어 형용사에서와 같이 각각의 범주의 의미적 유사성을 살펴 하위범주를 분류하였지만, 유현경과 김정남에서 언급된 하위범주를 활용하였다. 유현경의 형용사 분류표 (129)에서는 주관형용사와 객관형용사가 각각 다른 의미의 범주를 가지고 있는 반면, 김정남의 형용사 분류표 (133-134)에서는 비상관적 형용사와 상관적 형용사가 서로 공통된 의미 범주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비상관적 형용사에 정서와 감각범주는 상관적 형용사에도 존재한다. 이런 경우에는 동일한 이름의 범주는 한데 묶어 분류하였다.

(140) 한국어 형용사의 의미적 하위범주

정서/심리	심심하다, 외롭다, 무섭다, 기막히다, 좋다, 섭섭하다, 경이롭다, 귀엽다, 달갑다, 갑갑하다, 고통스럽다, 흡족하다, 쓸쓸하다, 부끄럽다, ...
판단/**감각**/이지(가능)	괜찮다, 마땅하다, 소용없다, 시원찮다, 기쁘다, 고프다, 느끼하다, 향기롭다, 딱딱하다, 매끄럽다, 거북하다, 따갑다, 대견하다, 가소롭다, 경이롭다, 근사하다, 비근하다, 고유하다, 능하다, 관대하다, 무력하다, 서투르다, 친숙하다, 아프다, 당연하다, 보통이다, 뻔하다, 자명하다, ...
태도	각별하다, 공정하다, 자상하다, 얌전하다, 명랑하다, 열렬하다, 각박하다, 강경하다, 거칠다, 건방지다, 냉정하다, 인색하다, 모질다, 단호하다, ...
성상/형상/성질	가늘다, 가볍다, 굳다, 길다, 날쌔다, 더럽다, 따뜻하다, 두껍다, 말끔하다, 뾰족하다, 시큼하다, 충성스럽다, 크다, 푸르다, 흐리다, 두툼하다, 얄팍하다, 막대하다, 광활하다, 웅대하다, 튼튼하다, 크다, 넓다, 큼직하다, 다부지다, 대법하다, 솔직하다, 야무지다, 엉뚱하다, 냉담하다, 고소하다, 모질다, 단호하다, 다채롭

	다, 맵다, 매끄럽다, 심하다, 색채형용사류, ...
소재	있다, 드물다, 수두룩하다, 없다, 허다하다, ...
소유	있다, 없다, ...
지정	이다, 아니다, 같다, 틀림없다, 옳다, 한량없다, ...
기준(비교/조건/대칭)	가깝다, 걸맞다, 다름없다, 불과하다, 진배없다, 간편하다, 나쁘다, 난감하다, 부적당하다, 부족하다, 빠듯하다, 무난하다, 손쉽다, 쉽다, 용이하다, 같다, 다르다, 멀다, 가깝다, 친하다, 유사하다, 밀접하다, 열악하다, 낫다, 월등하다, 우세하다, 수월하다, ...
분포/장소교차	가득하다, 수북하다, 많다, 자욱하다, 허다하다, 즐비하다, 충만하다, 빽빽하다, 흥건하다, 글썽하다, 보얗다, 빠듯하다, 시끄럽다, 울창하다, 파다하다, 희부옇다, ...
대응	강하다, 급급하다, 나쁘다, 알맞다, 약하다, 유리하다, 유용하다, 유익하다, 유효하다, 이롭다, 적당하다, 적절하다, 좋다, 해롭다, ...

또 이와는 반대로 동일한 이름의 하위범주라 하더라도 유현경과 김정남에서 각각 지칭하는 의미가 다른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유현경에서 태도 형용사는 주어의 심리적 상태나 속성을 표현하지 않고, 한 자리 수의 서술어를 지칭한다. 이런 구문에은 주어가 명제를 나타내는 명사절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반면, 김정남에서는 두 자리 서술어이며 대상의 내적 혹은 외적 태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의미적인 면에 중점을 두어 김정남의 태도 형용사를 사용했고, 유현경의 태도는 의미상 판단 형용사 범주에 포함시켰다.

2.3 요약

2.1에서는 영어 형용사의 통사적 자질과 의미적 하위 범주를 살펴보았다. 형용사의 통사적 특징으로는 한정적 기능과 하위범주라는 어휘적 속성이 있고, 그리고 구조적 특성으로, 수식어 위치와 so, as, how, too와 같은 정도 부사의 보어 위치, 결과 구문의 두 번째 서술어 위치에 올 수 있다는 것도 알아보았다.

영어 형용사의 의미적 하위 범주는 형용사 어순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는데, 이는

형용사의 어순을 통해 의미적 하위 범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형용사의 의미적 하위범주는 적게는 6가지에서 많게는 17가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하위범주를 구성하고 있음을 보았다. 그러나 이들 하위범주를 만드는 요인은 결국 주관적/객관적 의미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또 Wulff(2003)의 다요인 분석을 통해 어순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의미론과 화용론적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의미론적 요인에는 심리감(Affective Load), 비교 무관성(Independence from comparison), 주관성-객관성 정도(Subjectivity and Objectivity Gradience)가 있었고, 화용론적 요인에는 특정 명사(Noun-specific) 빈도와 빈도수(Frequency)가 있었다. 여기에서 심리감은 형용사 어휘들의 부정적 혹은 긍정적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었고, 비교 무관성은 화자의 주관이 들어가는 비교어가 그렇지 않는 어휘보다 선행한다는 것이었다. 또 주관성-객관성 정도도 화자의 주관적 판단이 되는 어휘인가 아니면 피수식어 명사의 성격을 보이는가에 따라 어순이 결정되는 요인이었다. 화용론적 요인인 특정 명사 빈도와 빈도수에서는 피수식어 명사와 결부된 어휘가 빈도수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볼 때, 영어 형용사의 의미적 하위범주를 구성하는 요인이 화자의 주관적 판단과 피수식어 명사와 관련된 객관적 성격 중에 어느 것을 보여주는가에 따라 형용사들이 어순을 달리하고 또 의미적 하위범주를 구성하는 것임을 보여준 것이다. 그 결과 의미적 요인에 의한 영어 형용사의 의미적 하위 범주는 (64)와 같이 정리되었다.

2.2에서는 한국어 형용사의 통사적 특징과 의미적 특징을 알아보았다. 형용사의 통사적 특징으로 유현경(1998)에서는 일부 자동사와 통사적인 유사성을 지닌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형용사만이 취하는 종결어미, 어울리는 부사, 상태성, 그리고 비대격성은 자동사에서도 나타났다. 또 자동사는 감각 구문과 대칭 구문, 그리고 장소교차 구문에서 형용사와 유사하게 활용된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이에 비해 김정남(2003)에서는 의존 문법의 보족어 개념을 이용해 형용사의 통사적 특징을 1가 형용사 구문 2가지와 2가 형용사 구문 7가지로 정리하였다.

영어 형용사와 한국어 형용사의 통사적 특징과 비교해보았을 때, 영어 형용사의 통사적 기술은 한정어와 서술어 기능을 강조한 반면, 한국어 형용사에서는 서술어 기능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영어에서는 수식기능과 하위범주화라는 어휘적 속성,

그리고 구조적 위치를 서술한 것이며, 한국어에서는 문형 즉 구조를 통해 하위 범주적 특성이나 구조를 설명한 것이다. 한국어 형용사의 한정적 특징은 관형어라는 범주를 통해 설명이 된다. 따라서 영어와 한국어 형용사의 유사성은 서술적 기능을 통해서이다.

의미적 특징으로는 영어와 한국어 모두 의미적 하위 범주를 구성한다. 하지만 통사적 설명에서도 보았듯이 각 언어의 의미 범주 형성 과정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영어에서는 어순 즉 형용사의 한정적 기능에 의거하여 의미 범주가 생성된 것이라면, 한국어에서는 서술적 특징에 의해 의미 범주가 생성된 것이다. 하지만 비록 구조적 제약이 따르기는 하지만, 한국어 형용사의 의미 범주 기준으로 주관적 혹은 객관적 성격이 적용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유현경(1998)에서는 서술어가 부여하는 의미역과 인칭 제약, 그리고 문형에 따라 주관 형용사와 객관 형용사를 분류하였다[11]. 하지만 김정남(2003)에서 살펴 본 형용사의 의미 범주는 다르다. 여기에서는 문장에 나타나는 논항들의 관계에 따라 비상관적 혹은 상관적 특성을 의미 범주 기준으로 삼았다. 그런데 유현경(1998)의 의미 범주나 김정남(2003)의 의미 범주들은 유사함을 나타낸다. 즉 유현경(1998)에서는 심리, 정서, 판단의 주관 형용사와 상태나 자질, 교차 장소, 대조, 기준, 소유, 가능성, 측정, 그리고 태도의 객관 형용사로 분류되며, 김정남(2003)에서는 정서, 감각, 성질(유정물/무정물), 형상(유정물/무정물/공통), 빈도,수량, 기타 상태의 비상관적 형용사와 평가(정서적/감각적/이지적(판단자/분야중심)), 태도(긍정적/부정적/중립적), 소재, 소유, 분포, 비교, 지정의 상관적 형용사로 분류되었다. 그 결과 서로 의미적 유사점을 바탕으로 (140)처럼 하나의 의미 범주표를 재구성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비록 영어와 한국어 형용사의 의미 범주 설정이 서로 다른 통사적 특성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기는 하지만 의미(meaning)라는 관점에서 볼 때 새로운 하위 범주 설정을 가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다. 가령 (64)와 같은 영어 형용사의 의미 하위 범주에서 주관적 혹은 객관적 내용을 (140)의 한국어 형용사의 의미

11)그러나 김정남(2003)에서는 유현경(1998)의 논의에도 단점이 있음을 언급한다. 예를 들면 주관적으로 분류된 어휘가 주어진 서술문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주관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여전히 난점을 안고 있다고 말한다(김정남, 2003, 3.11 참조).

범주와 관련하여 더 세분화 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게다가 온톨로지 구조에서는 형용사에 직접적인 지배를 받는 위계는 의미이다. 통사적 특성은 통사부에서 위계화되고 형용사와 관련된 통사적 특징은 맵핑을 통해 이루어진다. 의미적 특성에서 언급되었던 내용 중에서도 어휘의 의미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의미적 하위 범주는 형용사에 직접적인 하위 범주를 이루겠지만, 그 범주들과 연계된 어순 규칙이나 문형의 특성은 통사부에서 별도로 제시될 것이다. 따라서 각 언어가 지닌 의미 범주들을 참고로 형용사의 의미 범주 설정을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온톨로지상에 나타나는 대상들의 속성을 결국에는 어휘가 보여주지만, 동일한 속성을 어휘들의 상위 범주로 설정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대상의 속성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럼 대상과 관련된 의미적 속성이 무엇이며 언어학적 의미와 어떠한 차이점을 지니고 있고, 또 그러한 차이점은 온톨로지에서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이를 위해 먼저 제 3장에서는 실험을 위한 기본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3. 온톨로지와 시각·감성정보 정의

3.1 온톨로지 정의

철학적 개념에서 '온톨로지'(Ontology)는 존재(Existence)에 대한 체계적 이론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온톨로지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에 대한 '개념'(conceptualization)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개념을 분명하게 명시한 것이다. 또 개념은 '안다'라고 하는 지식의 기본 요소이기 때문에, 지식의 온톨로지화는 지식 세계 혹은 '담화 세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담화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이나 대상들 간에 존재하는 관계는 지식을 표현하는 도구인 '어휘'(vocabulary)를 통해 표출된다. 결국 온톨로지는 표현하거나 표현될 수 있는 도구인 언어를 통해 구체화 된다고 할 수 있다(Thomas R. Gruber,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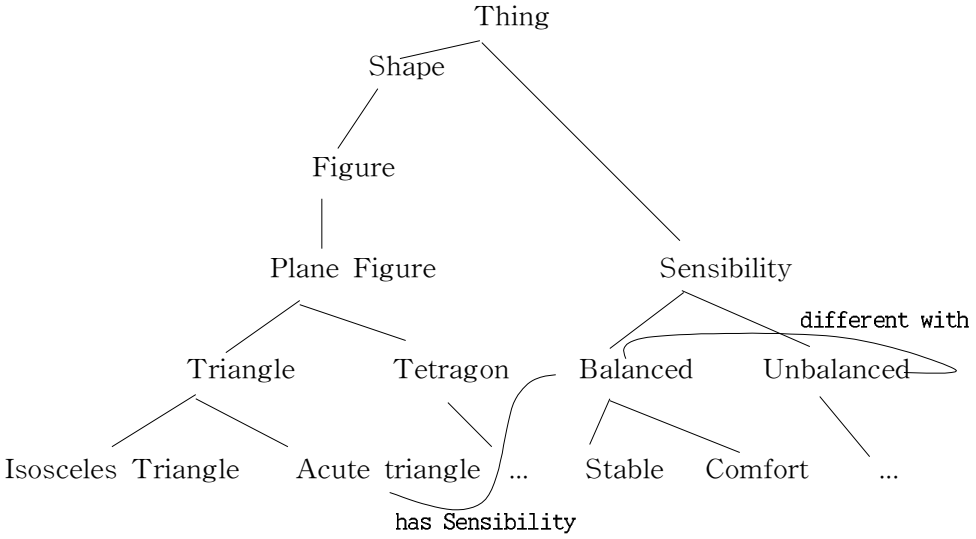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말하는 온톨로지는 그런 철학적 개념을 포함한 '온톨로지 활용'까지를 일컫는다. 즉 철학에서 말하는 온톨로지에서는 대상과 개념이 따로 존재하여 개별적으로 정의된 상태라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온톨로지에서는 대상과 개념간의 일관된 관계가 이미 이루어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온톨로지에서는 대상들 간의 정의를 이용하여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사전적 온톨로지 정의는 *존재*(being 혹은 existence)를 연구하고 형이상학의 기본적인 대상들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는 존재하는 대상에 기본적 범주나 관계들을 설명하고 그 틀 내에서 실체와 그 실체의 유형을 정의하려는 것이다. 인식론(epistemology)이 *무엇을 아는가?*와 *어떻게 아는가?*에 대해 답하는 것이라면, 온톨로지에서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답하는 것이다.

전산적 입장에서 본 온톨로지는 실생활에 온톨로지를 도입하려는 노력이라 볼 수 있다. 즉 컴퓨터가 직접 정보를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는 컴퓨터들 사이에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자체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배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은 온톨로지가 지닌 네 가지 특성 때문이다. 첫째는 온톨로지의 의미를 수학적인 바탕에서 또는 명확하게 정의된 의미론을 지닌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형식적*(formal) 특성이다. 즉 개념들을 형식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으로도 프로세스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의미를 도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거치지 않고도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으로 다룰 수 있게 된다. 둘째는 온톨로지가 인간에 의해 읽혀질 수 있는 특성 때문이다. 이 특성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만이 아니라 도메인 전문가나 사용자 또는 온톨로지학자들에 의해서도 개발되거나 공유되고 또 이해될 수 있게 해 준다. 세 번째 특성은 온톨로지의 영역이 *광범위*(comprehensive)하다는 점 때문이다. 이것은 특정한 적용 뿐 아니라 필요한 목적과 관련한 모든 개념을 목표로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또 모든 개념을 목표로 할 수 있다는 것은 그와 관계된 사람은 누구든지 그 목표를 이해하고 개정하고 조절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네 번째로는 *공유할 수 있다*(sharable)는 특성 때문이다. 이것은 별도로 구축된 온톨로지들을 더 쉽게 결합하게 해주고, 공통된 개념을 근거로 하는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들 간에도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주어 손쉽게 하위 온톨로지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온톨로지의 내용은 계층적 구조로 표현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추론규칙(reasoning rule)이 내포되어 온톨로지 기반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용자의 요구와 검색을 용이하게 해줄 수 있다.

(1)



본 논문에서 활용하려는 온톨로지는 사전적 관점과 전산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형용사의 의미 범주들과 관련하여, 특히 시각정보와 관련된 감성어 형용사를 중심으로 형용사의 일반적 특징과 의미적 속성을 온톨로지 구조에 적용해 보려는 의도이다. 예를 들어 이는 1.2에서 보았던 (6)을 보인 (1)과 관련한다. (1)은 시각정보 중에서 형태와 관련하여 감성 형용사를 온톨로지 정의를 이용해 대입해 본 것이다. 즉 어떤 사물을 보고 느끼는 감성 어휘들을 그 사물과 관련하여 맵핑(mapping)해 놓은 것이다.

3.2 시각정보

Archaism(1981)에 따르면 시각정보와 감성 어휘들의 매칭은 *사물을 보고 느낀다*라는 표현으로 함축시킨다. 그리고 사물을 보고 느끼는 감정은 주어진 사물(대상)의 모양에 따라 달라진다. Archaism은 사물의 모양에 대해 (2)에서처럼 개념요소, 시각요소, 상관요소, 그리고 구조요소로 구성된다고 설명한다. 이들 중 개념요소와 상관요소, 그리고 구조요소는 모두 시각요소로 귀착된다. 개념요소는 비가시적인 것이며, 상관요소 역시 시각요소들의 상관관계를 형성하는 이념적인 것이고, 구조요소도 개념요소의 확장적 의미이기 때문이다.

(2) 모양의 구성요소

모양의 구성요소	구성요체
개념요소(Conceptual Elements)	점(Point), 선(Line), 면(Plane), 입체(Volume)
시각요소 (Visual Elements)	형태(Shape), 크기(Size), 색채(Color), 재질(Texture)
상관요소 (Relational Elements)	위치(Position), 방향(Direction), 공간(Spatiality), 중량감(Gravity)
구조요소 (Constructional Elements)	정점(Vertex), 모서리(Edge), 면(Plane)

따라서 시각정보는 인간이 어떤 사물이나 상태를 보았을 때 느끼는 감성을 좌우하는 요소로 정의하고, 크게 형태, 크기, 색채, 재질로 분류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말하는 시각정보는 형태와 색채, 질감, 그리고 패턴을 지칭하는데, 이는 Archaism의 시각요소 중에서 사물의 크기를 변화시켜 감성어를 얻기보다는, 감성어 처리에 주로 활용되는 패턴(pattern)을 넣어 판단하는 것이 더 무난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형태와 색채, 재질, 패턴을 고려할 때, 이들이 지닌 무한한 변화를 고려하여 대표적 형태와 색채, 재질, 그리고 패턴을 선택할 때는 기하학적 수단을 활용해야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크기라는 요소는 기하학적 표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기하학적 접근은 시각정보 중에서 형태와 패턴에 시도되었다. 형태는 모두 자연에서 얻어진 것인데, 그러한 자연성은 무한대의 형태를 만들기 때문에 실험 가능 요소로 만들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패턴의 경우는 백선경(2008)을 보면 자연구성과 기하구성 두 가지를 다루고 있다. 패턴은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3.2.1 형태 *(Shape)*

인간이 만들어 낼 수 있는 형태나 자연에서 따올 수 있는 형태는 무한하다. 형태[12]에 대한 정의는 선으로 둘러싸인 평면적인 2차원적 공간을 뜻하며 외형적인 모양(sillouette, outline)을 말한다. 이는 외형의 각과 위치를 결정하는 골격의 축으로 만들어지고 내부에 있는 공간의 형을 의미하기 때문에, 깊이의 차원은 배제되고 길이와 폭의 차원을 갖는다(고광필 외, 2006).

Archaism(1981)을 보면, 형태는 일반적으로 유기적, 기하학적, 그리고 자연적으로 구분된다. *유기적*이라 함은 포괄적으로는 기하학적 형태와 자연적 형태를 포함한

12) 형태는 선으로 둘러싸인 2차원적 평면 공간인 '형'(shape)의 확장형이라 할 수 있다. 형태는 사물의 생김새, 형상과 태도, 형체와 생긴 모양으로 어떤 대상에 대해 그 전체를 구성하는 각 부분의 질서를 형성하여 완전하게 통합되어 있는 3차원적인 궤적이라고 한다. 이 형태에 색채와 질감, 그리고 패턴이 더해져 모양(form)을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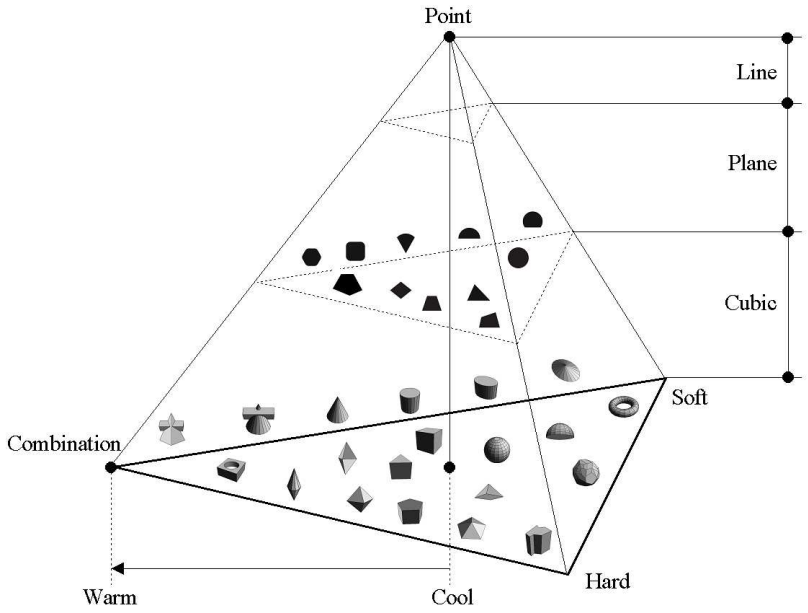
다. 이 특성은 기하학적 특성과는 대조적으로 자연의 생명감을 중시하는 용어이다. 즉 자연 가운데 자연현상이나 생물의 성장에 따라 생성된 유기체의 모양을 유기적이라 부른다. 따라서 이들의 고유한 모습 때문에 이들이 보여주는 형태들은 무한대로 다양하다. 반면에 이들은 자연적인 미완결성의 속성을 지니고 있어서, 표현과 사고의 패턴이 미분화된 상태의 무의식에 근거를 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미지를 나타낼 수 없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거대한 우주 전체를 상징할 수도 있고, 그와 대조적으로 생물체의 미세한 부분일 수도 있어서, 예측할 수 있다기보다는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이미지임을 뜻한다.

반면 실험에 가져올 수 있는 실제 수는 유한적이다. 따라서 무한성의 속성을 지닌 시각요소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각 요소들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적인 속성과 개념을 정리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대표적인 표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기하학의 개념을 이용하였다. Archaism(1995)에서는 기하학적 개념을 인간의 사고체계를 이용해 자연을 정제함으로써, 수학적 계산을 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원, 삼각형, 사각형 등과 같이 복잡한 자연형태를 간결하게 만든 인위적이면서 추상적인 형태를 일컫는다.

이러한 기하학적 형태는 평면적 기본형과 입체적 기본형을 변형, 대칭, 결합, 공제, 회전, 투영, 왜곡시켜 끊임없이 새로운 모양으로 재창조될 수도 있다. 평면적 기본형은 삼각형과 사각형, 그리고 원을 말하는데, 삼각형은 직선으로 만들 수 있는 최소 윤곽선이라고 말해진다. 또 삼각형과 사각형, 사각형과 원형, 원형과 삼각형 사이에는 (3)에서 보듯이, 중간적 특성을 지닌 도형들이 존재한다. 삼각형과 사각형 사이에는 다양한 다각형과 타원이 존재하며, 원과 삼각형 사이에는 부채꼴과 같은 다양한 도형들이 존재한다. 입체적 기본형은 구와 육면체와 원기둥, 그리고 원뿔을 말하며, 이들 역시 그 사이에는 중간적인 입체들이 존재한다[13].

(3) 기하학적 형태의 개념 공간

13) 이를 단순화하여 표로 나타낸 것은 부록2 '기하학 도형을 중심으로 한 형태분류' 참조.



(고광필 외, 2006, pp 55)

이 기하학적 개념을 근거로 하여 본 논문에서 활용한 기본적인 형태는 총 24개였다[14]. 여기에는 형태를 이루는 기본 요소인 선(line)을 포함시켰다. 1차원적인 선은 선과 합하여 2차원적 평면을 만들고, 2차원적 면은 면과 합하여 3차원적인 입체를 만들기 때문이다.

3.2.2 색채 *(Color)*

김태호와 이홍규(2002)의 *21c 현대디자인사전*에서는 모든 사물은 빛을 흡수, 반사 또는 투과하여 생기는 시각적 체험인 *색*을 가지며, 혼합법에 가법혼색과 감법혼색이 있지만, 이는 색광을 혼합시키는 것과 화구를 칠하는 기법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설명한다. 즉 이미지에 나타나는 색은 색광이나 화구를 칠하는 것 이전의 본래의 색채를 의미한다는 말이다.

14) 4.1의 (1) 참조.

색채(color)는 물리학에서 파장이 다른 빛의 영역을 의미한다. 하지만 고광필 외(2006)에서 말하는 *색채*는 의미적인 면에서, 특히 미학에서 감성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져 왔다고 설명한다. 또 색채는 형태나 질감, 혹은 패턴에서 보다 더 쉽게 감성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감각적이며, 이는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강화한다고도 본다. 본 논문에서 활용하는 시각정보 색채는 감성과 관련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분야보다는 의미적인 면에서 보려는 의도가 강하다할 수 있다.

그러나 색채에 대한 인간의 감성은 모두 동일하지 않다. 자신이 살아온 생태 기후나 지역과 같은 환경 조건과 색을 통해 얻은 경험적 산실이 색을 통해 느끼는 감성을 다양하게 만들어 버린다(박수진과 정찬섭, 1998). 따라서 색채를 통한 감성 추출은 색에 대한 절대적인 감성을 구한다기 보다는 각 사람들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색이나 그와 관련된 이미지에서 선호되는 감성을 추출하여 표준화된 척도로 보이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활용된 실험에서 색채에 대한 정보는 휴렛 팩커드(Hewlett-Packard)사의 20 색상이다. 이는 일상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색이며, 인간의 감성에 가장 영향을 주는 색으로 선별하였다는 객관적 신뢰성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백선경, 2008)

(4) 휴렛 팩커드의 "색상의 의미" 중 'bright red'(백선경, 2008, pp11)

Bright Red - Optimistic, dynamic, energizing, exciting, sexy, intense, stimulating, aggressive, powerful, energetic, dangerous

International significance - China = good luck; India = purity; Eastern cultures = signifies joy when combined with white

3.2.3 질감 (Texture)

사전적인 정의로 질감은 원래 직물의 소재와 올의 짜나가는 방식에 따른 표면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감각기관중에서 촉각에 해당하는 말이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반드시

촉각에 의한 것만을 지칭하지는 않고, 시각적으로 느끼는 현상을 말하기도 한다. 따라서 질감을 말할 때, 두 가지 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대상을 평면적으로 표현했을 때의 촉각적 표면 효과를 말하고, 또 하나는 촉각이 아닌 시각적인 표면효과를 말한다.

질감에 대한 사전적 정의에서는 *크기와 형태 그리고 그 요소들의 배열과 관련한 변별된 물리적 구조*로 원래 질감이 지니는 촉각적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다. 그런 반면, 건축에서 말하는 질감은 *사물을 인지할 수 있는 표면 상태*를 말함으로 시각화된 이미지 정의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식물의 줄기나 꽃을 보고 거칠다거나 섬세하다고 그 질감을 표현할 수 있겠다. 이는 아마도 질감이 오감 중의 촉각에 의해 느낄 수 있는 감성 요인이기 때문에, 질감은 색이나 형태처럼 이차원적이라기보다는 삼차원에서 만날 수 있는 대상이어서, 촉각 뿐 아니라 심리적인 요인을 자아내는 시각적 요인까지 내포하고 있는듯하다(고광필 외., 2006).

질감에 대한 감성 실험들과 본 논문에서 실행한 대상으로서의 질감은 대개 물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보다는 물체의 시각화(visualization)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피험자들의 경험에 의해 단순히 시각화된 질감 형태들을 통해 간접적인 감성이 얻어진다(김지은 외., 1997). 따라서 질감에 대한 감성들은 인간의 경험에 의거하여 나타나는 것이므로, 그 사람의 문화나 경험 등의 배경이 질감에 대한 변수를 가져올 수 있다. 다시 말해 직접적으로 사물에 접촉하여 느끼는 것은 그 물질의 촉감을 통해 삼차원적으로 얻어지는 감성이지만, 화가가 그려놓은 것과 같이 시각적으로 보고 느끼는 감성은 그 이미지의 형태와 선, 그리고 색깔 등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차원적 감성이라 할 수 있다. 질감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로는 질감이 *거칠수록*(rough) 정서적으로는 생동감 있고, 미학적으로는 역동적이며, 공간적으로는 깊이를 더하며, *부드러울수록*(smooth) 그와는 반대로, 정서적으로는 수동적이며, 미학적으로는 장식적이며, 공간적으로는 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박수진 외., 1998).

본 논문에서 활용된 실험에서 *질감*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재료를 기반으로 10개가 선별되었다. 이는 자연적 질감과 인공적 질감으로 구분된 것이며, 전자에 대한 예는 모래, 돌, 나무 등을 들 수 있고, 후자에 관한 것은 인공적으로 가공된 고무나 플라스틱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5) 시각 정보 대표 이미지: 질감 (백선경, 2008, pp27)

질감 (texture)					
	Metal	Plastic	Glass	Fabric	Rubber
	Leather	Paper	Wood	Stone	Clay

3.2.4 패턴 *(Pattern)*

사전적으로 패턴은 *일정한 형태나 양식, 혹은 유형*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색채나 형태보다 질감(texture)과 가장 밀접하게 병합하여 나타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다. Archaism(1981)에서 촉감으로 대변되는 질감은, 색채나 형태가 달라지면서 물체의 질감에서 느끼는 감성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결* 혹은 *패턴*이라는 양상에 따라 물체의 이미지를 바라보는 인간의 시각적 감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패턴(pattern)은 대개 형, 견본, 모형, 모양, 도안, 무늬 등을 뜻하며, 전문적 호칭은 장식적 모양의 단위가 되는 도형 또는 문양을 패턴이라고 설명한다. 또 문양에는 문양을 이루는 요소인 *모티브*가 있는데, 이 모티브들이 서로 조합하여 전반적인 조형 단위인 패턴을 이룬다고 언급한다.

조형에서 보는 패턴은 자유구성과 기하구성으로 나뉘는데, 예를 들어 꽃무늬를 보면, 회화적 표현은 자유 구성, 원형으로 처리하면 기하구성이 된다(고광필 외., 2006). 패턴 역시 형태처럼 자유 구성의 방대함과 다양성 때문에 기하구성적인 패턴을 실험 데이터로 사용하게 된다. 다시 말해 감성 실험에서 보는 패턴은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패턴들을 어느 정도 기하학적으로 표현한 기하구성을 통해 감성 처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본 논문에서 언급되는 패턴(pattern)은 조형 방법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기하구성과 자유구성으로 나누어 패턴 정보를 선별한 것이다. 기하구성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활용되는 물방울(dot)과 체크(check) 무늬 등을 활용하였고, 자유구성으로는 꽃의 회화적 표현인 아르누보(art nouveau) 무늬를 활용하여, 총10종을 선별해낸 것이다(백선경, 2008)

(6) 시각정보 대표 이미지: 패턴 (백선경, 2008, pp27)

패턴 (pattern)					
	Flower	Polka Dots	Dots Check	Block Check	Window Pane Check
	Over Check	Madras Check	Argyle Check	Diagonal Line	Art Nouveau

3.3 감성 정보

감성(sensibility)이란 사전적으로는 *자극이나 자극의 변화를 느끼는 성질* 혹은 *이성(理性)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외계의 대상을 오관(五官)으로 감각하고 지각하여 표상을 형성하는 인간의 인식 능력*을 말하지만, 감성공학 분야에서는 *외부의 물리적 자극에 의한 감각, 지각으로부터 인간의 내부에 야기되는 고도의 심리적 체험으로서의 쾌적감, 고급감, 불쾌감 등의 복합적인 감정*을 말한다(Wester et al., 1994). 이러한 인간의 감성은 다차원적 성질을 띠기 때문에, 동일한 외부자극에도 개개인들이 느끼는 감성은 다를 수 있다. 또 사물의 형태와 색상, 질감, 그리고 패턴에 대해 느끼는 것도 개개인의 인구학적 특성[15]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이구형, 1997). 감성은 복합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렇다*하는 식의 표현이 어렵지만, 직관적(intuitive)이면서 순간적(reflective)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감성은 내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감성을 직접적인 *감성* 그 자체로 이해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이순요 외. 1996). 따라서 비록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인간이 감성을 드러내는 방법인 언어 또는 자연어를 통해 감성 정보는 실제화 된다. 언어는 인간의 사고를 표현하는 도구이며, 언어의 형용사 범주는 인간의 감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이순요 외, 1996; 권규식, 1995).

15) 인구학적 특성: 연구대상 모집단의 사회학적 및 경제학적 특성 연령 성별 교육 직업 등을 포함한다.

박수진과 정찬섭(1998)에서는 감성 역시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조건이 있다고 말한다. 하나는 감성이 어떤 대상에 대한 것이냐에 따라 특정 감성 반응 쪽으로 편향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주변 환경이나 시대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감성 연구가 국가별 또는 지역별로 동일한 결과를 낳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외국 문화권의 감성을 번역하기에 곤란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 그렇다. 셋째로는 감성은 연령이나 성별, 교육 수준이나 전문성 등 개별 특성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감성의 변화를 고려해본다면 본 실험에 활용된 감성은 크게 제한된 영역에서 감성어휘를 구축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실험 연구에 사용된 감성을 유발시키는 대상을 직접적인 물체와 같이 자연적인 형태를 벗어난 기하학적 형태만을 고려하였다. 또 비록 감성이 연령이나 성별, 교육 수준이나 전문성 등 개별 특성에 의해 선호하는 감성 표현들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지만, 대개 선호되는 어휘들은 공통된 감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박미자 외., 1998).

3.4 시각정보의 감성화와 통계 분석법

지금까지 살펴 본 시각정보와 감성정보는 시각정보를 통해 감성어휘라는 감성정보를 얻고자하는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인지 프로세스 모델에서 인간이 감각기에서 받아들이는 모든 자극을 *정보*(information)라고 통칭하며 인간에게 정보를 주는 모든 주체를 *정보원*(information source)이라고 한다면, 시각정보는 정보원(information source)이 되고 감성은 정보(information)가 된다.

정보원인 시각정보로부터 정보인 감성정보를 얻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 활용한 통계 기법으로는 이미지법(Image method), 의미분석법(Semantic differential method;SDM), 요인 분석법(factor analysis), 다차원 분석법(MDS:multidimensional scaling) 등이 있다. 이미지법이란 피실험자에게 이미지를 보여준 다음, 떠오르는 생각을 말하거나 적게 하여 그 마음에 강하게 맺힌 것을 적게 하는 방법이다. 이것

은 시각정보에 대한 감성정보를 단순한 차원에서 수집할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보편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쉽게 접근해 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 기법은 제 4장에서 첫 번째 단계의 설문조사에서 활용되었다.

의미분석법[16](Semantic Differential Method; SDM)은 이미지법을 통해 얻은 감성자료들은 상호간의 관계를 파악하기위해 활용된 통계기법이다. 의미분석법은 감성정보를 얻어내는 것과는 달리, 일정한 대상이 지닌 개념이 갖는 본질적인 뜻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또 그 편리성 때문에 감성의 공통 요인을 평가하려는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 분석법에서는 각 양극형용사 척도가 평가[17]할 일정개념 또는 기준을 선정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선정된 개념들은 어느 정도 전체적인 어휘 공간을 포괄할 수 있어야하며, 척도에 활용하기위해 측정에 적합한 형용사 쌍을 선정한다. 그리고 각 양극 형용사 쌍은 몇 개의 차원을 대표하도록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이는 제 4장에서 1단계로 설문된 정보의 유의성을 확인하는 2단계에서 활용되었다.

다차원척도분석(MDS: multidimensional scaling)법은 개체들 간의 관련이미지의 복잡한 관계를 적은 수의 차원 공간에서 단순한 구도로 시각화하여 주는 통계분석 기법이다. 이는 군집분석(cluster analysis)[18]과 같은 분류기법이지만 단순 분류의 특성을 넘어서 대상물이 위치하는 시점을 시각적 구도 속에서 알려준다는 점이 유용하게 사용된다. 그리고 표현된 시각적 구도에서 서로 가까운 곳에 위치한 개체들은 상대적으로 유사함을 의미하게 된다. 이 기법들은 제 4장에서 실험 결과를 나타내는데 사용되었다.

---

16) SD(Semantic Differential) 척도법은 미국 심리학자 Osgood에 의해 고안된 *의미분별법*으로 심리평가 척도법이다. 예를 들어 평가하고자하는 대상에 대한 다양한 느낌과 감성을 표현하는 형용사 언어를 수집하고, 그 형용사들 중 반대어 개념의 것들을 쌍으로 묶는다. 그리고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과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형용사 언어쌍 집합을 만든다. 마지막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하여 준비된 형용사 언어쌍을 이용해 피실험자들로 하여금 평가하도록 한다 (http://www.oepa.or.kr/posco/construction/needs/Ch03/3-2-1c.htm) (3.3 참조)

17) 척도 측정 방식은 감성 어휘들 간에 존재하는 관계들과 각 형태와 감성 어휘 간에 존재하는 관계들을 분석함으로써, 많은 어휘들이 지닌 정보 손실을 막고, 최소 요인들로만 구축하여 감성 어휘의 필수적인 요인들만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8) 비슷한 특성을 가진 집단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하는 통계적 분석기법

4. 감성 어휘 추출과 속성 비교

이 절에서는 시각정보를 통한 감성 어휘를 추출하여 언어학적 논의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형용사의 대상과 연관된 의미적 속성이 갖는 차이점을 명시하고 온톨로지 구조에서 제시해야할 의미적 속성을 발견하고자 한다.

4.1 감성어 추출 실험

이 절에서는 형태(shape)라는 시각정보를 중점으로 감성 어휘 추출 실험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시각정보 형태는 자연적 이미지(natural image)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지하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자연적 이미지의 무한성 때문에 본 실험에서는 대표적 이미지(image)라는 매개체를 활용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자연적 형태를 얻기 위해서는 기하학적 개념을 이용하여 원형적 이미지를 구성해야만 했다. 그리고 이미지에 따른 감성(sensibility)을 보여주는 것이 언어(language)라는 매개체를 통한 감성 형용사이다.

따라서 이 실험에서 활용하는 주된 두 가지 요소는 대표적 형태 이미지와 그 이미지를 통해 얻어질 감성 어휘이다. 형태, 색채, 질감, 그리고 패턴에 대한 감성어휘 결과는 백선경(2008)의 *감성기반 이미지 검색을 위한 시각정보 요소별 감성공간 생성*에 대한 연구 자료에서 인용하였다. 먼저 추출 실험에 대한 절차와 그 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4.1.1 실험 절차

실험은 총 4단계로 구성된다. 제 1단계는 시각정보 형태에 대한 기본적인 이미지를 기하학적으로 선별해내는 단계이고, 제 2단계는 만들어진 이미지를 가지고 이미지법(image method)을 활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 단계를 통해 감성어휘가

수집된다. 제 3단계는 수집된 어휘 자료의 유의성을 확인하기위해 여과작업(filtering)을 하는 과정으로, 한국어 형용사사전에 등재된 형용사와 비교하고 한글 형용사 빈도 조사표를 통해 의미적으로 중복되는 형용사와 저 빈도성 어휘는 배제시켰다. 사용 빈도가 희박할수록 이해도가 낮기 때문이다. 제 4단계는 정리된 어휘들을 가지고 척도(scale)를 이용한 의미분석법(SDM)을 적용시킨 제 2차 설문을 실시했다. 여기에서는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제 3단계에서 얻어진 감성어휘가 각 시각정보에 대해 어느 정도 적합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워드넷을 이용하여 영어 형용사와 반의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 작업은 영어 형용사를 이용하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이를 통해 유사한 한국어 형용사를 한데 묶고 그 반의어를 한국어와 영어로 정의함으로써 각 어휘들의 의미적 속성을 더 자세히 알아내기 위함이었다.

먼저 제 1단계로 시각정보 *형태*(shape)에 대한 기본형을 선별하였다. 형태는 자연에서 추출해야 하지만, 3.2.1에서 언급되었듯이, Archaism(1981)의 기하학적 개념을 근거로, 원과 삼각형, 그리고 사각형 등과 같은 수학적 계산이 가능한 형태를 중심으로 가장 기본적인 이미지 20종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선의 방향에 따라 감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형태의 기본이 되는 수평선, 수직선, 사선, 그리고 곡선을 포함시켰다. 이 24개의 이미지는 제 2단계에서 활용한 설문지 (1)에서 볼 수 있다.

제 2단계에서는 제 1단계에서 준비한 총 24종의 이미지를 통해 감성어휘 수집을 위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은 19세에서 40세에 이르는 280명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그들 중에는 대학생과 유학중인 외국인, 또는 영어를 가르치는 원어민 교사 등이 포함되었는데, 대개 대학생이 주류를 이루었다.

설문 방식은 제작된 설문지를 실험 집단에게 개별적으로 배포하고 제한된 시간 안에 각 이미지를 보고 연상되는 감성 어휘를 적도록 하였다[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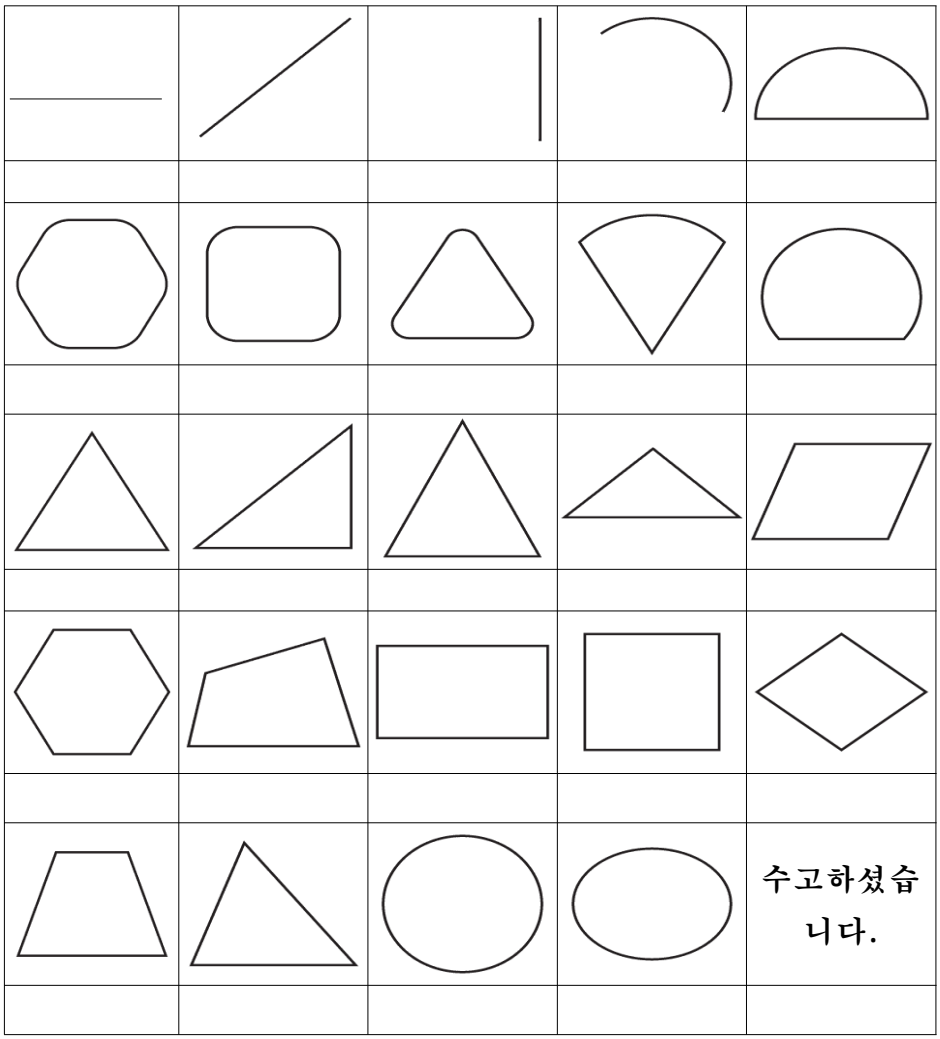
---

19) 피험자들은 감성 형용사를 적을 때, -ㄴ 형으로 기재하였다(부록 3 참조). 예를 들어, *따뜻하다*를 적을 때는 *따뜻한*으로 표기하였다. 이는 아마 영어 형용사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ㄴ형을 사용하기 때문인 것 같다. 본 논문에서는 -ㄴ형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한국어에서 형태가 형용사형을 제한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기 때문이다 (유현경 1998).

(1) 형태 이미지 설문지

다음 형태들을 보고 가장 먼저 연상(느낌, 감성, 감정 등)되는 형용사를 써주세요.

성별 : (남, 여)　　연령 : (　　세)　전공 : _____　　직업 :



설문 결과는 각 이미지에 대해 최소 90개 이상의 어휘를 수집할 수 있었다. 하지만

피험자들 모두가 모든 이미지에 대해 감성어를 적은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제한된 시간 안에 감성어를 연상하여 적는 일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얻은 감성어휘는 너무 방대하여 감성어휘 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 3단계로 대표적인 감성 형용사임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어떤 피실험자의 경우에는 형태 이미지를 통해 사물을 연상한 경우가 있었다. 이는 형태 이미지를 보고 연상되는 감성을 요구하였을 때, 개인적인 기억 속에서 비슷한 감성을 느꼈던 이미지를 그대로 적은 경우였다. 예를 들어 (1)의 11번째 이미지인 삼각형 이미지를 보고 *삼각 김밥 같다* 고 한다든가, 23번째 이미지인 원형을 보고 *태양*이라고 답변하였다. 이 때문에 제 1차 설문을 통해서 얻은 어휘들은 사전적 품사 분류에 중점을 두고 비형용사를 골라 배제시켰다.

또 지나치게 개별적인 어휘를 제한하기 위해 어휘의 빈도수를 고려하여 저 빈도수 어휘도 배제시켰다. 이미지에 따른 감성은 개별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으나, 그에 따른 감성어휘가 극단적으로 개인적인 비중을 차지한 경우에는 극단적인 주관성 때문에 일반화에 적합지 않기 때문이다[20].

이 외에도 명사에 *-같다*, 혹은 *-스럽다* 등의 어미를 붙여 답하는 경우도 있었고 동사를 형용사로 오인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아마 전자의 경우에는 적절한 감성 형용사가 떠오르지 않았거나 피험자가 느낀 동일한 감성을 그 사물에서 느낀 경우에 대한 답인 것 같았다. 후자의 경우는 아마도 어휘의 의미 변화의 결과인 듯 하다. 예를 들어 *도약하는*이라는 표현은 동사형 *도약하다*에서 출발한 것이지만, *도약하는*이라는 어휘를 언급할 때는 동사적 움직임을 표현 한다기보다는 도약하는 듯한 상태를 표현하려는 것 같다. 하지만 사전적 분류를 참조하여 동사로 분류된 경우에는 이도 감성어 목록에서 배제시켰다.

또 워드넷을 이용해 영어 형용사로 번역하는 과정에서[21] 유사어를 한데 묶어 정리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한국어 형용사 *편안한/안락한*은 영어 *comfortable*로 번

---

20) 어휘 표현은 인간에게 공동 수단이지만 사용 방법은 개별적이어서 사용되는 어휘들의 일반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휘의 빈도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어휘는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 사용되기 때문이다 (ARC et als., 1993).

21) 영어 형용사 번역 내용은 <부록 3> 참조.

역되었고, *부드러운/온화한*은 *smooth*로 번역되었다. 또, *불쌍한/가련한*은 *piteous*로 번역되었다. 반의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애매한 감성어의 의미를 확인하고 더 보편적으로 사용된 감성어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개로 번역이 되는 경우 빈도수를 고려하여 빈도수가 높은 어휘를 채택하였다.

이렇게 하여 모든 감성에 따른 총 어휘 수는 200여개로 정리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이들 모두를 실험에 사용하기에는 너무 방대하였다. 정무주(1995)에서 보면, 성분분석을 이용해 극성대립을 통한 공간형용사의 의미분석을 보이는데, 공간형용사의 긍정어를 무표어, 부정어를 유표어라 하고, 이들 무표어와 유표어의 상극성 사이에 중립지역이 있음을 말한다. 이처럼 상극의 의미를 지닌 형용사의 하위 범주사이에 파생된 의미의 형용사가 자리 잡을 수 있다. 하지만 순수감성어휘의 기본적 구축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틀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실험에서 만들고자 하는 어휘적 틀은 가장 기본이 되는 어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중간적 어휘들은 하위단계로 정리되었다. 결국 제 3단계의 정리를 거쳐 형태 이미지에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된 가장 대표적인 감성 어휘로 각 형태별 8개를 구성하였다.

(2) 형태에 따른 제 1차 한국어 감성 어휘

형태 이미지	감성 어휘
	균형적인, 지루한, 차가운, 안전한, 무한한, 정직한, 안정적인, 정적인
	차가운, 곧은, 절대적인, 높은, 진취적인, 엄격한, 이기적인, 강한
	활동적인, 위험한, 끊임없는, 진취적인, 도약하는, 미끄러운, 빠른, 불안한
	아름다운, 밝은, 우아한, 자유로운, 평화로운, 부드러운, 빛나는, 부풀어 오르는
	충만한, 가득 찬, 온유한, 완벽한, 진정된, 안전한, 만족한
	공격적인, 차가운, 고집 센, 어지러운, 혼란스러운, 후퇴하는, 이상한, 불편한
	애매한, 혼란스러운, 초조한, 이상한, 독특한, 불안정한, 애매한, 걱정스런

(3) 형태에 따른 제 1차 영어 감성 어휘

형태 이미지	감성 어휘
	balanced, boring, cold, comfortable, endless, honest, stable, static
	cold, direct, exclusive, high, initiative, rigid, selfish, strong
	active, dangerous, endless, initiative, jumping, slippery, speedy, uneasy
	beautiful, bright, elegant, free, peaceful, smooth, sunny, swollen
	plentiful, full, mild, perfect, relaxed, safe, satisfied, warm
	offensive, cold, crooked, dizzy, irritative, retrogressive, strange, uncomfortable
	ambiguous, confused, nervous, strange, unique, unstable, vague, worried

(2)와 (3)은 제 1차 설문 결과의 일부를 제시한 것이다(Baek et al., 2006).

제 4단계에서는 제 3단계에서 얻은 감성 어휘들이 각 형태에 따른 감성 정보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5점 척도를 이용한 제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감성은 개인별 주관적인 판단에 의거해서 얻어지는 것이지만 감성어휘는 보편성과 객관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설문은 제 1차 설문과 동일한 형태 이미지를 사용하되 제 3단계에서 얻은 최종 감성어휘에 대한 타당성을 (4)와 같은 5점 척도로 평가하게 했다. (4)는 주어진 형태 이미지를 보고 5점 척도(scale)의 *75*에 표기를 한 경우인데, 이는 주어진 이미지를 보고 주어진 감성 어휘와의 타당성 정도가 75%라고 표시한 것이다(Baek et al., 2006).

(4) 제 2차 설문에서 활용한 5점 척도

plentiful

100 75 50 25 0

따라서 (4)와 같은 측정 방법은 이미지를 보고 얻은 감성 어휘의 유의도 정도를 보여준다. 만일 피실험자가 주어진 이미지와 주어진 감성어휘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엔 *0*에 표시를 할 것이다.

5점 척도 설문 방법은 프로젝터를 이용하여 피시험자들에게 제한된 시간동안 각 이미지를 동시에 동일하게 보여주고 주어진 설문지에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이때 선과 평면을 보여주는 시간이나 응답하는 시간은 각각 달리했는데, 이는 피실험자 자신의 지식이나 앞서 보여준 이미지에 영향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다음 (5)는 이미지 투영과 응답에 제한한 시간을 보여준다.

(5) 척도 측정 제한 시간

	대상(갯수)	이미지(5초/각 이미지)	응답(20초/각 이미지)
선 (Line)	4	20 초	80 초
형태/평면 (Shape)	20	100 초	400 초

앞서 얻은 감성어휘들의 일반성을 평가하기위해, 척도 평가에 참여한 피실험자는 제 1차 설문에 참여한 피실험자와 다른 250명이었다. 결과는 모두 높은 수준의 평가 점수를 보여주었다. 이는 제 1차에서 얻은 감성어휘들이 유의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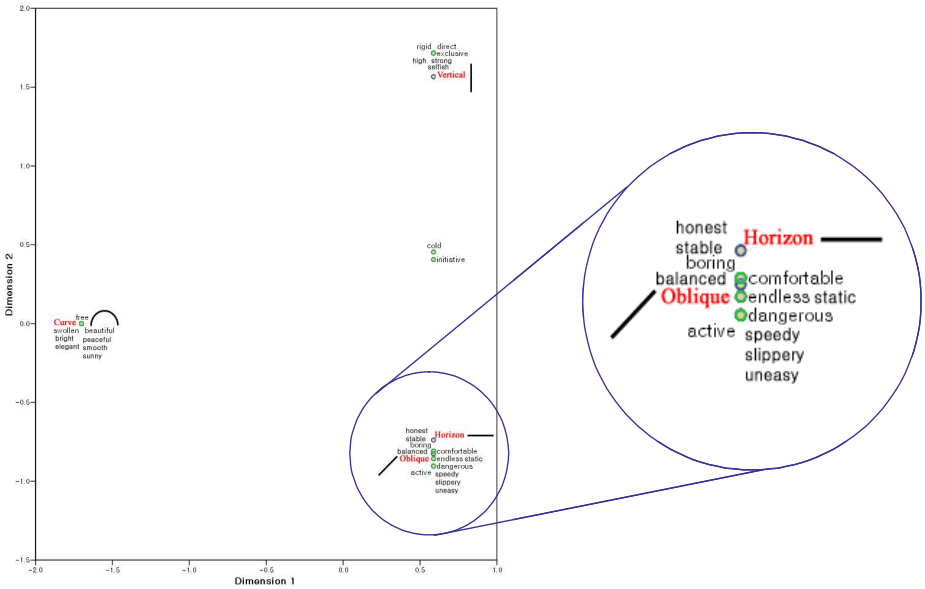
4.1.2 실험 결과

제 2차 설문의 결과는 통계를 이용하여 그림과 표로 나타내었다. 먼저 (6)은 선에 대한 감성어휘 척도이며, (7)은 형태에 대한 것이다(Baek et al. 2006). (6)과 (7)의 틀은 좌표를 나타낸다. 수평 좌표는 1차원을 보여주는 Dimension 1이고 수직 좌표는 2차원을 보여주는 Dimension 2이다. 다시 말해, *Dimension 1*과 *Dimension 2*의 수치는 형태가 차지하는 공간을 나타내는 좌표로 각 감성어휘들은 해당 형태별로 공간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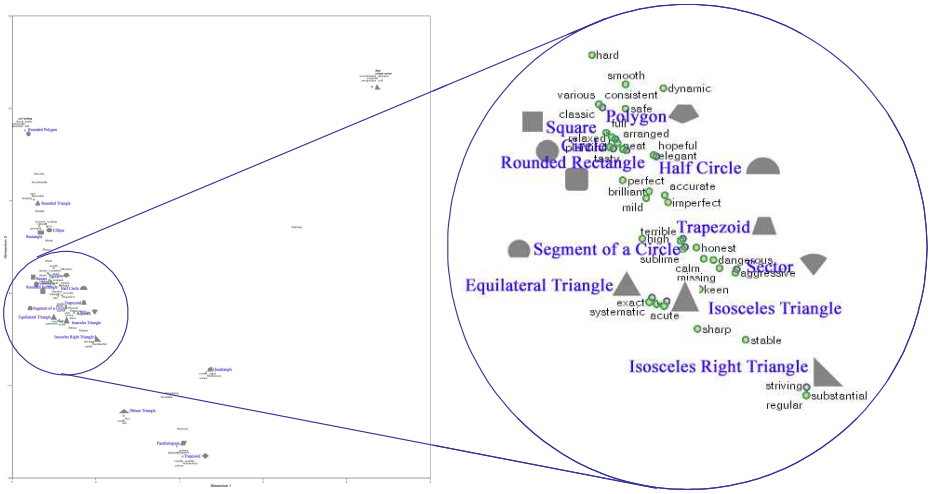
표의 결과를 볼 때, (6)의 직선이 차지한 위치와 (7)의 직선적 형태가 차지한 결

과는 다르다. 이것은 선과 평면을 분리하여 통계를 낸 이유와 같다.

(6) 선(Line)의 감성 척도



(7) 형태(shape)의 감성 척도



즉 기하학에서 선은 평면을 만들고 평면은 입체를 만들기 때문에, 이들은 서로 다른 영역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선에서 얻은 감성이 평면으로 만들어진 이미지에서 얻을 수 있는 감성으로 확장됐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8) 형태 감성어휘 척도 수치

형태 명	척도 수치		감성 어휘	척도 수치		감성 어휘	척도 수치	
	1	2		1	2		1	2
원(circle)	-0.537	0.103	풍부한	-0.547	0.107	짜증나게하는	3.361	2.325
타원(ellipse)	-0.585	0.720	가득찬	-0.556	0.145	후퇴하는	3.361	2.325
삼각형 (triangle)	3.305	2.234	온유한	-0.451	-0.028	이상한	2.352	0.716
정삼각형 (equilateral triangle)	-0.435	-0.291	완전한	-0.513	0.019	불편한	3.361	2.325
이등변정삼각형(isosceles right triangle)	-0.031	-0.527	안정된	-0.547	0.107	정확한	-0.443	-0.303
이등변삼각형 (isosceles triangle)	-0.397	-0.301	안전한	-0.505	0.208	예리한	-0.316	-0.374
둔각삼각형 (obtuse triangle)	0.332	-1.326	만족한	-0.547	0.107	위협적인	-0.423	-0.308
사각형 (quadrangle)	1.320	-0.858	따뜻한	-0.547	0.107	정밀한	-0.443	-0.303
정사각형 (square)	-0.532	0.128	아늑한	-0.595	0.750	따끔하게 찌르는	-0.443	-0.303
직사각형 (rectangle)	-0.663	0.697	반한	-0.595	0.750	체계적인	-0.443	-0.303

그러나 이들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선에 대한 감성어휘 결

과인 (6)을 보면, 직선(straight line)에 가까울수록 Dimension 1 값이 높고, 곡선은 Dimension 1 값은 낮지만 Dimension 2값이 높다. 즉, 곡선을 제외한 직선형들은 Dimension 1에서는 동일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곡선과는 달리 직선형들은 공통된 감성 특성(features)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형태의 감성어휘를 보여주는 (7)에서도 선의 감성어휘 (6)과 유사하게 곡선이 많이 포함될수록 형태는 Dimension 1에서는 낮고, Dimension 2에서는 높다. 형태에서도 선에서와 마찬가지로 곡선으로 만들어진 형태들끼리는 감성어적 특성이 밀접함을 볼 수 있다. 이번엔 감성어휘 좌표를 수치로 나타낸 (8)을 보자. *원*의 감성어 *짜증나게 하다*와 타원형의 *후퇴하다*는 수치가 동일하다. 이것은 원과 타원형의 감성어가 동일한 좌표 공간에 존재한다는 것이고, 결국 원을 보고 느끼는 부정적 감성과 타원형을 보고 느끼는 부정적 감성이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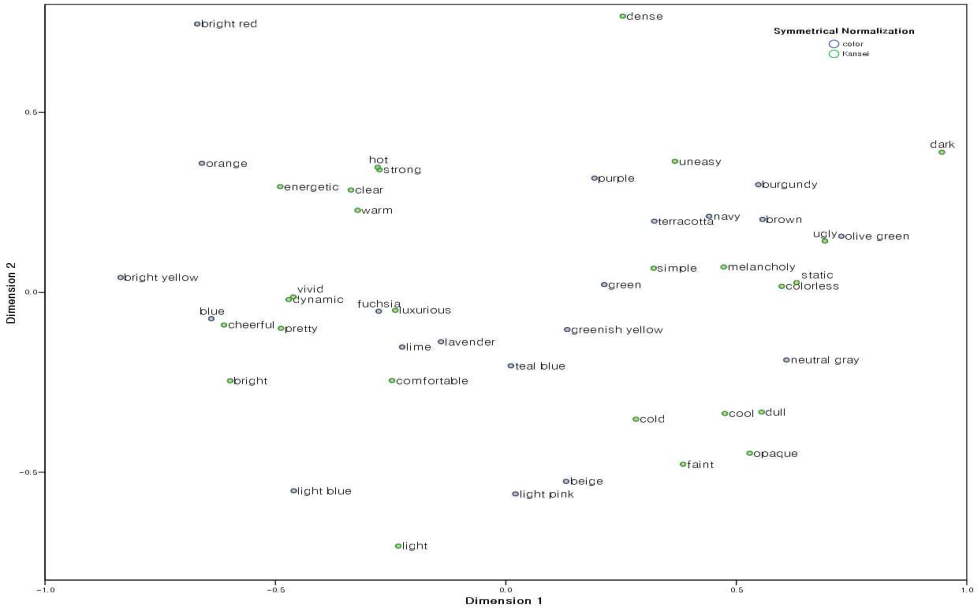
(9) 형태의 대표적 감성 어휘와 반의어

strange(낯선)	familiar(친숙한)
graceful(우아한)	awkward(우아하지 않는)
comfortable(편안한)	uneasy(불안한)
unique(독특한)	plain(평범한)
arranged(균형적인)	unorganized(균형적이지 않는)
crude(투박한)	decent(단정한)
beautiful(아름다운)	grotesque(괴상한)
sharp(예리한)	dull(무딘)
cute(작고 귀여운)	coarse(굵고 거친)
warm(따뜻한)	cool(시원한)
vivid(생기 있는, 발랄한)	colorless(생기 없는)
various(다양한)	same(일관된)
soft(부드러운)	harsh(거친)
simple(단순한)	complicated(복잡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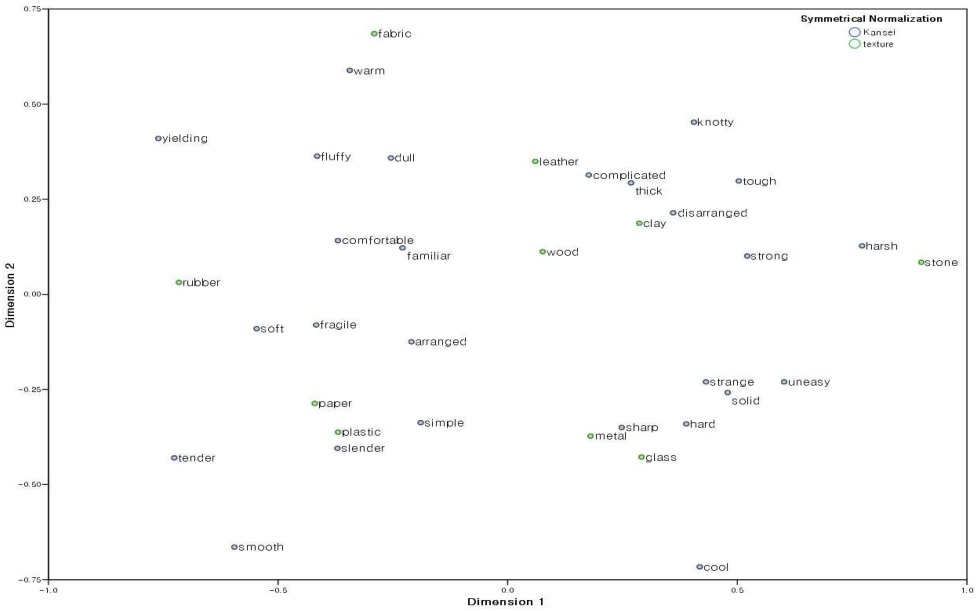
(9)에서는 본 실험을 통해 얻은 형태에 대한 최종적인 대표적 감성 어휘 14개를 보여준다. 이들은 제 3단계에서 얻은 각 형태들의 감성어휘의 동의어를 걸러내고, 반

의어는 따로 구분하여 빈도수가 높은 어휘들 위주로 선별해낸 것이다. 형태 외의 다른 시각정보, 색채, 질감, 그리고 패턴에 대한 결과는 백선경(2008)에서 볼 수 있다. (10)-(12)는 색채와 질감 그리고 패턴에 대한 감성 어휘를 좌표를 활용한 공간으로 나타낸 것이고, (13)은 이들 시각정보의 최종 감성어휘를 제시한 것이다(백선경, 2008, pp40-43, pp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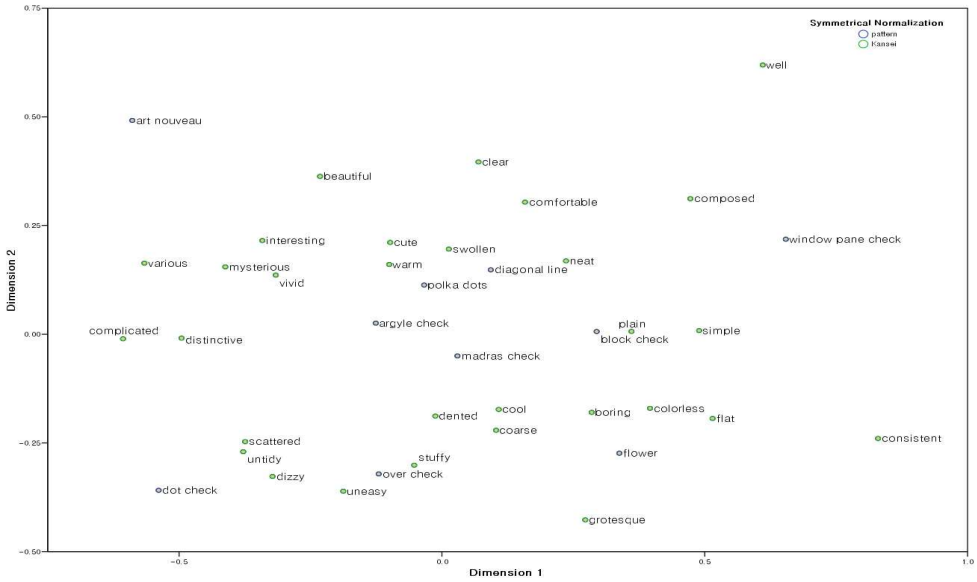
(10) 색채 감성 어휘



(11) 질감의 감성 어휘


Symmetrical Normalization
Kansei
texture
fabric
warm
knotty
yielding
fluffy
dull
leather
complicated
thick
tough
disarranged
clay
comfortable
familiar
wood
harsh
strong
stone
rubber
soft
fragile
arranged
strange
uneasy
solid
paper
simple
plastic
slender
sharp
hard
metal
tender
glass
smooth
cool
Dimension 1
Dimension 2

(12) 패턴의 감성 어휘


Symmetrical Normalization
pattern
Kansei
well
art nouveau
clear
beautiful
comfortable
composed
interesting
cute
swollen
window pane check
various
mysterious
warm
neat
diagonal line
vivid
polka dots
complicated
distinctive
argyle check
plain
block check
simple
madras check
dented
cool
boring
colorless
flat
coarse
consistent
scattered
untidy
stuffy
flower
dizzy
over check
dot check
uneasy
grotesque
Dimension 1
Dimension 2

(13) 시각정보 요소별 감성 어휘

색채(color)	bright(밝은) warm(따뜻한) clear(선명한) energetic(열정적인) pretty(예쁜) strong(강렬한) comfortable(편안한) luxurious(고급스러운) light(옅은) vivid(생기 있는, 발랄한) dynamic(활동적인) melancholy(우울한) hot(뜨거운)	dark(어두운) cool(시원한) opaque(흐릿한) dull(침체된) ugly(추한) faint(희미한) uneasy(불안한) simple(평범한) dense(짙은) colorless(생기 없는) static(정적인) cheerful(쾌활한) cold(차가운)
질감(texture)	soft(부드러운) tough(질긴) knotty(까칠까칠한) arranged(정렬된) warm(따뜻한) solid(단단한) comfortable(편안한) sharp(예리한) thick(두꺼운) fragile(약한) familiar(친근한) fluffy(뽀송뽀송한) complicated(복잡한)	harsh(거친) tender(연한) smooth(매끄러운) disarranged(정렬되지 않은) cool(시원한) yielding(말랑말랑한) uneasy(불편한) dull(무딘) slender(가느다란) strong(강한) strange(낯선) hard(딱딱한) simple(단순한)
패턴(pattern)	dizzy(어지러운) comfortable(편안한) simple(단순한) various(다채로운) stuffy(답답한) cute(귀여운) beautiful(아름다운) boring(지루한) vivid(생기 있는, 발랄한)	well(만족스러운) uneasy(불안한) complicated(복잡한) consistent(일관된) clear(탁 트인) coarse(굵고 거친) grotesque(괴상한) interesting(흥미로운) colorless(생기 없는)

	dented(오목한) scattered(산만한) mysterious(신비로운) neat(깔끔한) plain(평범한) warm(따뜻한)	swollen(볼록한) composed(침착한) flat(단조로운) untidy(깔끔하지 못한) distinctive(독특한) cool(시원한)

이러한 통계적 그림과 도표는 형태에 따른 감성 어휘가 유의적임을 보여준다. 즉 각 형태 속에 들어있는 직선이나 곡선이 지닌 기본적 의미 정보가 형태 별로 동일하거나 변화하는 것을 통해, 본 실험을 통해 얻은 어휘 결과물이 감성 어휘로 적절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4.2 감성 형용사의 의미적 속성

기존에 이루어진 영어 형용사에 대한 논의는 주로 통사적 특징과 의미적 범주를 보여주는 하위 분류였다. 그리고 통사적인 특징은 문장의 구조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며, 의미적 범주는 세우는 기준에 따라 혹은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되었다. 영어에 비해 의미(meaning)에 중점을 두고 논의가 많이 되어온 한국어 형용사에서도 문형과 제약을 다룬 통사적 특징과 의미 범주에 한계를 두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제 4.1에서 다룬 감성 형용사 실험을 통해 형용사는 통사적 그리고 의미적 특징 외에도 연관된 피수식어 대상이 갖는 자질 혹은 의미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온톨로지의 속성은 모든 개념을 통괄한다. 따라서 온톨로지에 적용된 형용사는 통사·의미적 속성을 포함할 뿐 아니라 수식의 대상이 되는 명사와의 관련성도 필요에 따라 보여주어야 한다. 이 때 형용사와 관련된 명사는 수식의 대상이기 때문에 결국 의미적 연관성이 나타나야 한다. 즉 영어 형용사에서는 어순을 통해 의미 범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의미적 하위범주들은 통사적 특징인 어순과도 관계하면서 동시에 수식 대상 명사와의 의미 속성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감성 형용사는 통사적 속성의 경우 대부분의 의미적 형용사 범주와 동일한 일반

적 속성을 지닌다. 이것은 감성 형용사가 포함될 수 있는 의미 범주가 지시어(demonstrative)와 같은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형용사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으로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4.1에서 얻은 시가정보의 감성 형용사 자료를 가지고 기존에 분류된 형용사의 의미 범주에 적용해봄으로써 동일한 의미 속성 혹은 범주를 지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14)는 민재기(1996)에서 언급한 일반적인 영어 형용사의 의미 범주이고 (15)는 실제 미국에서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제시되는 의미 범주이다. (14)의 의미 범주는 주로 어순을 다루면서 제기된 범주라면, (15)는 학생들에게 형용사의 의미를 이해시키기 위해 열거된 범주이다.

(14) 영어 형용사의 일반적 의미 분류 1 (민재기, 1996, pp1)

명사 기능 (nominal)	bed, sleeping, frying, ...
물질 (material)	wooden, gold, iron, ...
국가/지역 (national/regional)	Americal, Korean, ...
신/구 (new/old)	new, old, young, ...
색채 (color)	gray, dark, yellow, ..
형태/특징 (shape/character)	plane, cubic, triangle, ...
크기 (size)	big, small, tall, ...
판단 (judgement)	intelligent, good, better, ...
수 (numerical)	one, two, three, ...
지시 기능 (demonstrative)	this, that, which, ...

(15) 영어 형용사의 일반적 의미 분류 2

(http://www.learn4good.com/languages/evrd_grammar/adjectives_prepos.htm)

의견 (opinion)	silly, beautiful, horrible, ...
크기 (size)	large, tiny, enormous, ...
나이 (age)	ancient, new, young, ...
모양 (shape)	square, round, flat, ...
색채 (color)	blue, pink, reddish, ...
기원 (origin)	French, lunar, American, ...
물질 (material)	wooden, metal, cotton, paper, ...
목적 (purpose)	sleeping (bag), roasting (tin) ...

일반적인 의미적 관점에서 고려해 보건대, 감성형용사는 (14)에서 *판단* 범주에 속

하며 (15)에서는 *의견* 범주에 속한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사물을 보고 느낀 감성은 개개인의 판단이나 의견에 근거를 두기 때문이다. 그럼 이번에는 (9)에서 보았던 형태에 관한 감성 형용사를 (14)와 (15)에 각각 적용해 보겠다.

(16) 영어 형용사의 일반적 의미 분류에 감성 형용사 적용 1

형태/특징 (shape/character)	cute(작고 귀여운), crude(투박한), sharp(예리한), decent(단정한), coarse(굵고 거친), dull(무딘), ...
판단 (judgement)	strange(낯선), graceful(우아한), comfortable (편안한), unique(독특한), arranged(균형적인), crude(투박한), beautiful(아름다운), sharp(예리한), cute(작고 귀여운), warm(따뜻한), vivid(생기 있는, 발랄한), various(다양한), ...

(17) 영어 형용사의 일반적 의미 분류에 감성 형용사 적용 2

의견 (opinion)	strange(낯선), graceful(우아한), comfortable (편안한), unique(독특한), arranged(균형적인), crude(투박한), beautiful(아름다운), sharp(예리한), cute(작고 귀여운), warm(따뜻한), vivid(생기 있는, 발랄한), various(다양한), ...
모양 (shape)	cute(작고 귀여운), crude(투박한), decent(단정한), coarse(굵고 거친), dull(무딘), ...

(16)은 영어 형용사의 일반적 의미 분류표1 (14)에 적용한 것이고, (17)은 영어 형용사의 일반적 의미 분류표2 (15)에 적용해 본 것이다. (16)을 보면, 대부분이 판단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작고 귀여운*의 뜻을 지닌 *cute*는 *판단* 뿐 아니라 특징, 혹은 크기 범주에도 포함될 수 있다. *작고 귀엽다*라는 의미는 어떤 대상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일 수 있으나 크기가 작다 혹은 그 대상의 특징으로 서술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예리한의 의미를 지닌 *sharp*의 경우도 판단 뿐 아니라 형태/특징 범주에도 해당될 수 있다. *예리하다* 혹은 *날카롭다*라는 것은 대상에 대한 판단도 해당되지만, 그 사물의 특징을 말하는데도 사용되기 때문이다. *cute(작고 귀여운)*와

*sharp(예리한)*의 반의어로 사용된 *coarse(굵고 거친)*와 *dull(무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15)에 적용한 (17)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형태 감성어 모두 의견(opinion) 범주에 소속될 수 있으니, *cute(작고 귀여운)*의 경우는 크기(size) 범주에 그리고 sharp(예리한)는 모양 범주에 속할 수도 있다.

(13)의 시각정보 요소별 감성 어휘에서 보았던 감성 형용사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어휘들이 일차로는 판단(judgement)이나 의견(opinion) 범주에 들어갈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크기(size)나 특징(character), 혹은 모양(shape) 범주에 속하기도 한다. 특히 질감(texture)의 경우엔 촉각의 느낌을 전달하기 때문에 대상의 특징(character)을 보여주는 어휘들이 많다. 이렇게 한 어휘에 대한 의미적 범주가 교차되는 것은 2.2.2에서 살펴본 한국어 형용사의 의미적 특징에서도 언급되었던 내용이다. 그리고 그러한 교차현상을 설명하기위해 유현경(1998)과 김정남(2003)에서는 통사적 자질이나 문형 등을 통해 해결하려고 했었다.

이번에는 제 2장의 의미적 특징에서 결론으로 얻은 영어 형용사의 의미 범주와 한국어 형용사의 의미 범주 결과에 감성 형용사를 적용해 보겠다. (18)은 2.1.2절의 (64)의 영어 형용사의 의미적 하위 범주에 감성 형용사를 대입해 본 예이고, (19)는 2.2.2절의 한국어 형용사의 의미적 하위 범주 (140)에 대입해 본 경우이다. 이 때 해당되는 감성 형용사가 발견되지 않은 범주는 (16)-(17)에서처럼 제외시켰다.

(18) 영어 형용사의 의미 범주에 감성 형용사 적용

목적/성향/상태 (purpose/inclination)	comfortable(편안한), uneasy(불안한), strong(강렬한), faint(희미한), dynamic(활동적인), static(정적인), ...
크기/모양/기질/객관 (size/shape/temperature /objective)	arranged(균형적인), unorganized(불균형적인), crude(투박한), decent(단정한), cute(작고 귀여운), coarse(굵고 거친), tough(질긴), tender(연한), ...
행위적 특징/주관적 (temperature/behavioral characteristic/ subjective)	graceful(우아한), awkward(우아하지 않은), unique(독특한), plain(평범한), vivid(발랄한), colorless(생기 없는), pretty(예쁜), ugly(추한), ...

(19) 한국어 형용사의 의미 범주에 감성 형용사 적용

정서/심리	답답한(stuffy), 지루한(boring), 낯선(strange), 편안한(comfortable), 우울한(melancholy), 친근한(familiar), ...
판단/**감각**/이지(가능)	걱정스런(anxious), 초조한(nervous), 고집스런(stubborn), 산만한(scattered), 오목한(dented), 따뜻한(warm), 신비로운(mysterious), 만족스러운(well), ...
태도	반항적인(resistant), 폭력적인(violent), 노력하는(endeavoring), 자유로운(free), 친근한(familiar), 파괴적인(destructive), ...
성상/형상/성질	투박한(crude), 따뜻한(warm), 뽀송뽀송한(fluffy), 어지러운(dizzy), 다채로운(various), 아름다운(beautiful), ...
기준(비교/조건/대칭)	단절된(severed), 분할된(divided), 반사적인(reflective), ...
분포/장소교차	가득 찬(full), 꽉 찬(jam-packed), 부족한(short), 결핍된(lack), 텅 빈(empty), ...
대응	아름다운(beautiful), 서투른(awkward), 부족한(short), ...

(18)과 (19)에서 보듯이 감성 형용사는 영어 뿐 아니라 한국어에서도 여러 의미 범주에 걸쳐 나타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형용사의 실제 쓰임새에 대한 관점이 문형(structural frame)에 국한되어 논의되어져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온톨로지 접근은 기존에 행해진 통사적 특징과 의미적 특징을 포함하면서, 실제 수식 대상과의 의미적 연결이 필요하다. 온톨로지 설명은 모든 대상에 대한 실제적 개념을 위계화하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설명은 앞서 논의된 형용사의 의미 범주 교차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도 있다.

5. 온톨로지 구축 기반 형용사 분류 제안

지금까지 영어 형용사에 대한 논의는 언어학적 관점에서 뿐 아니라 전산학적 관점에서도 계속되어져 왔고, 지금도 그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언어학적 관점에서 논의되어온 형용사는 통사적 접근이나 어휘적 접근, 혹은 의미적 접근에서 문장 구조를 중심으로 그 특징을 서술하고 다른 범주와의 차이점을 열거하며, 그들 간의 관계를 명시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다. 반면, 전산학적 관점에서는 실용적인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인간의 언어적 성격을 파악하여 컴퓨터가 스스로 프로세스 할 수 있도록 인공 지능화하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언어학적 관점에서 논의되어온 형용사의 특징들은 전산학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어왔던 온톨로지(Ontology)를 기반으로 구조화될 때, 형용사의 통사적·의미적 특징만으로는 적절하게 포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제 2장에서는 기존에 다루어진 영어의 통사·의미적 특징을 살펴보았었다. 또 영어에서와 마찬가지로 품사적으로 형용사로 명확하게 존재하며 통사·의미적 속성을 지니는 언어로 한국어 형용사의 특징도 알아보았다. 이는 온톨로지 구축을 기반으로 하는 논의에서는 의미적 속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의미를 중점으로 많이 이루어진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했다. 게다가 국내에서 실시할 수 있는 설문실험 대상으로 한국인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도 이유가 되었다.

물론 영어 형용사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에, 영어 형용사가 한국어 형용사와 상호 비교 될 때 발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고려해야만 했다. 하지만 각 언어의 형용사의 통사·의미적 특징을 살핀 결과 한정어로 사용되는 어휘 범주의 차이만이 있었다. 의미적으로는 각 언어별로 나름대로의 의미 범주를 지니고 있었고, 이들은 상호 호환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은 것 같다. 앞 절에서 감성 형용사 적용 결과인 (18)-(19)를 보면, 단지 의미 범주를 설정하는데 차이가 있을 뿐이었다. 이러한 의미 범주의 차이는 각 언어에서 논의하려는 기준의 차이이기도 하다. 가령 영어 형용사의 의미범주는 어순(word order)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었다면, 한국어 형용사에서는 구조와 맞물려 전체적인 구도를 설정하려는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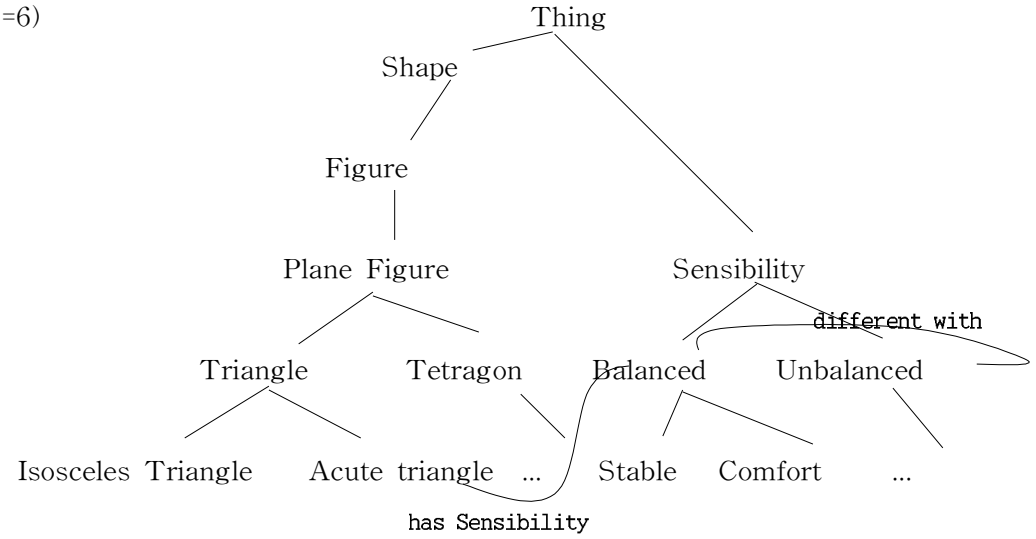
다. 제 4장을 보면 한국어 감성 자료를 영어 형용사로 번역하면서, 영어와 한국어의 상호 비교가 오히려 어휘 정리를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예를 들어, 한국어 형용사 *편안한/안락한*은 영어 *comfortable*로 정리되었고, *부드러운/온화한*은 *smooth*로, 또 *불쌍한/가련한*은 *piteous*로 정리되기도 하였다

형용사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걸쳐 영어와 한국어의 의미 범주가 정리되었다. 하지만 온톨로지는 모든 개념의 속성을 위계화하기 때문에 통사적 특징이나 의미적 특징만으로는 그러한 개념을 확립할 수 없었다. 이런 이유로 온톨로지 구축을 위한 형용사 개념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확인하기위해 제 4장에서는 실험을 통해 시각정보 중심 감성 형용사를 추출하여 기존의 형용사들이 지닌 속성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통사적 특징은 여전히 공유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의미적 분류에 대해서는 교차현상이 발생하였다. 즉 감성이라는 범주의 형용사가 영어 형용사와 한국어 형용사의 의미 범주의 특정 범주를 차지하지 않고 여러 범주에 걸쳐 나타난 것이다. 이 교차 현상에 대해서는 제 2장에서 살펴 본 유현경(1998)이나 김정남(2003)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이들 논의에서는 그러한 교차현상을 피하기 위해 문장 구조와 관련시켜 설명하려고 했다. 하지만 4.2에서 확인하였듯이, 감성 형용사를 적용해 보았을 때 여전히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제 1장의 (6)번에서 보여준 온톨로지 개념을 따라 새로운 형용사 분류를 제안하고자 한다.

온톨로지 개념에서는 어떤 사물이 제시되면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속성이 하위에 나타나고, 그 하위에 나타난 속성들에 대한 적절한 속성들이 또 다시 하위에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하위 개념들이 위계적으로 구성된다. 제 1장에서 예를 들었던 (1)이나 (6)과 같은 그림이 그러한 개념을 보여준 것이었다. (6)을 다시 여기에서 (1)로 예로 들면, 어떤 대상이 주어지면 그 대상의 속성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으로 모양 등이 나타나고, 이 모양은 또 다시 모양을 구성하는 하위 속성으로 형태나 색채 등이 나타난다. 그러면 형태나 색채는 또 다시 그에 해당되는 속성들이 하위 위계를 구성한다. 그렇다고 이 하위 위계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맨 마지막 속성들은 (1)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또 다시 다른 상위적 개념이나 하위적 개념들과의 연관된 속성들이 또 다시 제시된다. (1)에서는 형태에 따른 감성 어휘의 관계를 예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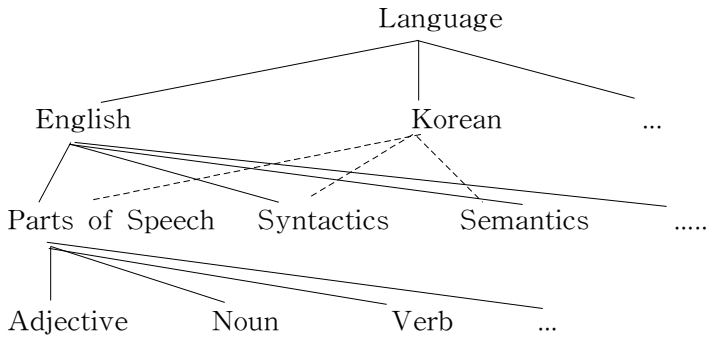
나타낸 것이다.

(1=6)



이제 이 개념을 형용사에 적용시켜보자. 먼저 형용사는 (2)에서처럼 크게 언어(language)에서 출발하여 여러 나라의 언어로 구분되고, 각 언어 속에는 여러 가지 언어의 특징을 이루는 속성들이 개념적 위계를 이룰 것이다.

(2)



형용사는 그 속성으로 통사적 그리고 의미적 특징을 가진다. 또 그 외에도 제 4장에서 본 것처럼, 형용사는 수식하는 대상과 밀접한 의미적 관계도 지닌다. 하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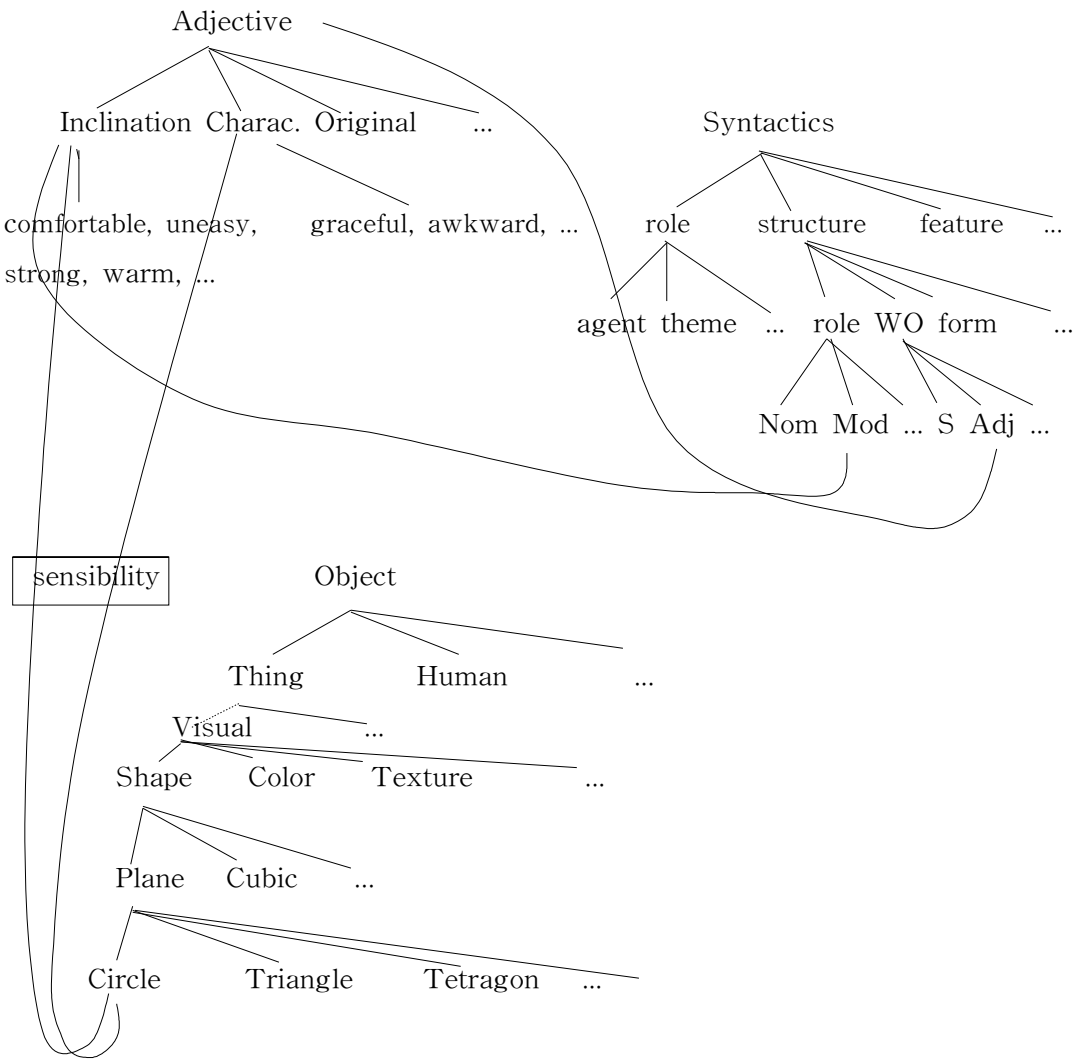
형용사의 직접적 하위 개념은 의미 범주이다. 형용사 범주에 속하는 어휘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맨 상위 개념인 형용사에서 직접적인 하위 범주를 만드는 의미 범주들은 다시 더 구체적인 속성 범주가 하위에 제시된다. 형용사 어휘들은 최하위 범주에 나열된다. 형용사와 관련된 통사적 특징이나 의미적 관계, 그리고 수식 대상과의 의미적 관계는 형용사 범주에 직접적으로 하위화 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특징들은 독립적인 상위적 개념에 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어휘들이 갖는 통사적 특징은 필요에 따라 중간 단계의 의미 범주와 연결되고 실제 대상과의 관계도 그 대상에 대한 개념적 위계의 범주들과 연결될 것이다. 영어 형용사를 적용시켜보자.

(3) 영어 형용사의 의미적 하위 범주[22)]

재료(material)	wooden, silver, metallic, plastic, glass, paper, ...
국적/영역/기원 (national, regional, or original)	French, lunar, American, eastern, Greek, ...
색채(color)	blue, pink, reddish, grey, ...
목적/성향/상태 (purpose/inclination)	racing, fishing, foldout, ...
시대(age)	ancient, new, young, old, ...
크기/모양/기질/객관 (size/shape/temperature /objective)	large, tiny, enormous, little, square, round, flat, rectangular, ...
행위적 특징/주관적 (temperature/behavioral characteristic/ subjective)	beautiful, ugly, easy, fast, interesting, cautious, apologetic, ...
가능성/잠재력 (possibility/potentiality)	able, adaptable, approachable, available, capable, creditable, ...
기수(cardinal number)	one, two, three, ...
서수(ordinal number)	first, twice, ...
소유격/관사(possessive/article)	my, your, a, the, ...

(4) 영어 형용사의 온톨로지 개념 적용

22) 2.1.2 절의 (64) 참조.



(3)은 2.2.2절에서 다루었던 영어 형용사의 의미 범주 분류표이다. 그리고 (4)는 (3)의 영어 형용사가 갖는 속성들을 맵핑해 본 것이다. 먼저 영어 형용사는 어순에 상관없이 의미적 범주가 하위에 연결된다. 어순(WO)은 통사적 특징이기 때문에 통사부에 제시되며, (4)에서처럼 맵핑(mapping)에 의해 그 특성이 제시될 것이다. 또 수식어나 구조적 위치와 같은 형용사의 통사적 특징도 통사부라는 독립된 개념에서 위계화되며 형용사의 통사적 특징으로 맵핑을 이룰 것이다. 이 때 통사적 특징인

수식어 개념 Mod가 형용사부의 상위에 맵핑되지 않는 것은 *alive, asleep, ...* 등과 같이 모든 형용사가 수식어(modifier)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4)에서 형용사가 수식 대상과 관련해서 지니는 의미적 특징에 대한 온톨로지 위계는 주어진 대상에 대한 인간의 감성을 예로 들어 보았다. 즉 어떤 대상은 먼저 상위의 개념으로 인간인지 사물인지 식물인지 그 종류를 밝히게 되고, 이어서 각 종류마다 개념적 하위 속성들을 갖는다. 그리고 어떤 속성에 대해서는 시각적 속성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시각적(visual) 속성으로 모양이나 색채 등이 주어지며, 모양에는 평면이나 입체와 같은 모양의 하위 개념이 들어오고, 평면 아래에는 원이나 삼각형과 같은 일차원적 모양이 하위 개념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그 개념들과 관련하여 감성 정보가 요구되면 감성(sensibility)이라는 또 다른 위계와 연결되어 감성을 표현하는 감성 형용사와 맵핑을 이루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원(circle)을 보고 느낀 감성 정보는 인간의 감각을 다룬 독립적 위계에서 감성(sensibility)과 관련하여 감성을 나타내는 어휘부 속의 warm, graceful, full, beautiful, ...등과 같은 감성 형용사와 맵핑(mapping)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한국어 형용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5) 한국어 형용사의 의미적 하위 범주[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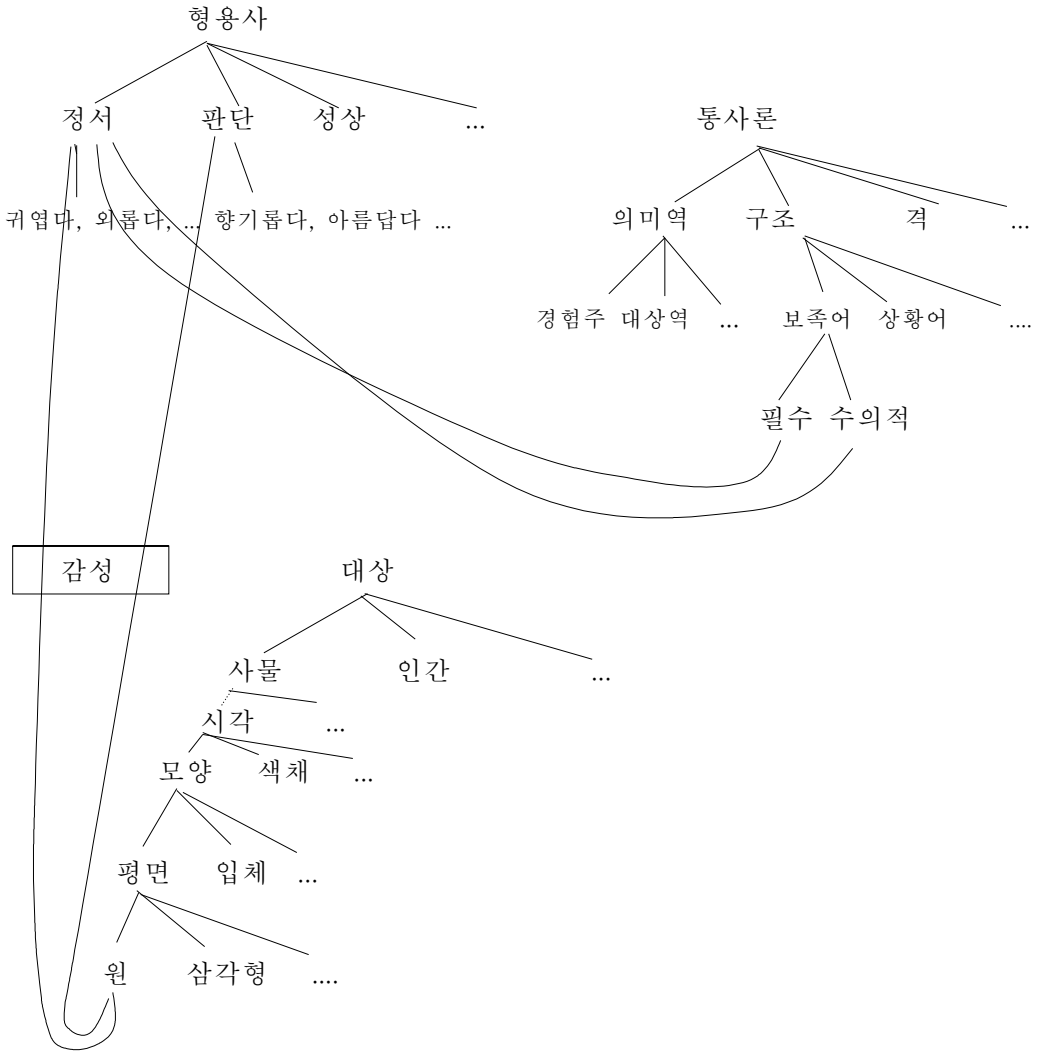
정서/심리	심심하다, 외롭다, 무섭다, 기막히다, 좋다, 섭섭하다, 경이롭다, 귀엽다, 달갑다, 갑갑하다, 고통스럽다, 흡족하다, 쓸쓸하다, 부끄럽다, ...
판단/**감각**/이지(가능)	괜찮다, 마땅하다, 소용없다, 시원찮다, 기쁘다, 고프다, 느끼하다, 향기롭다, 딱딱하다, 매끄럽다, 거북하다, 따갑다, 대견하다, 가소롭다, 경이롭다, 근사하다, 비근하다, 고유하다, 능하다, 관대하다, 무력하다, 서투르다, 친숙하다, 아프다, 당연하다, 보통이다, 뻔하다, 자명하다, ...
태도	각별하다, 공정하다, 자상하다, 얌전하다, 명랑하다, 열렬하다, 각박하다, 강경하다, 거칠다, 건방지다, 냉정하다, 인색하다, 모질다, 단호하다, ...

23) 2.2.2 절의 (140) 참조.

성상/형상/성질	가늘다, 가볍다, 굳다, 길다, 날쌔다, 더럽다, 따뜻하다, 두껍다, 말끔하다, 뾰족하다, 시큼하다, 충성스럽다, 크다, 푸르다, 흐리다, 두툼하다, 얄팍하다, 막대하다, 광활하다, 웅대하다, 튼튼하다, 크다, 넓다, 큼직하다, 다부지다, 대법하다, 솔직하다, 야무지다, 엉뚱하다, 냉담하다, 고소하다, 모질다, 단호하다, 다채롭다, 맵다, 매끄럽다, 심하다, 색채형용사류, ...
소재	있다, 드물다, 수두룩하다, 없다, 허다하다, ...
소유	있다, 없다, ...
지정	이다, 아니다, 같다, 틀림없다, 옳다, 한량없다, ...
기준(비교/조건/대칭)	가깝다, 걸맞다, 다름없다, 불과하다, 진배없다, 간편하다, 나쁘다, 난감하다, 부적당하다, 부족하다, 빠듯하다, 무난하다, 손쉽다, 쉽다, 용이하다, 같다, 다르다, 멀다, 가깝다, 친하다, 유사하다, 밀접하다, 열악하다, 낫다, 월등하다, 우세하다, 수월하다, ...
분포/장소교차	가득하다, 수북하다, 많다, 자욱하다, 허다하다, 즐비하다, 충만하다, 빽빽하다, 흥건하다, 글썽하다, 보얗다, 빠듯하다, 시끄럽다, 울창하다, 파다하다, 희부옇다, ...
대응	강하다, 급급하다, 나쁘다, 알맞다, 약하다, 유리하다, 유용하다, 유익하다, 유효하다, 이롭다, 적당하다, 적절하다, 좋다, 해롭다, ...

(5)는 2.2.2절에서 정리되었던 한국어 형용사의 의미 범주이고, (6)은 이에 대해 온톨로지 개념을 적용해 본 것이다. 한국어에서도 영어에서와 마찬가지로 형용사부에 위계적으로 하위 범주화되는 것은 어휘와 직접적으로 관련해서이다. 따라서 형용사부에는 상위 범주로 의미 범주가 설정되고 그 아래로 어휘가 나열된다. 그리고 (6)에서 보는 것처럼, 형용사가 지니는 통사적 특징은 통사부라는 다른 독립된 위계와 관련되어 맵핑을 이루게 될 것이다. 또 서술 대상과 관련된 의미적 속성에 대해서도 다루려는 개념에 부합한 어휘들과 맵핑을 이루게 될 것이다. (6)에서는 (4)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사물을 보고 느끼는 감성에 대한 개념을 위계화한 예를 들어 보았다. 온톨로지 개념을 대입했을 때, 영어 형용사와 한국어 형용사의 차이는 영어와 한국어가 갖는 통사적 차이가 주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4)와 (6)의 차이점도 통사부에서만 발견될 것이다.

(6) 한국어 형용사의 온톨로지 개념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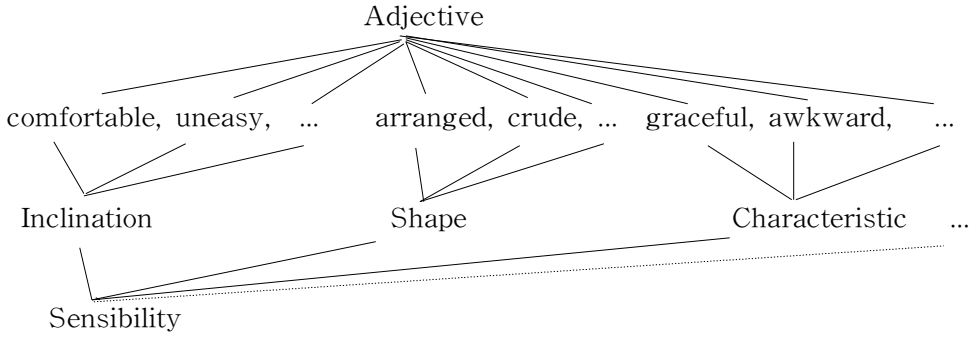


(4)와 (6)은 영어 형용사와 한국어 형용사의 온톨로지 활용을 예로 들어 본 것이다. 그러나 영어와 한국어 형용사 둘 다 형용사부에 하위로 자리 잡은 하위 범주는 언어를 발화하는 화자 입장에서 그 의미를 일반적으로 하위적으로 범주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2.1.2에서 다룬 영어 형용사의 의미적 속성에서도

발화하는 문맥에 따라 어순(word oder)이 달라졌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 의미 범주에 속한 어휘들이 다른 범주에 소속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2.2.2절에서 다룬 한국어 형용사에서도 유현경(1998)의 논의를 보면 주관적 혹은 객관적 형용사가 상황에 따라서는 객관적 혹은 주관적으로 교차되어 소속될 수 있다는 설명을 보았다. 이런 이유로 문형을 통해 형용사를 분류해보려고 하지만 주관적 형용사의 문형과 객관적 형용사의 문형이 동일한 부분도 있다. 2.2.2절의 (129)와 (130)을 대조해 보면 그러하다. 이런 유사 문형의 차이는 주어의 의미역이었다. 즉 주관적 형용사로 활용된 경우 주어는 경험주인 경우로 제한되었다. 결국 주관성과 객관성은 화자의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김정남(2003)에서도 비상관적 형용사와 상관적 형용사의 차이를 발화상에 나타나는 대상이 2개인가 아닌가를 그 기준으로 하였었다. 이것은 주어가 판단자가 될 때 사용된 형용사는 상관적 형용사라는 설명이다. 비록 비상관적 그리고 상관적 형용사의 분류가 화자의 개입에 따르지 않고 문장에 판단자가 나타나느냐에 따른 입장이기는 하지만, 이는 형용사의 어휘적 분류가 아닌 사용 결과사의 분류임을 알 수 있다.

온톨로지의 구축은 주어진 대상에 대해 포괄적 내용에서 세밀한 내용까지를 위계로 다루고 있지만 관련된 대상과의 연관성이나 활용으로 인한 속성들 모두 한 대상에서 위계되지 않는다. 즉 (4)와 (6)에서처럼 관련 속성은 맵핑(mapping/linking)을 통해 나타난다. 따라서 온톨로지 구축을 위한 형용사는 (7)에서처럼 역방향적 위계가 더 적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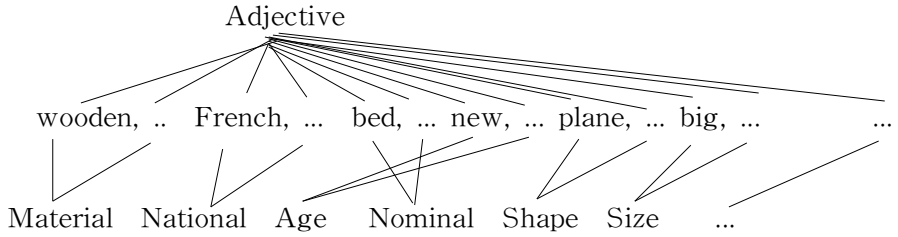
(7)



기존 형용사 분류를 이용한 (4)에서는 상위범주 Adjective에서 화자의 기준을 근거로 의미적 하위 범주를 내세웠다. 그리고 그 범주들 속에 해당 어휘들을 기록하였다. 반면에 (7)에서 보는 새 분류에서는 상위범주 Adjective에 원래의 형용사 어휘들이 나열되고, 이들은 그 의미적 속성에 따라 하위적으로 범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그 하위로 더 구체적 속성이 열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4.2절의 (18)에서 본 감성을 나타내는 영어 형용사는 여러 의미적 하위 범주에 걸쳐 다범주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7)에서처럼 어휘의 의미적 속성을 나타내는 하위 범주들 Inclination, Shape, Characteristic, ... 등에 모두 분산되어 맵핑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온톨로지의 특성으로 인해 형용사의 의미 범주는 더 구체적으로 범주화될 수도 있다. 앞에서 보았던 (3)과 (5)의 분류표는 제 2장에서 다룬 의미적 특징에서 여러 학자들의 논의를 통해 비슷한 속성끼리 묶어 범주화 해놓은 것이지만, 온톨로지의 구체적인 개념적 위계를 위해서는 (8)에서와 같이 필요에 따라 더 많은 의미 범주로 나눠볼 수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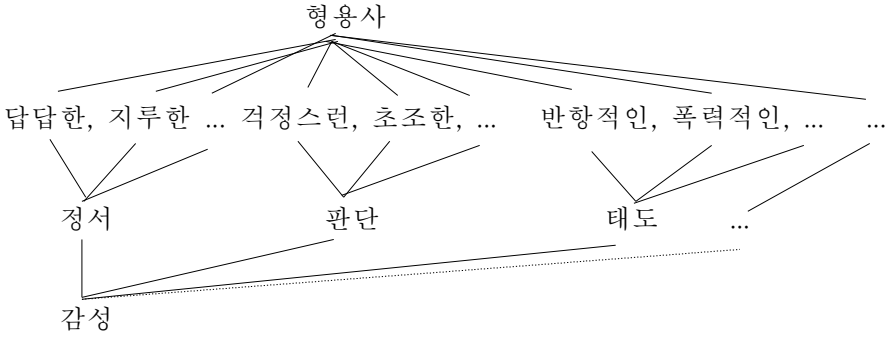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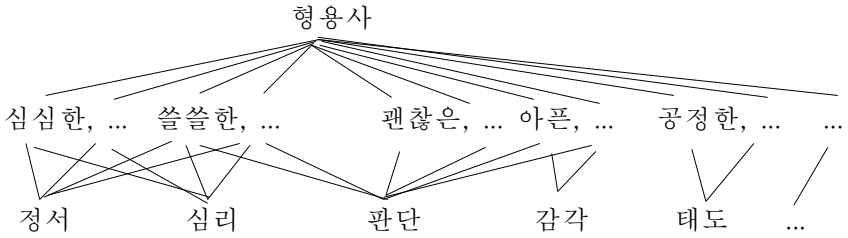
(8)처럼 세분화된 의미 범주일수록 온톨로지 상에서는 더 구체적인 의미를 그 하위에 열거하거나 맵핑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바람직하다.

이러한 분류는 한국어 형용사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9)에서 보듯이, 기존에 논의된 형용사의 의미적 하위 분류표를 적용하되, 주관적/객관적 혹은 비상관적/상관적 기준을 내세울 필요가 없다. 이들 형용사는 필요에 따라 요구되는 영역에서 맵핑되어 개념화 될 것이다.

(9)



(10)



(9)에서 형용사의 의미적 하위 범주는 더 다양화될 수 있다. 즉 앞서 본 (5)의 분류는 10개의 범주로 분류되어 있지만 더 세밀한 속성을 드러내기 위해 더 상세하게 분류하여 나타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류는 다른 위계 범주들과의 속성을 더 잘 드러내 줄 것이다.

6.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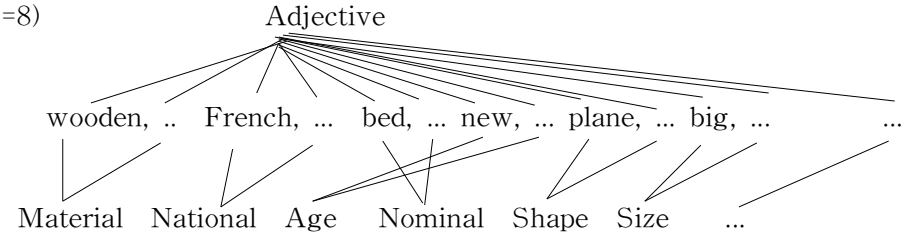
최근에 발달하고 있는 전산학적 온톨로지 구축은 개념을 위계화하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온톨로지 구축 기반을 위한 언어학적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 중에서도 영어 형용사의 의미적 분류를 중점으로 다루고 있다. 또 한국어 형용사도 분류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는 한국어 형용사는 영어에서와는 달리 의미를 중심으로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기 때문에 영어 형용사 논의에서 보여줄 수 없는 속성을 비교할 수 있는 이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형용사의 의미 속성을 분석하기위해 활용한 실험에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했다. 형용사의 의미에 대한 두드러진 강조는 온톨로지의 내용이 개념적 위계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즉 모든 대상들이 지닌 속성들이 위계적으로 구성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 개념적 위계 내에는 각 대상들이 갖는 직접적 의미적 속성들이 열거되기도 하지만 상호간에 연관된 속성들도 맵핑(mapping)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

기존에 다루어진 영어 형용사에 대한 논의는 제 2장을 통해 주로 통사·의미를 중심으로 다루어져왔음을 확인하였다. 여기에서 영어 형용사에 대한 통사적 논의는 주로 한정 기능과 하위 범주를 갖는 어휘적 특징, 그리고 구조적 특징이었고, 의미적으로는 통사적 자질과 관련하여 의미역이나 어순 등에 관련한 것이었다. 그리고 의미와 관련하여서는 어순을 중심으로 논의된 형용사의 의미적 하위 범주를 살펴보았었다. 이들 의미적 하위 범주는 학자들 마다 논의의 차이는 있었지만 유사개념을 통해 최종적인 의미 범주를 얻어내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들이 영어 형용사가 언어적으로 가진 특징을 논한 것이기는 하지만, 모든 개념을 드러내는 온톨로지에 그대로 대입하는 데는 문제점이 있다. 온톨로지에 영어 형용사를 적용해보려고 할 때, 통사·의미적 속성이 내포되어야하지만 그 외에도 다른 대상과 연관되어 나타나는 의미적 속성도 포함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의미를 중심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한국어를 대조적으로 살펴보았지만 여기에서도 여전히 형용의 속성으로는 통사·의미적 특징만을 얻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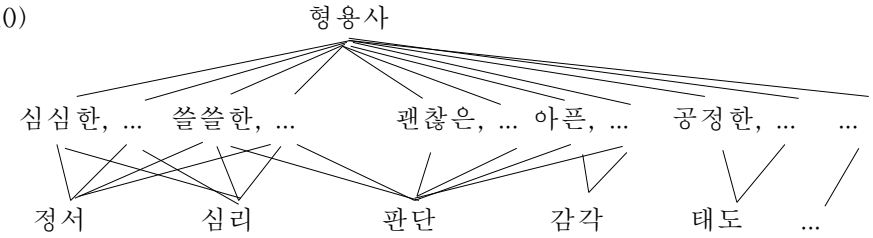
형용사를 온톨로지에 대입할 때 다른 대상과 연관된 의미적 속성이 필요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제 3장과 4장에서 실험을 제시하였다. 이 실험은 형용사 어휘가 다른 대상과 관련하여 나타내는 속성을 기존에 논의된 형용사의 의미적 하위 범주에서 잘 보여주는지를 파악하려는 의도에서 활용되었다. 그 결과 실험을 통해 얻어낸 감성 형용사는 기존에 논의된 영어와 한국어 형용사의 의미적 하위 범주에서 여러 범주에 걸쳐 나타난다는 것이 4.2절에서 확인되었다. 이것은 기존의 의미 범주가 모든 의미적 속성을 내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한국어 형용사를 다룬 유현경(1998)이나 김정남(2003)에서도 그런 교차적 현상 때문에 의미 보다는 문장의 구조와 연관시켜 형용사의 의미 범주를 설명하려고 했다. 그러나 온톨로지를 구축하기위해서는 의미적 위계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제 5장에서는 온톨로지 관점에서 형용사 분류를 제안하게 되었다. 이것은 제 5장의 (8)과 (10)에서 보여준다. 형용사의 온톨로지 분류에 대한 구체적 예는 (7)과 (9)에서 보여주는데, 하위범주는 (8)과 (10)에서처럼 더 세밀하게 분류될 필요가 있다.

(1=8)



(2=10)



세밀하게 분류된 범주는 관련된 대상과의 의미를 더 자세히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형용사 범주가 갖는 통사적 특성이나 다른 의미적 특성은 형용사 어휘

가 지닌 의미에 국한되지 않고 통사부나 의미부와 같은 독립된 위계에서 맵핑되기 때문에 이들 의미 범주가 그러한 특성들로 인해 제한받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 제안은 분명 온톨로지 구축을 위한 기반에 구체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1)과 (2)와 같은 분류 제안은 향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먼저는 더 세밀한 의미 범주를 온전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영어와 한국어 형용사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의미 범주를 구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한 의미 범주를 본 논문의 제 4장과 같은 주제 실험을 걸쳐 실제 대상과의 의미적 속성을 잘 보여주는지 검증된다면, 그 결과는 온톨로지의 다른 위계부와의 맵핑을 통해 더 구체화될 것이다.

참고 문헌

강명윤. (1992). *한국어 통사론의 제문제*. 서울:한신문화사.

고광주. (1994). *국어의 비대격 구문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고광필. 백선경. 김판구. 류시천. (2006). 온톨로지 기반의 시각정보 검색을 위한 감성 어휘 특성 분석. *기초 조형학 연구, 한국기초조형학회*, 7(3).

고신숙. (1987). 조선어리론문법.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권경원. (1985). 형용사 어순에 관한 연구. *논문집 9.* 목원대학교 출판부.

권규식. (1995). 감성의 기능화를 통한 신제품 개발에의 활용.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8*(2). 20-50.

권은숙. (2002). *색채와 공감각, 이제는 색이다.* 도서출판국제, 42-55.

권헌선. 권호경. 성수광. (1997). 시판 한복지의 태(hand)에 관한 연구: (1) 주관적 감각치와 역략량과의 상관성. *'97 한국감성과학회 연차학술대회논문집*, 57-62.

김미형. (1989). 형용사의 의미 유형과 구문의 차이. *제효이용주박사 회갑기념 논문집.* 서울: 한샘.

김정남. (2003). *국어 형용사 연구*. 역락.

김지은. 이경화. 이임갑. 손진훈. (1997). 직물촉각자극에 의해 유발된 정서와 EEG 특성. *'97한국감성과학회 연차학술대회논문집*, 189-192.

김창섭. (1985). 시각형용사의 어휘론, *관악어문연구 10.*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김태호 & 이홍규. (2002). *21C 현대디자인사전.* 조형신.

남기심, 고영근. (1998). *표준 국어 문법론*. 탑출판사.

남지순. (1993). 한국어 형용사 구문의 통사적 분류를 위하여 1 - 심리 형용사 구문 - *어학 연구 29-1.*

류병래. (2007). Ontology: Fundamentals, Issues, and the state-of-the-art. *한국언어정보학회 월례발표회 FISA 특강 발표논문.*

문지성. 권영하. 이주영. 강대임. (1997). 질감의 객관적 표현을 위한 표면 특성 측정 장치의 설계, *'97 한국감성과학회 연차학술대회논문집*, 16-21.

민재기. (1996). A semantic Study on the Color-adjectives in English, *인문과학논총 28*, 건국대.

박경욱. 이동호. (2007). 온톨로지를 이용한 이미지의 고수준 의미 정보 자동 추출 기법, *한국정보과학회* 2005 추계학술대회. 32-2.

박미자. 신수길. 한광희. 황상민. (1998). 감성 측정을 위한 우리말 형용사의 의미 구조, *감성과학, 1*(2), 1-10.

박수진. 정찬섭. (1998). 우리말 감성 어휘의 범주-차원 모형-직물 디자인의 시각적 요소와 관련하여-, *한국감성과학회지 2-1.* 77-94.

박연규. 강대임. 송후근. (1998). 촉각 질감의 물리적 성질 측정 시스템 개발. In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Emotion and Sensibility Conference '98 춘계학술대회.* 243-248.

박준하. 김병선. (1991). *한국어 형용사사전*. 계명문화사.

백선경. (2008). *감성기반 이미지 검색을 위한 시각정보 요소별 감성공간 생성*. 조선대 박사학위 논문.

유현경. (1998). *국어 형용사 연구*. 한국문화사.

이구형. (1997). 인간감성특성과 감성의 측정평가, In *Proceedings in the Korean Society for Emotion and Sensibility Conference.* 37-42.

이동화. (1993). *한국어 비대격 구문*. 광운대 석사학위 논문.

이상섭. 이기동. 남기심. 정찬섭. 이익환. 최윤철. (1991). *현대 한국어 사전 편찬을 위한 한국어 자료의 선정과 그 전산적 처리에 관한 연구 부록: 연세 말뭉치 1의 어휘 빈도표.* 연세대학교 한국어사전 편찬실.

이순요. 나까마찌미쥬오. (1996). *정보와시대의 감성인간공학*. 서울: 양영각.

이익섭. 채완. (2000). *국어 문법론 강의*. 학연사

이정민. (1976). Cases for Psychological Verbs in Korean, *언어 1-1.* 한국언어학회.

임국진. (1992). L.Tesnière 통사체계에 있어서 상황어의 기능에 대한 고찰. *중앙 대학교 인문과학 논문집 35.*

정무주. (1995). 극성대립을 이루는 공간형용사의 의미분석, *논문집 12-1*, 경일대학

교
정인수. (1994). *국어 형용사의 의미 연구*, 영남대 박사 학위 논문.
정찬섭. (1998). 감성과학의 심리학적 측면. *감성과학, 1*(1), 19-24.
정혜인 & 이남근. (2007). Classification for the Sensibility Adjective Vocabulary Scale by Shape, *현대문법학회 47*, 225-243.
조영희. (2002). A Framework of the Ontology-Based B2B Electronic Commerce. *자연과학연구*. (2)
최현배. (1937/1971). *우리 말본.* 정음문화사.
홍경희. 김재숙. 박춘순. 박길순. 이영선. 김재인. (1994). 여성용 춘추복지의 태에 관한 연구(제 1보) - 태의 주관적 평가척도 개발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8*(3). 327-338.
황상민. 김경인. (1999). 색채 감정척도의 개별과 활용에 관한 연구. In *Proceedings in the Korean Society for Emotion and Sensibility Conference. 99추계학술대회.* 295-301.
황재호. 김진용. 고한우. (2001). 색채가 인간감성에 미치는 영향 평가. In *Proceedings in the Korean Society for Emotion and Sensibility Conference. 01 추계학술대회.* 179-181.
ARC(The French Associations for Surgical Research), J.M.Hay, A.Fingerhut, F.Michot, Y.Flamant and I.Leblanc, 1993. French vocabulary terms of sensitivity expressed as percentages. *Theoretical Surgery8*, 181-193.
Archaism, R. (1981). *미술과 시지각.* 홍성사. (김춘일 역)
_____. (1995). *Art and visual perception.* 미진사.
Baek, S., Ko, K., Jeong, H. Lee, N., You, S., Kimm, P. (2006). The Creation of KANSEI-Vocabulary Scale by Shape, In the Poster Proceedings of ICDM 2006, p258-268.
Baek, S., Hwang, M., Cho, M., Choi, C., Kim, P. (2006). Object Retrieval by Query with Sensibility Based on the KANSEI-Vocabulary Scale, *LNCS 3979*, 109-119

Baek, S., Hwang, M., Kim, P. (2006). Kansei Processing Agent for Personalizing Retrieval, Lecture Notes in Artificial Intelligence, *Springer 4511*, 390-394.

Baker, M. C. (2003). *Lexical Categories Verbs, Nouns, and Adjectives*. Cambridge Studies in Linguistics 102.

Biber, D., Johansson, S., Leech, G. Conrad, S., & Finegan, E. (Eds) (1999). *Longman Grammar of spoken and Written English*. London:Longman.

Boucher, J., & Osgood, C. E. (1969). The Pollyanna Hypothesis. *Journal of Verbal Learning and Verbal Behavior, 8*, 1-8.

Bresnan, J. and Mchombo, S. (1995). The lexical integrity principle: evidence from Bantu.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13*: 181-254.

Broadwell, G. A. (1990). *Extending the Binding theory: a Muskogean case study.* Ph.D. Dissertation, UCLA.

Chomsky, N. (1970). Remarks on nominalization. in Readings in English transformational grammar, ed. R. Jacobs and P. Rosenbaum, 184-221. Waltham, Mass.: Ginn.

Christophersen, P. (1971). *An advanced English Grammar.* Macmillan, London: Mcmillion & Co. Ltd.

Crystal, D. (1978). *Linguistics* Penguin books Ltd.

Danks, J, H., & Glucksberg, S. (1971). Psychological Scaling of Adjective Order. *Journal of verbal Learning and Verbal Behavior, 10*, 63-67.

Dawes, V. H., Owen, J. O. (1971). The assessment of fabric handle - Part I & II. *Journal of Textile Institute, 62(5)*, 233-244.

Deese, J. (1964). The associative Structure of Some Common English Adjectives. *Journal of Verbal Learning and Verbal Behavior, 3*, 347-457.

Dixon, R. M. W. (1977). Where Have all the Adjectives Gone? *Studies in Language, 1*, 19-80.

Emonds, J. (1976). *A transformational approach to English syntax.* Yew York: Academic Press.

Givon, T. (1979). *On Understanding Grammar*. Academic Press; New York.

Gordon, L. (1987). Relative clauses in Western Muskogean. In *Muskogean linguistics*, ed. Pamela Munro, 66-80. Los Angeles: UCLA Department of Linguistics.

Gruber, T. R. (1993). A Translation Approach to Portable Ontology Specifications. *Knowledge Acquisition, 5(2)*, 1993, 199-220.

Haegeman, L. (1994). *Introduction to Government & Binding Theory*. Blackwell, Oxford Uk & Cambridge USA.

Hetzron, R. (1978). On the Relative Order of Adjectives. In H. Seiler (Ed.), *Language Universals*, 165-184. Tubingen:Narr.

Jackendoff, R. S. (1972). *Semantic Interpretation in Generative Grammar [Semantic Interpretation]*. MIT Press, Cambridge, Mass.

Kobayashi, S. (1981). The aim and method of the color image scale, COLOR research and application, 6(2), 93-107.

_____ (1990). *Color Image Scale*. New York: Kodansha America, Inc.

_____ (1998). Development of the image scale - six methods of color psychological study. *1998 한국심리학회 동계연구세미나: 인지공학-인지심리학의 응용*, 161-176.

Lapata, M., McDonald, S. & Keller, F. (1999). Determinants of Adjective-Noun Plausibility. *Proceedings of the 9th Conference of the European Chapter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30-36.

Lockhart, R. S., & Martin, J. E. (1969). Adjective Order and the Recall of Adjective-Noun Triples. *Journal of Verbal Learning and Verbal Behavior, 8*, 272-275.

Martin, J. E. (1969). Semantic Determinants of Preferred Adjective Order. *Journal of Verbal Learning and Verbal behavior, 8*, 697-704.

Martin, J. E. & Ferb, T. E. (1973). Contextual Factors in Preferred Adjective Ordering. *Lingua*, 32, 75-81.

Mitsuteru Kokubun 외 4인. (2000). System for Visualizing Individual Kansei Information, *Industrial Electronics Society,* IECON 2000. 26th Annual Conference of the IEEE 3, 1592-1597.

Miyagawa, S. (1987). Lexical categories in Japanese. *Lingua 73*, 29-51.

Ney, J. W. (1983). Optionality and Choice in the Selection of Order of Adjectives in English. *General Linguistics, 23*, 94-128.

Nicklas, D. (1972). *The elements of Choctaw.*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Ohkado, M. (1991). On the status of adjectival nouns in Japanese. *Lingua 83*, 67-82.

Osgood, C. E. (1964). Semantic differential technique in the comparative study of cultures. *American Anthropologist, 66*, 171-200.

Park, Soojin, & Chung, Chansup. (1998). Category-based dimensional model of affective words. *Korean Journal of The Science of Emotion & Sensibility*, 2(1), 77-94.

Perlmutter, D. (1978). Impersonal Passives and the Unaccusative Hypothesis. *BLS 4.*

Posner, R. (1986). Iconicity in Syntax. The Natural Order of Attributes. In P. Bouissac, M. Herzfeld, & R. Posner (Eds.), Iconicity. Essays on the Nature of Culture, 305-337. Tubingen: Stauffenburg Verlag.

Quirk, R. and Greenbaum, S. (1973). *A Concise Grammar of Comtemporary English.*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New York.

Quirk, R., Greenbaum, S., Leech, G., & Svartvik, J. (Eds.)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Longmans.

Radford, A. (1988). *Transformational Grammar.* Cambridge.

Richards, M. M. (1977). Ordering Preferences for Congruent and Incongruent English Adjectives in Attributive and Predicative Contexts. *Journal of Verbal Learning and Verbal Behavior, 16*, 489-503.

Schreiber, A. T., Dubbeldam, B., Wielemaker, J., Wielinga, B. (2001). Ontology-based Photo Annotation. *IEEE intelligent systems & their applications*, 16(3).

Smith, N. and Wilson, D. (1979). *Modern Linguistics*. Penguin books Ltd.

Stubbs, M. (2001). *Words and Phrases: Corpus Studies of Lexical Semantics.* Cornwall: Blackwell.

Taylor, J. R. (1992). Old Problems: Adjectives in Cognitive Grammar. *Cognitive Linguistics, 3*, 1-35.

Vendler, Z. (1967). Linguistics in Philosophy. Cornell University Press; Ithaca, N.Y.

_____. (1968). *Adjectives and Nominalization.* Mouton Publishers; The Hague.

Wester, M., Macy, A., McMullen, W., Nakazawa, R., and Busch, J. (1994). *AcKnowledge Ⅲ for the MP 100WS*, Biopac Systems, Inc.

Wulff, S. (2003). A multifactorial corpus analysis fo adjective order in English. *International Journal of Corpus Linguistics 8*(2), 245-282.

<http://www.guidancecom.com/alphabet/texture.htm> Texture. The Alphabet of art

<http://en.wikipedia.org/wiki/Ontology> 'Ontology'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www.hp.com/productivity/color/pdf/meaning_of_color.pdf,2006>

<http://www.iricolor.com/02_business/information_trend.html>

<http://wordnet.princeton.edu/ 'WordNet-2.1.exe'>

<http://www.learn4good.com/languages/evrd_grammar/adjectives_prepos.htm>

<부록1>

주관 형용사와 객관 형용사의 하위 분류 (유현경, 1998)

<table>
<tr><td rowspan="4">주관형용사</td><td rowspan="2">심리형용사</td><td>대상 심리형용사</td><td colspan="2">경이롭다, 궁금하다, 귀엽다, 그립다, 달갑다, 대견스럽다, 두렵다, 만족스럽다, 무섭다, 미덥다, 믿음직스럽다, 밉다, 부럽다, 불쌍하다, 사랑스럽다, 수상쩍다, 싫다, 아깝다, 예쁘다, 원망스럽다, 좋다, 측은하다 ...</td></tr>
<tr><td>원인 심리형용사</td><td colspan="2">갑갑하다, 섭섭하다, 놀랍다, 고통스럽다, 노엽다, 흡족하다, 기쁘다, 슬프다, 곤혹스럽다, 괴롭다, 외롭다, 쓸쓸하다, 서운하다, 고깝다, 아찔하다, 고통스럽다, 부끄럽다, 서럽다, 흐뭇하다, 원통하다 ...</td></tr>
<tr><td>감각형용사</td><td colspan="3">간지럽다, 고프다, 깔깔하다, 나른하다, 더부룩하다, 따끔하다, 띵하다, 마렵다, 먹먹하다, 메스껍다, 뻐근하다, 뻑적지근하다, 시큰하다, 아프다, 어지럽다, 저릿하다, 쭈뼛하다, 찌릿하다, 편하다, 허전하다 ...</td></tr>
<tr><td>판단형용사</td><td colspan="3">관계없다, 괜찮다, 마땅하다, 무방하다, 상관없다, 소용없다, 시원찮다, 좋다 ...</td></tr>
<tr><td rowspan="3">객관형용사</td><td>성상형용사</td><td colspan="3">가늘다, 가볍다, 굳다, 길다, 깊다, 날쌔다, 높다, 단단하다, 더럽다, 두껍다, 따뜻하다, 뚱뚱하다, 말끔하다, 매끈하다, 무겁다, 뾰족하다, 시큼하다, 얇다, 예쁘다, 짧다, 충성스럽다, 크다, 푸르다, 흐리다, 희다 ...</td></tr>
<tr><td rowspan="2">장소교차형용사</td><td colspan="3">가득하다, 그득하다, 그들먹하다, 낭자하다, 소복하다, 수북하다, 왁자하다, 자욱하다, 흥건하다 ...</td></tr>
<tr><td>유사장소교차형용사</td><td colspan="2">글썽하다, 보얗다, 빠듯하다, 뽀얗다, 소란스럽다, 소란하다, 시끄럽다, 시끌벅적하다, 시끌시끌하다, 어지럽다, 울창하다, 덥수룩하다, 파다하다, 푸짐하다, 혼란스럽다, 희부옇다, 희뿌옇다 ...</td></tr>
</table>

객관형용사	대칭형용사	비교대칭	같다, 관계없다, 다르다, 동등하다, 동일하다, 똑같다, 무관하다, 비등하다, 비스름하다, 비슷비슷하다, 비슷하다, 상이하다, 어슷비슷하다, 유사하다, 판이하다, 흡사하다 ...
		상호대칭	가깝다, 나란하다, 막역하다, 밀접하다, 서먹서먹하다, 스스럽다, 절친하다, 친밀하다, 친숙하다, 친하다, 팽팽하다, 화목하다 ...
	기준형용사	비교기준	가깝다, 걸맞다, 다름없다, 불과하다, 진배없다, 틀림없다 ...
		조건기준	간편하다, 나쁘다, 난감하다, 부적당하다, 부족하다, 빠듯하다, 무난하다, 손쉽다, 수월하다, 쉽다, 알맞다, 어렵다, 용이하다, 족하다, 좋다 ...
	소유형용사	있다 ...	
	소재형용사	있다, 드물다, 수두룩하다, 없다, 허다하다 ...	
	가능형용사	골똘하다, 관대하다, 극진하다, 깍듯하다, 깜깜하다, 능하다, 무관심하다, 무능하다, 무력하다, 밝다, 서투르다, 소홀하다, 솔깃하다, 어둡다, 유의하다, 익숙하다, 철저하다, 초연하다, 충실하다, 친숙하다, 환하다, 해박하다 ...	
	대응형용사	강하다, 급급하다, 나쁘다, 알맞다, 약하다, 유리하다, 유용하다, 유익하다, 유효하다, 이롭다, 적당하다, 적절하다, 좋다, 해롭다 ...	
	태도형용사	그지없다, 당연하다, 보통이다, 분명하다, 뻔하다, 사실이다, 십상이다, 옳다, 용하다, 예사이다, 일쑤이다, 자명하다, 잘못이다, 틀림없다, 한량없다, 확실하다 ...	

<부록 2-1>

기하학을 중심으로 한 형태 분류*(Classification of Shape) 1.*

		곡선형(Soft)	직선형(Hard)	결합형(Combination)
평면 (Plane)	단순 (Cool)	원(Circle)	삼각형(Triangle) 정삼각형(Equilateral Triangle) 이등변삼각형(Isosceles Triangle) 직각삼각형(Isosceles Right Triangle) 둔각삼각형(Obtuse Triangle) 사각형(Quadrangle) 정사각형(Regular Quadrangle) 직사각형(Rectangle) 마름모(Rhombus) 평행사변형(Parallelogram) 사다리꼴(Trapezo)	활꼴(Segment of a Circle) 반원(Half Circle) 부채꼴(Sector) 둥근 삼각형(Rounded Triangle) 둥근 직사각형(Rounded Rectangle)
	복잡 (Warm)	타원(Ellipse)	다각형(Polygon)	둥근 다각형(Rounded Polygon)
입체 (Cubic)	단순 (Cool)	구형(Sphere) 반구형(Hemisphere)	입방체(Cube) 삼각뿔(Triangular Pyramid) 사각뿔(Square Pyramid) 오각뿔(Pentagonal Pyramid) 삼각기둥(Triangular	원뿔(Cone) 타원뿔(Elliptic Cone) 원기둥(Cylinder) 타원기둥(Elliptic Cylinder)

			Prism) 직육면체(Cuboid) 오각기둥(Pentagonal Prism) 오각기둥(Triangular Dipyramid) 사각양추(Square Dipyramid) 오각양추(Pentagonal Dipyramid)	
	복잡 (Warm)	원환체(Torus)	각기둥(Prism) 각뿔(Pyramid) 양추(Dipyramid) 다면체(Polyhedro)	Concurrence Form Opposition Form Piercing Form

<부록 2-2>

기하학을 중심으로 한 형태 분류(*Classification of Shape*) 2.

구 분	곡선형(Soft)		직선형(Hard)		결합형(Combination)	
단순 (Cool)	원(Circle)	●	삼각형(Triangle)	▲	활꼴(Segment of a Circle)	◗
			정삼각형(Equilateral Triangle)	▲	반원(Half Circle)	◗
			이등변삼각형(Isosceles Triangle)	▲	부채꼴(Sector)	▼
			직각삼각형(Isosceles Right Triangle)	◢	둥근 삼각형(Rounded Triangle)	▲
			둔각삼각형(Obtuse Triangle)	▲	둥근 직사각형(Rounded Rectangle)	■
			사각형(Quadrangle)	⏢		
			정사각형(Regular Quadrangle)	■		
			직사각형(Rectangle)	▬		
			마름모(Rhombus)	◆		
			평행사변형(Parallelogram)	▱		
			사다리꼴(Trapezoid)	⏢		
복잡 (Warm)	타원(Ellipse)	⬬	다각형(Polygon)	⬟	둥근 다각형(rounded polygon)	⬢

<부록 3>

형태 이미지 설문 조사 자료(영/한): 각 자료에 제시된 번호는 4.1.1절의 설문 형태 순서에 따른 것임.

,
,
,
,
,
,
,
,
,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영어영문학과	학 번	19941007	과 정	박사
성 명	한글: 정 혜 인 한문: 鄭 惠 仁 영문: JEONG HYE IN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 3동 모아미래도아파트 102-501				
연락처	E-mail: hyeinjeong@yahoo.com				
논문제목	[한글] 영한 형용사 분류: 온톨로지 구축 기반을 위하여				
	[영문] Classification of English and Korean Adjectives: Ontology-based Perspective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과 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 이용의 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 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 반대( )

2008년 8월 일

저작자: 정 혜 인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